

대한태권도협회

실행이사회 개최

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 4월 15일 프라자호텔 22층 토파스에서 실행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안건으로는 '96대표선수 선발대회 개최계획, '96국제대회 파견계획, 시범단 파견계획, '96 사업추진계획, 실행이사회 운영 규정 등이 토의되었다.

특히 '96사업추진계획으로 태권도센터 건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연간 4억의 발전기금의 조성, 삼성태권도팀 창단, 시도지부 및 연맹지원, 선수 강화훈련 지원, 장학사업, 연구개발사업, 회원 서비스향상을 위해 올림픽공원내 사무실 이전, 경기장 분위기 개선을 위해 경기장내 의견 수렴함 설치 및 경기임원, 심판원에게 새로운 복장을 지급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의제가 검토되었다.

세계선수권대회 유공자, 훈장받아

김영수 문화체육부장관은 5월 22일 문화체육부 5층 회의실에서 '95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며 국민의 자긍심 고양과 국위선양에 공이 큰 태권도 대표선수단 임원 6명 등을 비롯해 총 1백17명에게 체육훈장을 각종 포상을 시상했다.

이날 태권도 인사 6명은 체육훈장 백마장을 수상했는데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경지 : 제12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감독

- ▲전판선 : 제12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코치
- ▲장 권 : 제 12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코치
- ▲윤판석 : 제5회 여자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감독
- ▲류황국 : 제5회 여자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코치
- ▲이경배 : 제5회 여자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코치

기술심의회 전체회의 통해 개정안 심의 - WTF에 경기규칙 개정안 제출

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 5월 17일 오후 2시부터 올림픽호텔 중회의실에서 기술심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경기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기술심의회 의장단 및 각분과 위원장,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태권도가 좀더 흥미있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경기규칙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심의된 개정안은 현재 세계태권도연맹에 제출되었다. 경기규칙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차등점수제 ▲심판2심제 ▲경기장규격확대 ▲심판 및 감독의 복장 변경 등이다.

양영도 경기분과 위원장 문화체육부장관 표창장 수상

양영도 기술심의회 경기분과위원장이 제76회 전국체육대회 유공자로 문화체육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표창장은 지난 5월 10일 국기원에서 거행된 전국여자개인 선수

권대회 입상자 수여식 때 이흥주
상임부회장이 전수했다.

기술심의회는 경기분과 양영
모 위원장이 운영하는 인무체육
관이 지난 5월 28일 저녁 근처
의 대립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
생했다. 이에 대해 태권도협회는
회장단과 사무국 직원, 기술
심의회 임원들이 성금을 모금해
어려움에 처한 양영모 위원장에
게 전달하며 위로했다.

한국여성태권도회장기 대회 인전 구월 로마체육관 단체 우승

한국여성태권도회(회장 정효
심)가 주최한 제6회 한국여성태권
도회장기 태권도대회 겸 여자개인
선수권대회가 6월6일 서대문 문화
체육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서울·경기지역 30개 태권도장
에서 7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
번 대회는 남자 초등부, 여자부(초
등·중등·고등부) 품새 및 겨루
기 경기가 펼쳐져 인전 구월 로마
체육관(관장 가용순)이 단체우승
의 영광을 안았다.

심판원을 비롯해 학교팀 코치,
일선도장 운영 및 사범등 다방면
에서 여성 태권도 발전을 위해 일
익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태권도인
들의 모임인 한국여성태권도회는
1986년 발족되었다.

제6회 용인대총장기 전국남녀 고교대회 개최

용인대 태권도학과 주최로 지난

삼성물산, 베트남 태권도체육관 건립지원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이필곤)
회장사인 삼성물산이 베트남정부
에 10만달러(약 8,000만원)의 태
권도 전용체육관 건립기금을 기증
하기로 했다.

베트남정부는 연초 자국에서
일고 있는 태권도붐을 확산시키기
위해 태권도 전용체육관을 짓기로
하고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협조
를 요청했던 것. 마침 지난 2월 제
외공관장 회의차 귀국한 김봉규대
사가 이같은 사실을 정부에 보고
했고 당사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사
로 내정된 삼성물산이 이를 적극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베트남은 월남전 당시 파월국
군에 의해 동남아에서 가장 먼저

태권도가 보급됐고 최근에는 국내
시범단이 몇차례 파견되는등 태권
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60년대부터 베트남과 무역을
해온 삼성은 최근 개방화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베트남을 주
요 사업파트너로 인식해온 터라
쉽게 기증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비
료, 철강, 플랜트, 섬유류등 2억1
천 2백만달러를 수출했다.

이와 관련, 태권도인들은 회장
사에서 태권도 전용체육관 건립기
금을 외국에 기증한 만큼 국내 태
권도전당 건립에도 박차를 가할
조짐으로 보고 적극 반기는 분위기
다. <국민일보 4월 18일자>

삼성, 올림픽 후원 등 스포츠마케팅 적극 추진

삼성그룹이 스포츠마케팅에 적
극 나서고 있다. 삼성은 다음달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하계올
림픽에 400평규모의 엑스포관을
설치·운영키로 했고 98년 태국
방콕 아시안게임에도 대회운영위
원회측에 900만달러를 제공, 가
전제품과 컴퓨터부문에 대한 공식
후원업체로 선정됐다.

삼성은 엑스포관을 대회후에도
상설 개관, 홍보영화방영, 제품전
시 등 '삼성알리기'의 해외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삼성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도 공식후원사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삼성은 특히 우리나라의 고유

무술인 태권도가 시드니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것을 계기로
태권도를 세계적 스포츠로 발전시
키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이필곤
삼성물산부회장이 지난해 대한태
권도협회 회장을 맡은 것도 이 때
문이라고. 또 이견희 회장의 국제
올림픽위원회(IOC)위원 위촉을
수년째 추진하고 있는 것도 주지
의 사실이다. 회장비서실 전략홍
보팀장인 배동우 전무는 『스포츠
행사를 통한 홍보는 그 효과를 산
술적으로만 따질 수 없을 만큼 무
한한 잠재력이 있다』며 스포츠마
케팅활동 강화방침을 밝혔다.

<한국일보 5월 10일자>

태권도 소식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용인대체육관에서 제6회 용인대총장기 전국 남·여 고등학교 태권도대회가 개최되었다.

남녀 체급별 개인전과 무제한 5명제 단체전으로 펼쳐진 이번 대회에는 개인전에 142개교에서 693명, 단체전에 36개교 180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개인전에서는 부평기술고의 이영우가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차지했고 단체전에서는 선인고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특별시협회

제16회 초, 중, 고대회 개최

서울시협회는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국민체육센터에서 제16회 서울시 초, 중, 고 개인선수권대회 겸 제 77회 전국체전 서울대표 고등부, 여자부 2차선발전을 개최하였다.

고등부, 여자부 체급별 입상자들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최종전에 참가하게 된다.

한편 탁월한 경기력을 발휘하며 서울시 초중고 개인선수권대회에서 체급별 우승을 차지한 영광의 주인공은 다음과 같다.

▲초등부 : 김대혁(문성), 김동훈(효제), 이근우(거여), 박종섭(석촌), 안치수(방학), 박주성(송파), 김희곤(신명), 김도휘(오금), 신지훈(강덕), 양경훈(은로), 정찬채(은로)

▲중등부 : 김민중(용곡), 박상일(쌍문), 박훈(용곡), 지상근(고

덕), 정재권(경수), 김영백(당곡), 양성우(오주), 조한중(사당), 김정록(자양), 김준호(사당), 최종근(배명)

▲고등부 : 라재철(단대부고), 김영성(동성고), 이석관(리라공고), 이춘기(서울체고), 손명국(광영고), 조원철(서울체고), 손용훈(단대부고), 최용석(단대부고)

부산광역시협회

소년체전 대표선발전 개최

지난 4월 15일 구덕실내체육관에서 각 교육구청별로 예선을 거쳐 선발된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96 소년체육대회 부산대표선발전이 개최되었다.

이 날 하명중(덕원중)은 중등부 미들급 결승에서 지난해 전국소년체전 2위의 윤용상(재송중)을 맞아 몸통 받아치기등 우수한 기술을 발휘 2:1 판정으로 부산대표로 선발되었으며 또한 라이트 헤비급 결승에는 정영환(반여중)이 박민구(영남중)를 돌려차기와 내려찍기등 다양한 기술로 6:3의 판정으로 우승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체급별 우승자 명단】

- ▲핀급 : 양우휘
- ▲플라이급 : 김병진
- ▲반탐급 : 황원영
- ▲페드급 : 권기범
- ▲라이트급 : 김길태
- ▲L웰트급 : 류동오
- ▲웰터급 : 임대규
- ▲미들급 : 한지훈
- ▲미들급 : 하명중
- ▲L헤비급 : 정영환

▲해비급 : 이승남

【승품·단 심사개최】

부산광역시 태권도협회에서는 '96년도 제2회 심사대회를 지난 4월 21일 사직실내체육관에서 3,600여명의 응심자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여 3,30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태권도를 통해 생활체육 확산에 이바지한 우수도장을 표창하기도 하였다.

【우수도장상 표창】

▲천무체육관 : 최정권

▲선진체육관 : 박종태

▲북천체육관 : 김홍균

대구광역시협회

서대구 태권도협회 회장에

정우득씨 취임

대구광역시 태권도협회 서대구지부는 5월 14일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회장에 정우득씨(천무연체육관), 상임부회장 조용명씨(중앙체육관), 부회장 임정호씨(스타체육관), 김문화씨(송림체육관), 이동열씨(승일2체육관), 전무이사 이재도씨(두류체육관), 총무이사 강은수씨(강일체육관), 감사 박경한씨(경마체육관), 이재형씨(동일체육관)가 취임하였다.

정우득 회장은 경기인 출신으로 47회 48회 전국체육 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고 중앙 상임심판경력 과 대구 심판위원장, 경기위원장을 두루거치면서 현재 대구광역시 태권도협회 전무이사를 맡고 있다.

정회장은 1992년도 7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대구팀을 종합 2위

로 끌어올렸으며 작년에는 대구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학교는 96년 신입생 주·야간 80명을 모집하였다.

또한 96년 3월 10일 (주)보성주택 실업팀(코치 서성교 외 7명)을 창단시켰으며 제34회 대통령기 전국 태권도대회를 대구에서 유치시키는데 태권도에 대한 남다른 집념과 정열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우득 회장의 외교활동 전적은 다음과 같다.

• 중국 청도시 태권도협회와 대구 태권도협회 자매결연 조인식. (96.3.18~3.25)

• 미얀마 국가대표와 7명의 대구 대표선수를 인솔하여 친선경기차 감독으로 미얀마 랑군사에서 국제경기 치름. 이를 계기로 매년 친선경기하기로 수교했음(96.2.15~2.20).

인천광역시협회

각종 행사개최

• 3월 17일 제 2차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가 인천 실내체육관에서 1,015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림.

•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제 4회 인천광역시장이 대회가 실내체육관에서 75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 4월 14일 제 3차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점 제 23회 고단자(4, 5단) 심사대회가 1,234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성여자실업고등

학교에서 열림.

• 6월 22일 제 25회 소년체육대회 참가선수 강화훈련을 협회전용도장에서 실시.

• 5월 26일 제 4회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 개최

소년체육대회 종합 4위 달성

인천협회는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경북 영천에서 개최된 제 25회 소년체육대회에 대표선수단 11명을 파견했다. 대회결과 라이트급 윤상호(구월중)가 금메달을, 페더급 김천호(산곡남중)와 라이트 웰터급 금복수(구월중)가 은메달, 웰터급 이태훈(구월중)이 동메달을 차지하며 종합 4위를 기록하였다.

종별 대회 개최

96년도 인천광역시종별태권도대회가 6월 7~8일 인천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부별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남초부 : 임인목(구월서), 임성목(구월서), 신인철(논현), 장경훈(구월서), 김윤호(만석), 원세종(용현), 이대진(삼산), 여천웅(관교), 정현철(구월), 이우석(동수), 최현민(논현)

▲여초부 : 민은지(석남서), 이나래(산곡남), 고은진(산곡남), 김다혜(서곡), 오정아(산곡남), 김고은(구월서), 정수미(간석), 허혜림(삼산), 오혜미(도림), 신수정(도림), 김미경(논현)

▲남중부 : 이창민(산곡남), 김태화(구월), 홍성민(효성), 박준석(관교), 피상훈(부흥), 한성수(산

태권도 소식

곡남), 김도영(관교), 이관복(상인천), 임철민(부흥), 임대희(구월), 김종호(효성)

▲여중부 : 정지영(부흥), 장은영(부흥), 김해정(부흥), 김명진(계산), 김기현(계산), 엄혜원(계산), 윤미나(가좌), 송주영(화도진), 홍자연(계산), 김선일(부흥)

▲남고부 : 권기덕(강화), 신희중(부평기술), 노희철(선인), 김치훈(부평기술), 김원경(선인), 남경인(광성), 최광택(선인), 오병철(북공고)

▲여고부 : 김소영(정보산업), 배순연(정보산업), 엄태옥(정보산업), 김셋별(문성여상), 차원지(정보산업), 박성희(문성여상), 선향림(정보산업), 이윤미(북공고)

7~9월 행사계획

• 7월 중 제 77회 전국체육대회 선발전 예정

• 7월 21일 제 6차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

• 8월 18일 제 7차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겸 제 24회 고단자(4, 5단)승단 심사대회

• 9월 22일 제 8차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

광주광역시협회

체육관 협의회 회의 개최

체육관협의회(회장-김정록 관장)는 3월 26일 1/4분기모임을 갖고 소년체전 위문건과 태권도가족 친목체육대회건을 상정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이 회의에서 소년체

전 광주선수단에게 5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하고 각 구별로 관장들이 어린선수들을 위문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6월 9일에는 태권도관장들의 친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문흥동청소원 수련관에서 전가족체육대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심판보수교육 실시

96년도 각종대회를 보다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태권도 심판보수교육이 무등경기장 태권도훈련장에서 3월 30일 98명의 심판원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광주협회는 이들중 심판을 선정하여 올해의 행사를 치를 예정이었다.

승품·단 심사대회 개최

작수달 첫 일요일에 승품·단 심사를 실시하는 광주협회는 4월 7일과 6월 2일 각각 905명과 881명의 응심자가 참가한 가운데 구동실내체육관에서 거행하였다.

이 심사에서 품새부문과 겨루기 부문에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우수자를 각 5명씩 10명을 선발하여 상장과 상품을 주어 격려하였다.



▲ 심판보수교육에 참가한 심판원들



▲ 품새와 겨루기 부문 우승자들

대전광역시협회

제8회 시민체육대회, 서구우승

대전시는 제8회 시민체육대회를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성황리에 치루었으며 태권도 부문 경기는 초등부와 성인부로 구분되

어 다목적 체육관에서 각 구 대표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소속구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으며 특히 성인부 경기에서는 관중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다.

▲우승: 서구

▲준우승: 동구

▲3위: 대덕구

대전광역시 태권도 지도자들, 만학을 달린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에 채택된 태권도의 질적·양적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의 태권도팀과의 자매결연·일선 체육관장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4년제 편입학을 추천하는등 대전협회에서는 그동안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

변화해가는 태권도 수련생들의 기호에 맞추기 위하여 학교체육 및 사회체육의 병행은 물론 운동처방까지의 심도 깊은 지도를 바라는 수련생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이때, 대전광역시 태권도협회에서는 일선체육관 지도자들을 태권도와 병행 모든 체육의 전문지식을 확보, 앞으로 다가올 21세기 꿈나무들의 교육에 정진할 수 있도록 목원대학교 사회체육과에 2학년 2명, 3학년 7명등을 추천하는등 하루를 반으로 나누어 배우면서 가르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이들은 태권도 지도자의 진로까지 심혈을 기울여준 협회 한용석 회장의 배려와 노고에 깊이 감사하고 있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태권도 기술개발과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구청장기 대회 개최

지난 4월 13일 대전실업전문대학 체육관에서는 제8회 동구청장기 대회가 개최되었으며 14일에는 제1회 대덕구청장기가 세일고등학교 대죽체육관에서, 21일에는 제3회 서구청장기 대회가 올림피아기념국민생활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 우승자는 대전광역시 민체육대회에 각구 대표로 출전한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은 큰 자부심을 갖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또한 경기를 지켜보기 위하여 찾아온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갈채를 받았으며 이자리에서 한용석 대전광역시 협회장은 내일의 주인공인 어린 꿈나무들이 태권도를 바로 알고, 올바른 국가관과 건전한 심신을 성숙시키며, 기에 능한 선수가 되기 이전에 덕목을 갖춘 태권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체급별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동구청장기: 배성환(대동초등), 김남주(가양초등), 이문형(산내초등), 최진호(대암초등), 홍영기(송룡초등), 배대일(자양초등), 송세영(대암초등), 유병훈(가양초등), 유영훈(대동초등), 박만용(동대전초등), 전명기(홍룡초등).

▲대덕구청장기: 박상훈(양지초등), 강혁준(와동초등), 이청훈(동대전초등), 정준우(용정초등), 강연길(와동초등), 엄동석(동대전초등), 황석범(중원초등), 이정욱(동대전초등), 김세중(동대전초등), 유지훈(중원초등), 유승열(와동초등).

태권도 소식

▲서구청장기 : 박찬중(가수원초등), 장진웅(탄방초등), 김대식(서원초등), 신일섭(문정초등), 이권열(봉산초등), 이세호(서원초등), 박범석(한밭초등), 김정식(가수원초등), 이종석(둔원초등), 문민규(정림초등), 권범순(성룡초등).

▲단체전

대구구청장기 : 호암체육관
대덕구청장기 : 청성체육관
서구청장기 : 둔산체육관

경기도협회

제25회 소년체육대회 우승

경기도 협회는 5월 25~28일까지 경복영천에서 거행된 제2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태권도경기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따내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설승용(성남서중) 금메달
이기수(성남서중) 금메달
윤원중(곡선중) 은메달
전하성(기흥중) 동메달
박현우(안양부중) 동메달
조민철(성남도중) 동메달

제18회 경기도 협회장기대회

제18회경기도협회장기대회가 5월29일~31일 3일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1,221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우승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남자초등부 : 부림초등학교
▲남자중등부 : 의정부서중학교
▲남자고등학교 : 태성고등학교

▲여자부중등부 : 대원여중학교
▲최우수선수상

(남자부)

초등부 : 하동주(안양부림초등)

중등부 : 박채호(의정부서중)

고등부 : 김시중(태성고등학교)

(여자부)

중등부 : 육지은(대원여자중)

고등부 : 류미연(효원고등학교)

남자일반 : 안구현(서부체육관)

▲최우수 선수지도자상

(남자부)

초등부 : 김남근(부림초등학교)

중등부 : 임영진(의정부중학교)

고등부 : 강창식(태성고등학교)

일반부 : 노정호(서부체육관)

(여자부)

중등부 : 손병욱(대원여자중)

고등부 : 오상운(효원고등학교)

제29회 안성군 체육회장기대회 개최

5월 25일 제 29회 안성군 체육회장기 대회가 안성여자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243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시흥시 협회장기대회 개최

시흥시 협회장기대회가 5월 26일 소재초등학교에서 283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제1회 여주군 협회장기대회

제1회 여주군협회장기대회가 5월 26일 여주군실내체육관에서 204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협회

제19회 회장기 및 제77회 전국 체육대회 1차 선발

제19회 회장기 대회 및 제77회 전국 체육대회 1차 선발전 대회를 5월 11일~12일(2일간) 379명이 참가한 가운데 원주 치악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중등부(남): 김동성(춘천중), 고석화(강릉중), 박민열(평원중), 강진규(춘천중), 김재용(춘천중), 주진우(평원중), 김일구(강원중), 강호용(평원중), 최승분(속초중), 전주현(강원중), 조민형(강릉중)

▲중등부(여): 정선영(관동중), 정선미(광동중), 김유미(서화여중), 김성옥(관동중), 박선영(유봉여중), 최진희(서화여중), 김미경(관동여중), 최인경(유봉여중), 윤혜숙(서화여중), 정훈옥(서화여중), 이해선(도계여중).

▲고등부(남): 김진석(강원체고), 이창재(사대부고), 안경혁(사대부고), 이종호(강원체고), 김성기(강원체고), 김동현(강원체고), 이경호(강원체고), 이춘수(강원체고).

▲고등부(여): 정선영(강원체고), 전유미(사대부고), 이상희(강원체고), 이슬비(강원체고), 김복순(사대부고), 이선영(강원체고), 정미경(문성고).

▲대학부: 엄대원(삼척산업대), 김남춘(강릉대), 최정원(관동대), 박진만(강릉대), 박승주(강릉대), 김원규(강릉대).

▲일반부: 박수연(원주), 장용진(양구), 권혁주(원주), 최성화

(양구), 김희영(양구), 윤정민(원주), 이정수(원주), 임호빈(양구).

▲중등부(남)

종합우승: 평원중학교

최우수선수상: 박민열(평원중)

지도상: 이정옥

▲고등부(남)

종합우승: 강릉체고(A)

최우수선수상: 이종오(강원체고)

지도상: 노용석

▲대학부

종합우승: 강릉대학교

최우수선수상: 김남춘(강릉대)

지도상: 조교 최춘길(강릉대)

▲일반부

종합우승: 원주시

최우수선수상: 권혁주(원주시)

지도상: 관장 강원원(강원체육관)

지도상: 관장 이호섭(이호섭체육관)

▲중등부(여)

종합우승: 서화여중

최우수선수상: 최진희(서화여중)

지도상: 류예준(천도체육관)

▲고등부(여)

종합우승: 강원체고

최우수선수상: 정선영(강원체고)

지도상: 박만성(강원체고)

제2차 승단심사 개최

제2차 승단심사대회가 원주시 천일체육관에서 있었다. 총 1251명 합격하였다.

소년체육대회 개최

지난 4월 15일~18일(4일간) 강릉시 주문진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387명의 선수들이 1, 2부로 나

누어 기량을 겨루었다.

제급별 우승자 명단: 임정현(춘천), 유영대(춘천), 이종재(홍천), 김영근(홍천), 이상혁(춘천), 윤성하(춘천), 지유민(원주), 정명구(춘천), 김태영(홍천), 김성규(춘천), 이상일(원주), 심관용(인제), 배주성(철원), 이진(고성), 이삼수(철원), 김일(평장), 송광석(철원), 구자룡(철원), 박철희(인제), 최재민(영월), 김성기(인제), 김영업(인제), 고승우(강릉), 김동욱(춘천), 이민규(춘천), 김일구(춘천), 최승문(속초), 조대관(정선), 고석화(강릉), 강진규(춘천), 김재문(춘천), 한주영(강릉), 신윤기(강릉), 이태훈(철원), 서동진(양구), 김성호(영월), 유지상(철원), 김영민(철원), 우대원(영월), 허택진(양구), 이상혁(인제), 김상진(철원), 조자현(고성), 안순석(철원).

충청북도협회

제25회 소년체육대회 개최

4월 18일~19일(2일간) 제 25회 소년체육대회가 청주중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부별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조성규(충주성남), 서동희(충주성남), 조영민(제천홍파), 이신규(충주성남), 권택준(제천동명), 최창석(청주남성), 최준락(제천홍파), 장시홍(청원내수), 조완희(제천남천), 이항우(충주강천), 김용민(제천동명).

▲중학교: 반재희(청주중), 박

태권도 소식

형순(청원오창), 허영일(청주중), 함근식(청원내수), 한상원(청원내수), 오규진(청주중), 임대호(청주중), 변재준(청원내수), 서동균(청원내수), 김승현(청주중), 권태선(청원내수).

제22회 중·고연맹대회 개최

5.11~5.12 2일간 제22회 중·고연맹 대회가 충청북도 학생회관 체육관에서 열렸다.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남) : 조종현(충대부중), 채승명(청주중), 유재형(청주중), 오명우(청주중), 김광래(서원중), 신영근(서원중), 김광운(서원중), 강수완(청원내수), 민훈기(주성중), 장경균(주성중), 이용선(매포중).

▲중학교(여) : 김소희(대소중), 서경미(내수중), 조향화(옥천여중), 홍정화(제천여중), 김희영(서원중), 김민영(제천여중), 김순기(매포중).

▲고등학교(남) : 최용주(청주기계공고), 김태상(충저기계공고), 박동철(충북체고), 양승호(청주기계공고), 이정래(충북체고), 이광중(충북체고), 노윤삼(체전공고), 김철진(부강공고).

▲고등학교(여) : 정성화(충북체고), 박호진(충북체고), 현수정(충북체고), 임경숙(충북체고), 김화영(충북체고), 권영하(충북체고), 최혜주(충북체고), 김윤정(충북체고).

▲최우수선수 명단

중학부 : 채승명(충주중)

고등부 : 양승호(청주기계공고)

▲종합순위

청주중학교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제20회 초등학교 회장기 대회

5.18~19(2일간) 제 20회 충북 초등학교 태권도연맹 회장기 대회가 충청북도 학생회관에서 충청북도내 초등학교 재학생 유품자 462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자유겨루기 우승자 : 조성규(충주성남), 서동희(충주성남), 지영호(충주성남), 최성락(청원오창), 최승록(청주주성), 김열돌(제천동명), 백건호(청주창신), 연병욱(청주홍덕), 박진갑(음성수봉), 송세영(청주수곡), 김용민(제천동명).

▲여자 자유겨루기 우승자 : 김경아(청주우암), 정선영(단양매포)

▲종합성적 우수학교 및 지도상
1위 : 충주 성남초등학교
지도상 : 이충희코치(성남초등학교)

제35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6.8~6.9(2일간) 청원 부용면 생활관에서 제 35회 도민체육대회가 열렸다.

▲종합성적

1위 : 청원군 선수단

2위 : 옥천군 선수단

3위 : 청주, 증평선수단.

충청남도협회

제19회 협회장기 대회겸 제77회 전국 체전대표 선발대회

충절과 천혜의 관광도시로 유명

한 보령의 대천체육관에서는 지난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제 19회 충남협회장기 겸 제 77회 전국 체육대회 충남 대표 최종 선발 대회가 각 팀의 뜨거운 응원전과 함께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 이민호(천안구성초등) 선수가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은영(웅천고)선수가 우수 선수상을 수상하였다. 각 부 종합성적 및 지도자상을 수상한 명단과 충남 대표로 선발된 영광의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단체 성적

초등부 1위 : 홍남초등

중등부 1위 : 예산중

고등부 1위 : 천안농고

일반부 1위 : 부여군협회

여자부 1위 : 충남체고

지도자상 : 최재춘(홍남초등감독), 김기영(예산중감독), 한길상(천안농고감독), 서승만(충남체고감독), 정현도(군산여고 코치).

▲충남대표 선수 명단

고등부 : 이정태, 김진희, 송성빈(천안중앙고), 최찬우, 김광민(충남체고), 정단성, 김지수(천안농고), 이수욱(대전수산고)

대학부 : 전병호(방통대), 박호진(중부대), 유영택, 김선웅, 정환백, 정동혁, 송영재, 이진영(용인대)

일반부 : 조영국, 정주철, 이강희, 윤희준, 신경수, 박형대(삼무), 전상준, 신평수(보령시청)

여자부 : 박재순, 김혜옥, 김순주(충남체고), 양소희(한체대), 신헌운(용인대), 김미란(군산여고), 박재연(천안여고), 강혜진(성신여대)

전라북도협회

제16회 교육감배 대회 개최

협회는 제16회 전라북도 교육감배 타기 태권도 대회를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전북협회 유기대 회장, 전북교육청 임승래 교육감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다. 대회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남초등부 : 김경수(대야초등), 한정훈(전주남초등), 한득훈(전주남초등), 김철민(군산남초등), 이병건(무장초등), 신희욱(전주남초등), 강원석(전주송천초등), 서강철(무장초등), 윤성태(봉서초등), 이동환(무장초등), 조정주(남성초등)

▲남중등부 : 최우영(군산동중), 이준식(군산동중), 박주산(전주중), 김권(군산중앙중), 김대겸(배영중), 임현(전주중), 원종숙(장계중), 강재천(합열중), 이수용(전주중), 손정우(정읍 소성중), 장성익(장계중)

▲남고등부 : 홍성현(전주공고), 선복철(합열고), 장문식(전주공고), 문경준(군산상고), 이병희(만경고), 김용일(만경고), 유영현(전주공고), 서길용(군산중앙고)

▲여초등부 : 김효성(김제중앙초등), 김주미(군산문화초등), 정주희(군산수송초등), 고지선(장흥초등), 박미란(군산경포초등), 유수미(송광초등), 김은정(군산동초등), 김선영(군산경포초등), 김혜리(송광초등), 김보미(삼천남초등), 김수현(송광초등)

▲여중등부 : 김은영(정읍소성중), 채선민(옥구서중), 유미옥(정읍소성중), 전윤미(군산중앙여중), 유희선(소양중), 정애진(소양중), 김미란(중앙여중), 박송이(군영여중), 이은미(군산여중), 오복순(소양중), 채주희(군산중앙여중)

▲여고등부 : 김명례(고창여고), 전정화(고창여고), 김잔디(군산중앙여고), 이은주(고창여고), 박정은(고창여고), 기미선(고창여고), 조양희(고창여고), 김숙영(고창여고)

▲단체상 수상 : 전주남초등학교, 송광초등학교, 전주중, 소양중, 전주공고, 고창여고

최우수선수상 : 홍성현(전주공고)
우수선수상 : 한득훈(전주남초등고), 기미선(고창여고)

지도상수상자 : 황점동(전주남초등고), 정도희(송광초등고), 오형근(전주중), 채경석(소양중), 김익수(전주공고), 성경찬(고창여고)

제2차 승품, 단 심사대회

전북협회에서는 제 2차 승품, 단 심사대회를 4월 28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하여 총 1,36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전라남도협회

춘계종별 남·녀 대회 개최

신인 선수들의 기량을 측정하는 춘계종별대회가 4월 13일~14일까지 전남태권도훈련장에서 219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태권도 소식

부별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남중부 : 차인철(여수중), 이길갑(법성중), 서석준(이수중), 정호영(고금중), 박재현(여수중), 윤병찬(이수중), 전남철(금일중), 안세웅(금일중), 김호성(화순남중), 김종석(남석중), 조성규(구례중).

▲남고부 : 위진구(관산고), 김경대(황산실고), 서성수(송지중고), 황선문(현경고), 조영현(전남공고), 구공수(옥과고), 박인수(능주고)

▲여자부 : 김주현(남산중), 강지나(법성중), 서유란(남산중), 권유경(금일중), 윤현주(남산중), 김정남(화순여중), 신경옥(능주중), 김미정(관산고)이 차지했다.

제13회 초등학교 대항 태권왕 겨루기대회

5월 4일 전남체육회관내 태권도훈련장에서는 많은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대회가 개최되었다.

단체우승은

1위 : 순천 부영초, 2위 : 여천복초, 3위 : 영광 법성포초,

체급별 우승자는

윤승열(부영초), 김형진(등산초), 박천호(겸면초), 김바다(점암초), 김명환(청계초), 서진성(순천성남초), 배재선(정암초), 김성익(부영초), 구덕민(여수남초), 주미연(광양 중앙초), 천정훈(광양 중앙초)이다.

제35회 도민체육대회

전라남도민 화합을 다짐하는 도민체육대회가 순천시에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성대히 치뤄졌다.

태권도는 순천대학교 체육관에서 경기를 치루었는데 단체우승은 1위 : 목포시, 2위 : 여수시, 3위 : 보성군이고 체급별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유창호(장흥군), 최용훈(고흥군), 한지환(장흥군), 마천국(나주시), 강재원(영광군), 이준희(목포시), 양재훈(함평군), 최원집(함평군)이다.

승품(단) 심사대회 개최

전남협회는 응심자의 편의를 위해 4월 27일 여수 전남체육관과 5월 25일 전남태권도훈련장에서 심사대회가 개최되었다.

4월 27일 심사 총 265명과 5월 26일 심사 총 595명의 유품(단)자를 배출하였다.

6월중 각종 행사 실시

15~16일 : 제77회 전국체전 전남2차 예선전

19~21일 : 1. 2. 3급 심판교육 및 강습회

22~23일 : 제18회 교육감기타기 초·중학교 및 제 10회 교육감기타기 고등학교 및 제 1회 교육감타기 여자부 중·고태권도대회

29일 : 심사(여천중앙초등학교)

30일 : 전남태권도인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각 시·군 지회 임원 및 관장을 중심으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매년 열리는 축구대회가 올해는 나주초등학교에서 열렸다.

경상북도협회

경북개도 100주년 제34회 경상북도민 체육대회

경북개도 100주년 제 34회 경상북도 도민체육대회가 '푸른 상주 알찬 체전 밝은 경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5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삼백의 고장 상주에서 개최되었다.

5월 7일 오후 2시 정각 상주산업대학교 실내체육관에 있는 태권도 경기장에는 경북태권도협회(회장 박중원)임원과 상주시협회 관계자들이 빠짐없이 나와 8일부턴 경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지막 점검을 하였다.

한편 심판부(부장 신용우)에서는 50여명의 상임심판중 엄선하여 선발된 2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채점기에 의한 득점교육과 수신호 실기를 2시간에 걸쳐 시행하였다.

오후 4시 경기장에서는 시·군 대표자회의에 이어, 5시부터는 상주시태권도협회(회장 이규상)가 주관한 환영연이 각시·군회장단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상주시 태권도협회 이규상 회장은 환영사에서 "경북개도 100주년을 맞이하고 초대 민선 도지사 선출이후 처음 갖게되는 이번 경북도민의 한마당 잔치를 이곳 삼백 우리고장 상주에서 개최하게 됨을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번 도민체전이 모두의 멋진 화합의 장으로 연출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우리 경북태권도의 무궁

한 발전을 위한 뜻깊은 행사로 군계자리 잡기를 바란다." 말했다.

이어서 경북태권도협회 에조혜 실무부회장은 "유서깊은 선비의 고을 상주에서 제 34회 경북도민체전이 개최된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작년 전국체육대회를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치뤘던 경험을 토대로 이번 대회가 어느 대회보다도 더 알찬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이번 도민체육대회에는 지난 전국체전에 사용된 컴퓨터 채점기를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판정이 가능하였으며 또한 상주산업대학교 태권도 동아리 회원들이 도우미를 맡아 예쁜 한복차림에 시·군 팻말을 들고 뒤를따라 선수들이 입장하는 모습에 관중들은 많은 박수를 보냈다.

항도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 선수들은 평소다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일반부 경기에서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선수들이 출전했는가 하면 30대의 나이에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선수도 출전해 고향에 대한 애환심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선수자격 확인을 위해 단증의 미지참으로 인해 계체실격이 많았으며, 경기력의 차이로 RSC나 기권이 속출하는 등 마음만 앞서는 경기도 있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컴퓨터 채점기의 활용은 종래 판정의 시비 문제를 상당히 해소하였으며, 심판부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중들도 경기를 관전하면서 득점에 대한 이해와 벌칙행위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

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도내 각종대회에서 컴퓨터 채점기를 활용함으로써 경기장에서의 판정 시비를 없애고 판정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을 갖게 하는 한편 관중들의 경기 관람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경기 감각을 높이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본다.

▲경기결과

시부 : 고등부	1위 : 포항시
	2위 : 영천시
	3위 : 경산시
일반부	1위 : 영천시
	2위 : 포항시
	3위 : 상주시
군부 : 고등부	1위 : 고령군
	2위 : 칠곡군
	3위 : 의성군

(종합성적)

시부	1위 : 포항시, 영천시
	3위 : 경산시
군부	1위 : 의성군, 고령군
	3위 : 칠곡군

경북출신 대표급 선수들 은퇴식

5월8일 오전 11시 태권도 경기장에서는 뒤늦은 은퇴식이 열렸다.

이 은퇴식은 경북출신으로서 3회 이상 전국체전과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항도의 명예를 빛낸 왕년의 선수들을 위한 것이었다.

은퇴선수들을 소개하면 문종국, 장철환, 이창건, 장운정, 김영철, 이건원 선수이다. 장운정 선수는 31세의 나이에 지난 10월 본도에 서 개최된 전국체육대회에 여자부 헤비급 선수로 출전해 은메달을 따내는 노익장을 과시하기도 했다.

태권도 소식



은퇴식을 맞은 경북출신 대표급 선수들

은퇴식에서 예조해 실무부회장은 식사를 통해 앞으로도 이제까지 해왔듯이 열심히 향토 태권도 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크나큰 영광이 함께하기를 빌며 지도자로서의 훌륭한 선수들을 길러내어 경북태권도의 명성을 찾아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걸어본다.

제주도협회

제31회 전도 태권도 대회

도지사기 및 교육감기·제주교육대학교 총장기 타기 제 31회 전도태권도대회가 4월 20일 한라체육관에서 제주도태권도협회(회장 고우방)추치로 개인전과 단체전(남고등부, 일반(대학)부) 경기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69개팀에서 남자 285명과 여자 42명 등 총 327명의 선수가 출전하였다.

한편 이번대회 최우수상은 박태열(서귀중), 장려상은 광금교가 수상했다. 지도상은 황설철(삼양교), 김용일(중앙중), 안영익(남주교), 이광진(광우체육관)씨가 받았다. 부별 단체성적 및 체급별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단체성적

초등부 1위 : 삼양교, 중등부 1위 : 중앙중, 고등부 1위 : 남주교, 일반(대학) 1위 : 광우체육관

▲각 체급별 우승자

핀급 : 진문호(광금교) 신경아(여·삼양교), 임창용(대정중), 김소연(여·제주동중)

플라이급 : 최상주(광금교), 고진욱(여·태흥교) 한경찬(조천중)

밴텀급 : 오재철(효돈교), 고은예(여·도남교), 이광현(서귀중), 이정화(여·제주동중), 이명선(여·서귀농고), 임이정(여·용호체육관)

페더급 : 김천권(신촌교), 서희정(여·삼양교), 박양배(남주중), 오선주(여·남원중)

라이트급 : 윤달호(하귀교), 좌혜선(여·신평교), 박태열(서귀중), 부윤경(여·남원중)

L.웰터급 : 오치운(효돈교), 김대운(중앙중), 한승미(여·함덕중)

웰터급 : 김영철(삼양교), 진미화(여·화북교), 김영훈(제주동중), 김진주(여·예월중)

L.미들급 : 김종안(서귀중앙교), 손보라(여·삼양교), 강권우(대정중), 한혜란(여·남원중)

미들급 : 김상수(삼양교), 최희중(오현중), 박해정(여·제주여중), 고은정(여·한림공고)

L.헤비급 : 장명수(서귀중앙
교), 현동훈(제주중)

헤비급 : 오일환(남원교), 문은
정(여·한림여중)

제30회 도민체육대회

1백만 내의 제주인들의 대화합
과 전진을 다짐하는 제 30회 도민
체육대회가 5월2일 오전 10시 제
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에서 개막
식과 함께 4일까지 3일간 학교와
지역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열
전에 돌입했다. 세계 제주인 한마
당 축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한
라새싹들의 제전을 통합해 21세
기를 향한 선진 제주의 모습을 보
여준 축제의 장으로 치러졌다.

“하나로, 98로, 세계로”를 대회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통합제전은

도민체전이 31개종목, 한라새싹
들의 제전 22개종목, 한마음축제가
7개종목이 펼쳐졌다. 또 올해
는 여자 일반부에 유도과 태권도가
신설돼 흥미를 더했다. 이번 제
전에서 태권도대회는 5월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제주농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대회성적은 다음과 같다.

▲초등부

1위 : 북제주군

2위 : 서귀포시

3위 : 제주시

▲중등부

1위 : 제주시

2위 : 서귀포시

3위 : 북제주군

▲고등부(남자)

1위 : 남주고

2위 : 남녕고

3위 : 제주공고

▲고등부(여자)

1위 : 제주공고

2위 : 제주여상

3위 : 서귀농고, 함덕중고, 제주
상고

▲일반부(남자)

1위 : 한라전문대

2위 : 남제주군

3위 : 서귀포시

▲일반부(여자)

1위 : 남제주군

2위 : 북제주군

3위 : 서귀포시

제3회 전도 초등학교 대회

제주도 초등학교 태권도연맹 회
장기타기 제3회 전도초등학교태
권도대회가 6월1일 한라체육관에
서 제주도 태권도협회(회장 고우
방)와 제주도 초등학교 태권도연
맹(회장 김제곤) 공동주최로 개최
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42개팀에서 남
자 143명과 여자 25명 등 총 168
명의 선수가 출전하였다. 지난해
준우승팀인 신촌교는 남초등부 단
체전 11체급가운데 5체급을 석권
하면서 금 5, 동 1개로 종합우승
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삼양교는 금 2, 은 1, 동 3
개로 종합 2위를, 종합 3위는 은
1개로 태흥교가 그리고 장려상은
곽금교에게 돌아갔다.

대회 최우수선수는 남자부 페더
급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천권(신
촌교)이 수상했으며, 김태진교사
(신촌교)와 김창범(신촌체육관)씨
가 지도상을 받았다.

▲체급별 우승자 명단(남자·

전국소년체전 2연패 - 페더급 박태열 선수(서귀중 3년)



지난해에 이어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박태열(서귀중)
은 우승의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더욱 노력을 기울여 국가대표
는 물론 제주선수로서는 최초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
다.”고 포부를 밝혔다. 원발 받아치기가 주무기인 박태열 선수는 서귀
중앙교 3학년때 태권도에 입문하여 그동안 도내 대회는 물론 각종 전
국대회에서 상위입상하는 등 태권도 차세대 주역으로 기대를 모았던
선수로서 박종식씨와 김향식씨의 2남2녀중 장남.

태권도 소식

여자 순

한찬석(신촌교), 고진옥(태흥교), 서용석(신촌교), 오영연(은평교), 오재철(효돈교), 고은예(도남교), 김천권(신촌교), 서희정(삼양교), 전승범(신촌교), 김은진(화북교), 고남효(삼양교), 김소라(태흥교), 강산(제북교), 진미화(화북교), 김종안(서귀중앙교), 이년숙(서호교), 김상수(삼양교), 손보라(삼양교), 김명연(신촌교), 오미경(남원교), 오일환(남원교), 강지연(화북교).

승품 · 단 심사대회

정기 승품 · 단 심사가 6월 8일 오후 3시에 제주시 한라체육관과 서귀포시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이번 심사에서는 1품 245명, 2품 74명, 3품 23명, 1단 62명, 2단 14명, 3단 13명, 5단 5명 등 총 439명이 참가했다.

한국대학연맹

전국 대학개인대회 겸 제4회 세계대학선수권 선발대회 개최

한국대학연맹은 7월 5일부터 7일까지 국기원에서 3일간 제23회 전국 대학개인태권도 선수권대회 겸 제4회 세계 대학태권도 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수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의 남녀 체급별 우승자는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짐니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제4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에 한국대표선수

로 출전하게 된다.

한국중고태권도연맹

제1회 세계 주니어선수권대회 대표 파견

중고태권도연맹은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제1회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에 임원 및 선수 등 총 26명의 대표선수단을 파견했다.

중고연맹은 꿈나무발굴 및 세계최강의 경기력 유지 계승을 위해 지난 4월 12일과 13일 국기원에서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 파견할 대표선수를 선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대회에 파견된 선수들은 대한태권도협회의 2천년 꿈나무 육성계획에 따라 여름방학기간 동안 하계합숙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태권도의 2천년 시드니 올림픽 채택을 계기로 스페인은 제1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를 유치, 유럽을 비롯한 세계최강을 노리고 있다.

대표선수단 명단 (남자팀)

▲단장 : 장준용

▲감독 : 박종식

▲코치 : 조현길

▲트레이너 : 이완희

▲주무 : 김부영

▲선수 :

핀 : 김종성(충북체고)

플라이 : 민병석(단국사대부고)

밴텀 : 김의철(문성고)

페더 : 김정준(동성고)
 라이트 : 김신규(남주고)
 웰터 : 박동현(송곡고)
 미들 : 윤귀상(서울체고)
 헤비 : 이경호(강원체고)
 (여자팀)

▲단장 : 박성귀
 ▲감독 : 김인수
 ▲코치 : 이택명
 ▲트레이너 : 권오민
 ▲주무 : 박주호
 ▲선수 :
 핀 : 강지현(은광여고)
 플라이 : 박경은(리라공고)
 밴텀 : 송민주(한림여실고)
 페더 : 주해원(효원고)
 라이트 : 이승의(경성여실고)
 웰터 : 이선희(고양중고)
 미들 : 김미영(문산중고)
 헤비 : 유승아(경성여실고)

제23회 연맹회장기대회 개최

한국 중고태권도연맹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제23회 한국중고태권도연맹회장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남고부 74개교 499명, 남중부 71개교 580명, 여고부 44개교 235명, 여중부 49개교 207명 등 총 238개교에서 1521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대회결과 광주문성중, 서울체고, 리라공고, 성서중이 부별 종합우승을 차지하였고 김신진(서울체고), 김수현(리라공고), 최홍식(광주 문성중), 현현아(성서중)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초등학교연맹

제17회 문화체육부장관기 대회 개최

한국초등학교연맹은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경남 거창군 거창읍 군민체육관에서 제17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 초등학교태권도를 개최한다.

이번대회는 초등학교 5, 6학년 재학생이 참가하는 겨루기 부문(11체급)과 학년제한이 없는 품새 부문 경기가 펼쳐진다.

어린이태권왕선발대회 대구야양, 경기덕소 종합우승

한국 초등학교연맹은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동안 국기원에서 '96교보생명배 전국어린이 태권왕선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대회에는 전국의 118개교에서 1,277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경기결과 겨루기 부문은 대구야양초등학교와 경기덕소초등학교가 남녀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품새부문은 경기문산초등학교의 김희부 선수가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기원

제1기 2급 사범지도자연수

국기원은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지원자 70명을 대상으로 연수원과 경기장에서 제

1기 태권도 2급 사범지도자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과목은 체육법령, 스포츠상해 및 구급법, 품새(고단자), 겨루기지도법, 시범방법, 특강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지도자 연수는 태권도의 이론 및 실기에 대한 지도능력을 배양하며 2급사범지도자를 양성하여 태권도 보급 및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제1기 태권도 2급 사범지도자 합격자명단

김광섭, 이정웅, 이영기, 신동수, 최학근, 최충순, 지성수, 강석한, 손동국, 박경하, 장지홍, 박계홍, 이성국, 김홍식, 김경배, 박승용, 장재진, 이정수, 남영호, 이용남, 신현무, 김호섭, 조병연, 이성우, 오문섭, 송기화, 이강영, 홍영록, 왕준용, 한규학, 김원환, 이규형, 최종복, 김영덕, 김경곤, 박종일, 김용성, 전홍수, 김봉식, 고국환, 문영길, 서상대, 박점수, 이덕수, 이수원, 정기식, 김진희, 장원익, 김수근, 김정완, 윤석중, 신기철, 선우진, 이규현, 윤종욱, 김종오, 이영기, 이종관, 임동열, 김천구, 김재곤, 이도근, 이정효, 이호열, 홍순태, 백희열, 박기식, 이병천, 김형수, 한상진 이상 70명

세계태권도연맹

제34회 국제심판 강습회 개최

세계태권도연맹은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 호주 멜버른공대

에서 제34차 국제심판강습회를 실시했다.

이번 강습회에는 각국에서 25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어 세계연맹 경기규칙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필기, 실기, 인터뷰 등 3과목 시험을 통해 국제심판자격증을 발급했다.

집행위원회 개최

세계태권도연맹은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제1회 세계 주니어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앞서 6월26일 바르셀로나 프라자 호텔에서 오전 10시 30분 집행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집행위원회에서는 경기규칙 및 규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였다.

재독일지부

불우이웃돕기 연무시범대회 개최

재독 대한 태권도 협회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연무시범대회를 지난 3월 9일 오후6시 부터 싸월란드에 위치한 Kirspe 도시에서 개최 하였다. 이날 연무시범 대회에는 김우강, 최영복, 이근태, 김일권, 서재용, 차영길, 여흥현, 김영희, 김인형, 문재민, 김상열, 이유영, 조성하, 김우선 사범등 많은 무술인들이 출연하여 절묘한 묘기를 선보여 600여명의 관중을 열광시켰다. 특히 이번 연무시범대회는 불우이웃을 돕는 시범대회인 만큼 시범진행과정은 관중들의 열띤 환

호와 뜨거운 발수갈채가 그칠 줄 몰랐다.

제1회 세계주니어대회, 대표팀 코치에 신인식 사범

6월 28일 부터 30일 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하는 제1회 세계 청소년 태권도 대회 독일 청소년 대표팀 코치는 10년간 독일 청소년 대표팀 코치를 역임한 신인식 사범이 사령탑을 맡게 되었다.

전 재독 대한태권도협회장 백진건씨의 장남 백수명군 독일 대표선수 선발

독일 태권도협회(회장 Stepfan klawitter)가 주관한 제1회 세계 청소년대회 독일 대표선수 선발전이 빌레펠트 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는데 이번 선발전에서 전 재독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인 백진건씨의 장남 백수명군이 15~18세 이하 52~56kg 체급에서 독일 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백군은 95년도 독일 선수권 대회에 최종결승까지 진출했으나 석패하여 이번에 설욕한 것이다. 백군은 그 동안 독일대회에 출전,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경력을 갖고 있다.

백진건씨의 장남인 백수명군은 누나 안나양과 함께 아버지로부터 수련을 받았으며 남매가 모두 3단이다.

유럽땅에 심고 가꾼 조국의 얼 자랑스런 태권사범 이범이

30년전 대한민국에 관한 한 화무지연했던 독일에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 국위선양을 외치며 외롭고도 험난한 세월을 개척한바, 모든 한인들의 모범이 되어 대통령 표창이란 영광을 안고도 오로지 조국을 위하여 조용히 일했을 뿐이라는 겸손의 말을 아끼지 않는 이범이 사범. 1965년 대학을 졸업한 다음해에 내득하여 태권도 사범으로 첫발을 내딛으며 곧장 독일 태권도 협회를 창설 함으로써 조국을 알리기 위해 첫 신호를 올렸다.

한인회를 발족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일깨우고, 또한 학문에도 열중하여 1974년엔 독일 하노버 체육대학을 졸업하고 하노버 헤어만렌스 중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태권도 도장을 개관하여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더욱 힘썼다.

1979년 한독문화협회를 창설함으로 태권도뿐만 아니라 한국어 강좌, 고전무용, 한국요리강습

(특히 수천명의 제자들에게 김치 강습)을 실시함으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현재 문화 체육관 관장으로 직접 지도자 육성에 힘쓰며, 특히 매년 모국 전지 훈련단을 인솔하여 태권도 중추국의 이모저모를 알려주며 국위선양에 한몫을 하고 있다.

대사배 국제 태권도 대회 성황 이수광, 김정곤, 최영복 사범 주독대사배 표창수상

재독 대한 태권도협회(회장 김우선)는 대사배 국제 태권도대회를 지난 5월 11일 레버쿠젠 Ophovener Sporthalle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태권도협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김정곤(수석부회장), 이수광(자문위원), 최영복(자문위원)사범에게 홍순영 주독대사 표창장이 송영오공사에 의해 전수되었다.

한편 대회 개막식에는 레버쿠젠 어머니 무용단이 화관무, 부채춤을 연출하여 한국의 문화를 소개했으며, 북부독일 하노버에서 태권도사범으로 활약하고 있는 여흥권 사범이사의 주관하에 사범들과 2세 시범단이 태권도의 묘기를 보여 장내 분위기를 한층더 고조시켰다.

특히 프랑크푸르트 인근지역인 오펜바흐 체육관에서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손국환 사범이 3m 높이에 있는 송판을 둘러차기로 격파했을 때 터져나온 관중들이 탄복과 문화생들의 환호는 한국이 태권도의 중추국임을 과시하기에 충분했다.

이날 대회는 29명의 사범들이 대동한 선수 355명을 나이별로 구분, 50개 체급으로 나누어 열전을 벌였다.

특히 이번 주독대사배 국제대회는 대우 폴란드 지사의 협찬으로 이수광 사범이 18명의 선수를 출전시

켜 6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대성과를 거두어 이채를 띠기도 하였다.

이날 종합 우승은 베를린 최체육관(관장 최종관)이 금메달 6, 은메달 7, 동메달 14개를 획득 영예의 대사배를 안았다.

재미지부

올랜드 이기정 사범 「제1회 해외한국인 기록문화상」 수상



이기정 관장(8단)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ORLANDO)시에 거주하는 이기정(K.J. LEE'S TKD)관장이 한국의 SBS-TV와 문화일보가 공동으로 기획, 광복 50주년 기념 행사의 하나로 실시한 「제1회 해외한국인 기록문화상」에 응모하여 <태권도 보급회상기>가 당선되었다. 시상식은 2월 15일에 서울에서 있었으며 상금 3천달러(US)는 한미교육에 기증하였다.

남자 12연패, 여자 5연패 달성

정 국 현/한국대표선수단 남자부 코치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아시아연맹회원국 2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제12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남자부가 금 6개, 은 1개로 대회 12연패, 여자부가 금6, 은 2개로 대회 5연패를 달성하였다.

아시아선수권대회 대표선수단

- ▲단장 : 이승완(대한태권도협회부회장)
- ▲남자부 감독 : 차동철(부산체육고 감독)
- ▲여자부감독 : 유문규(경연분과 위원장)
- ▲남자부코치 : 정국현(진로태권도팀 코치)
- ▲여자부코치 : 강성철(용인대 교수)
- ▲트레이너 : 문종국(경북체육고 코치)
- ▲팀닥터 : 정철웅(강동 카톨릭병원 의사)
- ▲남자선수

핀급 : 김병태(용인대학교, 1위)
플라이급 : 유영택(용인대학교, 1위)
밴텀급 : 김현용(영천시청, 1위)
페더급 : 유용진(동아대학교, 2위)
라이트급 : 심기선(경희대학교, 1위)
웰터급 : 김경훈(한국체육대학교, 1위)
미들급 : 이동완(한국체육대학교, 1위)
헤비급 : 문대성(동아대학교, 탈락)

▲여자선수

핀급 : 양소희(한국체육대학교, 1위)
플라이급 : 김보인(경희대학교, 2위)
밴텀급 : 원선진(경희대학교, 2위)
페더급 : 이승민(춘천시청, 1위)
라이트급 : 이선희(고양중합고등학교, 1위)
웰터급 : 조향미(인천시청, 1위)
미들급 : 박은선(경희대학교, 1위)
헤비급 : 정명숙(경희대학교, 1위)

종합성적

- ▲남자부
 - 1위 : 한국(금6, 은1)
 - 2위 : 이란(금2, 은4, 동1)
 - 3위 : 호주(은1, 동1)
- ▲여자부
 - 1위 : 한국(금6, 은2)
 - 2위 : 대만(금1, 은2, 동2)
 - 3위 : 호주(은2, 동2)

이번 제12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단은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14일간의 합숙기간 동안 기초체력과 전문체력 그리고 외국선수와의 경기에서 보다 효과적인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훈련을 강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6월 10일 남·녀 종합우승이라는 목표를 갖고 굳은 각오로 대망의 장도에 올랐다.

11시간의 긴 비행을 마치고 멜버른 현지에 도착한 우리 선수단은 초겨울인 그곳 날씨에 적응이 안되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멜버른에서 하루를 보낸 선수단은 기후에 개의치 않고 조직위원회의 팀 훈련계획에 의해 타이거 체육관에서 12일 오전 9~10시, 13일 오후 두시~세시의 훈련시간을 배정받아 현지 적응훈련에 돌입했고 경기를 대비한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가졌다.

대회 첫날인 14일 경기는 남자부 한체급과 여자부

4체급이 거행됐다.

남자부 페더급 유용진 선수는 대회 첫날이라서 그랬는지 첫번째 경기를 시작할때는 긴장을 많이 해 경기를 효과적으로 운영 못하다가 회전이 거듭할수록 분발해서 12:0이란 큰 득점차이로 가볍게 1회전을 통과했다.

그런데 첫 경기에서 부터 준결승까지 별다른 무리 없이 경기를 치르다가 결승전에서 이란 선수를 맞아 상대전수의 차고 넘어지는 아비한 경기운영과 중심의 경기운영 미숙으로 내용에서 이기고 판정에서는 5:6으로 지고 마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첫날 첫 경기이기 때문에 단장님을 위시해서 전무님 그리고 선수단은 첫경기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우리 선수가 금메달 획득에 실패하자 순간 선수단 전원은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단장님을 비롯 코칭 스태프는 다시는 이와 같은 희생이 없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소청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유선수는 정말로 아쉬운 은메달 리스트라고 생각한다.

월드컵의 결과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던 우리 선수단은 불안하고 초조한 분위기로 두번째 경기인 여자부 헤비급 정명숙 선수에게 첫 금메달의 영광을 기대했다. 정선수는 세계대회 금메달리스트로서 훌륭한 기술로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면서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호주선수와 대결해 5:2 판정승을 거두어 금메달의 영광을 맛보았다.



세번째 경기는 선수단의 막내 유일한 고등학교생인 여자부 라이트급 이선희 선수.

코칭스태프는 합숙기간동안 이선희 선수에 대해 많은 관심과 우려를 가졌던게 사실이다.

그 이유는 어린선수이자 국제경기의 경험이 전혀 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선희 선수는 우리의 우려를 씻고 첫경기를 흥분하지 않고 베테랑선수 못지않은 침착한 경기운영으로 가볍게 승리 했다. 확실한 자신감을 얻어서 인지 경기가 진행될수록 이선희 선수는 과감한 공격 기술로 정확한 득점을 얻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결승에 오른 이선희 선수는 강력한 라이벌 국가인 대만선수와 대전을 하였으나 9:2의 득점결과가 말해주듯이 일방적인 승리로 금메달의 영광을 맛보았다.

여자부 밴텀급 원선진 선수는 예선전부터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힘겨운 경기를 펼쳤는데 결승에서 대만의 Hui Wen Tang 선수를 맞아 4:1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첫날 마지막 경기인 여자 페더급의 이승민은 원지에 도착해서부터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았지만 여러번의 국제경기의 경험을 토대로 한 다양한 기술로 한 국여자부의 간판스타답게 상대를 효율적으로 공략해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 진출한 이선희 선수는 베트남 선수의 저돌적 공격에 경기 초반 약간 고전하는 듯 했으나 베테랑선수답게 훌륭한 경기운영으로 첫날 경기의 피날레를 아름다운 금빛으로 물들여 놓았다.

대회 이틀째 첫번째 경기에 임하는 편급의 김병태 선수는 요르단 선수에게 약간은 고전했으나 회를 거듭할수록 안정된 경기를 펼쳐 무난히 결승에 진출했고, 결승에서 맞붙은 아시아의 강타자인 필리핀의 Roberto cruz를 맞아 뒷차기와 자신의 특기인 이중 발차기 기술로 빅 게임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9:2이라는 큰 점수로 심겁게 경기를 끝냈다.

플라이급의 유영택 선수는 경기초반부터 순발력을 토대로 한 고난위 기술로 상대전수를 완전히 제압했다. 그러나 결승전에 진출한 유선수는 아시아권의 강력한 라이벌 국가인 이란전수를 맞아 득점을 먼저 빼앗겨 당황 했으나 침착한 경기운영으로 득점을 만회

해 9:5로 낙승을 거두고 대선수의 탄생을 예고했다.

여자 웰터급의 조향미는 첫번째 경기에서 대만 선수를 맞아 가슴조리는 경기를 펼치다 결정적인 뒤 후리기 공격을 성공시켜 정말 어려

운 1회전 판문을 통과했다. 결승전에 진출한 조선수는 복병으로 떠오른 저돌적인 일본선수를 맞아 초반 시소게임을 펼치다 결국 10:7로 승리를 거두고 금메달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다음 경기는 대표팀의 주장 밴텀급의 김현용 선수. 근면성과 성실성 그리고 경력이 말해주듯이 태권도경기의 진가를 그대로 보여준 경기의 현장이었다. 역시 경력은 경기력의 가장 중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없었다. 예선전부터 쟁쟁한 선수와 대전을 했으나 안정된 경기운영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가볍게 승리해 결승전에 진출했고 결승전에서도 대만선수를 맞아 탁월한 기량으로 8:4의 득점차로 승리를 해 또 하나의 금메달을 선수단에 추가하게 되었다.

미들급의 이동완 선수는 작년 세계선수권대회의 우승자로서의 부담감 때문인지 기대했던 것 만큼 기량발휘를 하지 못했다.

충분히 득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고, 결승전에서도 강력한 이란선수를 맞아 3:1의 박빙의 리드로 어려움 속에서도 금메달의 기쁨은 누릴 수가 있었다.

여자부 핀급의 양소희 선수는 역시 근성이 있는 대단한 선수였다. 양선수는 경기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강한 집념과 근성으로 남자도 아닌 여자자 7~8kg의 감량에 성공한 것이다.

경기에 임하고 있는 동안 우리 코칭스태프는 혹시나 경기중 무리한 감량으로 인한 신체적인 이상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안심할 수 없었



남녀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우승컵을 든 한국대표선수단.

는데 양선수는 예선 첫경기를 가볍게 이기고 작년 세계대회 때 결승에서 패배한 대만선수와 다시 결승에서 맞붙게 되었다. 경기 결과는 8:4로 양소희 선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고 작년 세계선수권

대회의 패배를 멋지게 설욕하고 금메달을 획득하였던 것이다.

이틀째 경기의 마지막 경기는 여자부 미들급 박은선 선수였다. 결승에서 주최국 선수인 호주선수를 맞아 결정적인 돌려차기 공격을 성공시켜 2:1의 힘겨운 승리로 7개의 금메달이 확정되는 그날 전체급 석권이란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2일째의 결과에 대만쪽을 했지만 금메달 독식으로 인한 마지막날의 경기내용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대회 3일째 첫번째 경기에 출전한 라이트급의 심기선 선수는 예상외로 경기를 잘 풀어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 오른 심선수는 공격적인 이란선수를 5:4의 힘겨운 승리로 국제대회 첫 우승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헤비급에 출전한 문대성은 첫 판문을 부전으로 통과하고 두번째 경기에서 주최국 호주선수를 맞아 돌려차기와 내려차기 기술로 분전했으나 전날 우려를 말해주듯이 결승진출이 좌절되고 말았다.

여자부 플라이급의 김보인 선수는 첫 경기에서 대만선수를 어렵게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으나 외국 심판들의 한국 견제외식의 영향으로 네팔선수에게 7:8의 근소한 득점차로 금메달 도전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 경기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심판들의 무리한 판정의 본보기라 할 수 있었다.

이번 대회의 마지막 경기에 웰터급의 김경훈 선수가 출전, 큰 키를 이용한 돌려차기 공격과 침착한 경

기운영으로 상대를 압도해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 이란선수를 맞아 초반 고전했으나 3회전의 결정적인 받아차기 뒤차기공격을 성공시키면서 경기를 리드해 8:5의 득점차로 금메달을 목에 걸고 국제경기의 멋진 한을 말끔히 씻어 내렸다. 우리 선수단 모두도 국제경기에서의 연패의 늪에서 벗어난 김선수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보내 주었다.

다음은 이번 대회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우리 선수들이 보완하고 개발해야 할 몇가지 제언이다.

가. 문제점

1. 관중동원의 미흡

이번 조직위원회와 호주 태권도 협회간에 상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인지 홍보가 전혀 안된 상태였다. 시내 어느 곳을 가보아도 프랭카드 하나 제대로 구경할 수가 없었다.

2. 심판의 자질과 공정성 문제

심판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공정성이다. 심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요되지 않고 정확하게 판정을 해야한다.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득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3. 대회진행의 미숙

아시아 선수권대회는 공식적인 시합이다.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야 하고 진행도 체계적으로 모든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아슬게도 그렇지 못했다.

나. 제언

1. 다양한 Step의 개발

- 다양한 스텝을 이용한 발차기 기술을 수행
-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기
- 상대공격으로 부터 피하기

2. 침착한 경기운영

- 경기는 서두르면 망친다. 한국선수들의 능력으로 1~2점차의 실점도 침착하게 경기운영 한다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3. 몸통공격에서 얼굴공격으로

- 모든 선수는 얼굴을 현란한 기술로 멋지게 공격하고 싶을 것이다. 몸통을 공략하다 보면 얼굴을 가릴까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무리한 얼굴공격은 금품이다.

4. 체력의 강화

외국에서의 경기는 우리 선수단에게 여러가지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후 · 음식 · 환경 등의 각종 요인들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체력의 강화다.

5. 적극적인 공격기술 개발

- 체력을 밑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만이 국제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 받아차기 기술에 의존하는 수비형의 선수는 심판이나 관중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우리의 태권도가 살아 남기 위해서는 적극적 공격기술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맺음말

아시아권의 태권도 실력도 어느 대륙 못지 않게 많은 성장이 있었다.

경기장의 분위기 한층 더 뜨거워진 만큼 태도 한국의 물결도 더욱더 거칠어 진 것이 분명하다. 이번 경기의 특징은 남 · 녀 모두에서 대만선수의 부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에 반해 남자부의 이란은 한국의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되는 경기였다.

끝으로 아무 사고 없이 선전분투해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 모두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

‘재미있는 태권도’를 심고 종주국다운 ‘보다 월등한 기량’을 과시하는데는 다소 미흡

서완석/국민일보 체육부 차장

1. 대회의 의미

제12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6월14~16일, 호주 멜버른)에 임하는 한국선수단의 각오는 어느 때와는 자못 달라 보였다.

대한태권도협회 신집행부가 출범한뒤 대표1진이 출전한 첫 국제대회인데다 5월 하순에 열린 96월드컵대회(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서 남자팀이 사상 처음으로 종합우승을 내준 뒤끝인 때문이기도 했다.

그래서 대회를 앞두고 가진 결단식에서 이흥주 협회 상임부회장은 최선을 다해 메달을 딸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적어도 태권도에서 만큼은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겨져왔던 그간의 풍토에 비춰 볼 때 집행부의 메달주문은 극히 이례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이 대회가 갖는 정작 중요한 의미는 그동안 협회 신집행부가 추구해온 「새로운 태권도」바람을 아시아권역에도 전파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공정한 판정」에 바탕을 둔 「재미있는 태권도」를 만들어 21세기에도 계속 올림픽에 살아남는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아시아선수권대회를 3회연속 취재하게 된 기자는 이번만큼은 과거의 고질적인 나뉘먹기식 불공정 판정이 없기를 빌고 또 빌었다.

불공정판정이 계속되는 한 제아무리 재미있는 경기를 해도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2. 새로운 태권도를 위해

대회 첫날 역시 올 것이 왔다. 남자 페더급 결승에 진출한 한국의 유용진(동아대)이 이란선수와의 경기서 납득치 못할 판정으로 패하고 말았다.

한국선수단은 소청비 100달러를 지불하면서까지 즉각 소청서를 제출, 계속 도망다니는 이란선수에게 경고를 제대로 주지 않은 주심을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아시아연맹과 세계연맹으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편파판정을 일삼는 심판들은 향후 영구제명토록 압력을 가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한국이 종주국의 처신을 버

리고 메달에 너무 집착한다는 비난이 일 수 있었다. 그리고 부당판정에 항의할 당시 한국응원석에서 보여준 다소 격렬한 대응은 반성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태권도를 보급한다는 미명하에 저질러진 과거의 나눠주기식 판정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그리고 선수의 실력과 무관하게 어른들의 뒷공작에 의해 부당판정이 저질러지는 한 「새로운 태권도」는 요원하다는 게 선수단의 확고한 방침이었다.

특히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이 된 마당에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진검승부」를 해야 함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했다.

대회 2일째는 한결 공정한 판정이 이뤄진 듯 했다. 간혹 일부 국가들의 게임에서 애매한 판정이 나왔으나 100달러를 내야 소청을 받아들이는 악법때문에 우리처럼 소청을 제기하는 국가는 더이상 없었다.

다만 일부 경험없는 심판들이 공격자를 혼동해 얻어맞은 선수에게 득점을 주는 경우가 가끔 나와 심판의 재교육이 시급함을 일깨워 주기도 했다.

어쨌든 이번 대회서 한국은 「판정의 공정성 확보」라는 나름대로의 명제에 충실하면서 남자(금 6 은 1)가 대회 12연패, 여자(금 6, 은 2)는 대회 5연패라는 소정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또 다른 명제인 「재미있는 태권도」를 심고 종주국다운 「보다 월등한 기량」을 과시하는데는 다소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교훈

메달수에서 나타났듯이 선수들의 기량이 타국에 비해 우수한 것은 사실이었다. 치열한 경쟁을 뚫은 당대 최고의 실력을 보유한 한국선수들이 고작 20여 명의 경쟁자를 이기고 금메달을 따다는 것은 국내대회 우승보다 쉬운 일인지도 모른다.

정작 중요한 것은 관중들의 태도였다. 현지 조직위원회와 준비소홀로 관중들은 많지 않았으나 한국선수들이 점수위주의 소극적인 플레이로 일관했을때 어김없이 야유가 터져나왔다.

게임에는 이겼을지 모르나 종주국선수에게 기대하는 월등한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는한 한국태권도가 세계무대에서 설자리는 갈수록 좁아질 것으로 보



이번대회는 우리도 선수양성에
주력하지 않는한 언젠가는 종합우승을
내줄 수 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과, 보다 재미있는
태권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개혁이
필요함을 소중한 교훈으로 남겼다.



인다.

물론 재미있는 태권도란 현행의 경기를 아래에서는 요원한 것인지도 모른다. 돌려차기 몸통공격이나 뒤돌아차기 얼굴공격이나 꼭같이 1점을 취해야 누가 위험부담이 많은 공격을 감행하겠는가.

협회가 준비중인 차등점수제가 조만간 시행되면 보다 현란한 발기술과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대회서 항상 강점은 나타나기 마련이지만 이번대회서 이란이 보여준 경기력은 한국에 큰 위협이 됐다.

남자부에만 팀을 내보낸 이란은 8체급 가운데 6체급서 결승에 진출, 2체급을 석권하는 팔황상대할 기량을 보인 것이다.

이란은 태권도를 정책종목으로 적극 육성, 종주국에도 없는 국제대회를 매년 개최하면서 착실히 경기력을 쌓아온 당연한 결과였다. 그들과 겨뤘던 한국선수들은 선천적으로 강인한 그들의 체력에 당황하면서 항상 손에 땀을 쥐는 접전을 펼쳐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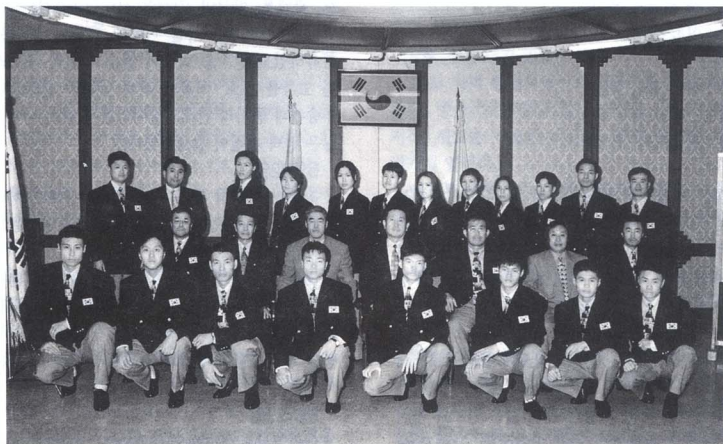
이밖에 역시 태권도를 정책종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대만과 역사가 오랜 베트남이 잠재적인 강국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대회는 우리도 선수양성에 주력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종합우승을 내줄 수 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과 보다 재미있는 태권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개혁이 필요함을 소중한 교훈으로 남겼다.

남자부, 멕시코에 이어 종합 2위로 대회 7연패 좌절 여자부는 대만, 스페인에 이어 종합 3위

한 규 인/한국대표선수단 감독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마라카나 체육관에서 개최된 96월드컵 태권도대회에서 한국 대표팀 남자부는 금 3, 은1개로 멕시코에 이어 종합 2위를 차지, 대회 7연패에 실패했다. 여자부는 금1, 은3개를 획득해 대만, 스페인에 이어 3위에 그쳐 중주국의 위상을 지키지 못했다. 여자부는 대만의 독무대라 할 만큼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 주며 금 4개를 차지, 한국을 월등히 앞섰다.



'96 월드컵대회 대표선수단

- ▲단장 : 황광철(경기도협회장)
- ▲남자부 감독 : 성재준(인천협회 부회장)
- ▲여자부 감독 : 한규인(기술심의회 기록분과위원장)
- ▲남자부코치 : 고봉수(전주시청 코치)
- ▲여자부코치 : 오재용(고양종교 코치)
- ▲남자부트레이너 : 한홍식(인천전문대코치)
- ▲여자부트레이너 : 김철호(상명대코치)

▲남자선수

- 핀급 : 김광호(풍생고3, 탈락)
- 플라이급 : 박희철(선인고3, 탈락)
- 밴텀급 : 정대영(한체대2, 금)
- 페더급 : 이두건(경희대2, 탈락)
- 라이트급 : 곽택용(한체대졸, 금)
- 웰터급 : 장종오(상무, 은)
- 미들급 : 김민우(동아대2, 금)
- 헤비급 : 박형래(상무, 탈락)

▲여자선수

핀급 : 박경은(리라공고1, 금)
 플라이급 : 윤송희(한체대1, 탈락)
 밴텀급 : 이선영(한체대1, 탈락)
 페더급 : 윤명숙(인천시청, 은)
 라이트급 : 강해은(상명대1, 은)
 웰터급 : 김은이(경희대4, 탈락)
 미들급 : 박선미(춘천시청, 탈락)
 헤비급 : 김윤경(상명대2, 은)

종합성적

▲남자부

1위 : 멕시코(금3, 은1)
 2위 : 한국(금3, 은1)
 3위 : 이집트(금1, 은2, 동1)

▲여자부

1위 : 대만(금4, 동2)
 2위 : 스페인(금1, 은3)
 3위 : 한국(금1, 은3)

브라질은 서울에서 비행시간만 24시간이 걸리는 먼나라로 면적은 우리나라(남·북)의 39배의 넓은 땅에 1억6천여만명이 살고 있으며 3년 동안 3700:1의 화폐개혁을 한 나라다. 국민소득은 약 2,600\$ 정도이나 현지에서 느끼는 생활수준은 이보다 높은 듯하다.

월드컵태권도대회가 거행된 리오데자네이로는 세계에서 꼽히는 해수욕장으로 6km의 고운 모래밭을 자랑하며 해변을 따라 조성된 길엔 넓은 인도와 자전거 전용 도로와 휴식공간 등이 이어졌다. 그리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거리가 반라(수영복이나 핫 팬티에 배꼽띠)의 복장으로 조깅(달리거나 자전거 타는)하는 모습은 여유롭기 한이 없었으며(우리나라와 비교하여) 각박한 모습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는 낙천적인 도시였다.

도착 첫 날(5월 20일)

5월 19일 밤 7시30분에 김포공항을 떠난 대표팀은 서울을 떠난지 27시간여만에 목적지인 리오 공항에 도착했다.

시차가 꼭 12시간이니까 비몽사몽간이란 표현이

어울리는 속에 김용민 회장(브라질 태권도협회) 및 교민회 동포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으며 세계의 3대 미항이라는 리오데자네이로에 위치한 렉스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짐 정리후 오후 5시 숙소 근처 군부대 체육관에 가서 1시간 30여분 운동을 하고 19시30분 저녁식사를 마친다음 밤 9시에 선수들을 취침시키고(익일 08시 기상 예정으로) 단장, 감독, 코치, 트레이너의 임원회의를 끝으로 도착 일정을 마쳤다.

5월 21일

10시간 이상 잠을 자서인지 선수들의 표정이 밝았다. 아침식사후 9시부터 10시30분까지 군부대 체육관에서 간단한 훈련을 하였다.

리오의 TV 방송국에서 국제대회 전적이 있는 장종오, 박택용, 박선미, 강해은 선수의 인터뷰 요청이 있었다. 이들은 인터뷰를 마치고 훈련에 20여분 늦게 합류하였고 선수중 박선미 선수가 왼쪽 종아리에 심한 통통을 호소, 처음엔 쥐가 났을줄 알았으나 병원 후송결과 종아리 인대파열이라는 진단이 나와 예기치 않은 전력 차질이 발생하였다.

5월22일

김용민 회장의 부인이 김치를 제공해 모처럼 선수들은 밝은 표정으로 식사를 마쳤고 훈련하는 모습도 생기를 찾은듯 했다.

오후에는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동반 심판원과 캐나다 한국사범들과 같이 예수공원과 해상공원을 관광하며 여독을 풀었다. 저녁에는 상파울의 이신화, 송병순 부분사범이 쌀밥과 김치를 제공해 맛있는 저녁식사를 할 수 있었다.

5월 23일

아침식사후 09:00~10:30까지 선수들은 운동을 마치고 코바카바나 해변을 거닐며 사진도 찍고 야자열매도 먹으며 오랫동안 한가한 시간을 가졌고 점심식사후 군부대 소극장에서 21개 참가국이 한자리에 모여 알젠틴의 핀급 12번을 출발로 대진추첨을 마쳤다.

경기일정은

5월24일 핀급 · 웰터급의 남녀경기 이후 개막식 행사

5월25일 밴텀 · 페더 · 라이트급 남녀경기

5월26일 플라이 · 미들 · 헤비급 남녀경기 및 폐막식 행사로 정해졌고 계체는 07:00~08:00까지 실시하기로 하는등 대표자회의를 마쳤다.

그리고 부상선수(박선미)는 호주와 스페인팀이 대
동한 의사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 호전되는 징조가
보여 다행스러웠다.

중주국 대표팀이 의사를 대동하지 않은 점은 치료
내내 부끄러움으로 남았다.

5월24일 경기 첫 날

스케줄에는 경기시작시간이 13:00로 되어있어 점
심을 급히 먹고 12시30분경 경기장에 도착했으나 경
기는 14:00가 넘어서야 시작되는 등 국제경기치고는
짜임새가 없음을 느끼게 했다. 14:05분에 러시아 대
스페인의 여자 핀급과 러시아 : 브라질 웰터급의 경기
로 경기가 시작됐다.

여자 핀급의 박경은(리라공고)은 크로아티아의
SANJA CATIPOVIC 선수를 맞아 1회전 탐색후 2
회전에 두번 몸통공격후 얼굴차기 1득점, 받아차기 1
득점을 뺏으며 승기를 잡아 3회 앞밀어차기로 1득점
3:0으로 가볍게 예선을 통과했다.

남자 핀급의 김광호(풍성고)는 미국의 동포선수인
DANIEL KIM을 맞아 신장의 열세를 극복하고 3회
전에서 점프뒷차기 두번을 성공, 역전시켰고 3회 중
료 직전 밀받아차기로 다시득점, 4:2로 역전승 했다.

여자 웰터급의 김은이(경희대)는 신장이 우세하나
경기전반에 소극적인 공격으로 독일 선수에게 2:0으
로 판정패했다.

김선수는 체중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경기전날까
지 3.5kg이 미달인 것을 경기당일 보충하는 놀라운
실력(?)을 보였으나 한 국가의 대표선수라면 체중관
리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자 웰터급의 장종오(상무)선수는 우승 유망주로
서 16강은 부진승으로 올라 8강에서 이탈리아의
DEMEO MARIO 선수를 맞아 1회전 경기주도권을
잡으며 선전, 2:1로 앞섰고 3회에서 돌려차기를 성공
시켜 3:1로 판정승했다.

여자 핀급의 박경은 선수는 준결에서 쿠바의
YAMILS DISZ선수를 맞아 1회전 밀고 들어간다 반
아차기로 실점을 당해 불안한 출발을 보였으나 우세
승으로 결승전에 올랐다.

웰터급 남자 장종오 선수는 독일선수를 맞아 격진
을 벌였다. 4:4 동점으로 2회전을 끝내 불안감을 남
겼으나 3회전 중반에 주먹공격후 돌려차기가 성공되
어 5:4로 어렵게 승리, 결승에 올랐다.

대회 첫날 우리 대표팀은 4명이 출전하여 2명이
결승에 올라간 것이었다.

웰터급 장종오 선수는 결승에서 대만의 CHING
FU YAD 선수를 맞아 3:4로 석패, 은메달에 머물고
말았다.

핀급의 박경은(리라공고)선수는 결승에서 스페인
의 AMELIA NEGRETE선수를 맞아 우세승으로 첫
금메달을 힘겹게 얻으며 경기를 마쳤다.

여자 웰터급 경기는 인상적이었다. 독일의
DROSIDOU MORFO선수는 준결승에서 오스트리
아 선수를 맞아 최선을 다해 화이팅 넘치는 경기로
관중의 박수를 받았다. 판정을 승리로 이끈후 상대편
코치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경기장 밖으로 나오며 일
자로 넘어져 들것에 들러나가는 최선을 다한 선수의
모습은 오히려 중주국선수들이 배워야 할 진정한 선
수의 자세였다고 본다.

5월 25일 경기 2일

24일 저녁 임원회에서 경기결과를 놓고 토론이 있
었다. 중주국선수답지 않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을
지적, 새로운 각오를 다졌고, 25일 새로운 기분으로
경기에 임했다.

여자부 밴텀급의 이선영(한체대)선수는 쿠바선수
를 맞아 1회에서 경기의 주도권을 잡으며 위세했으나
후속타가 없어 1:2로 판정패, 예선탈락 했다.

남자 페더급의 이두전은 예선에서 캐나다 선수를
맞아 1회 돌려차기로 선취득점하고 2회 돌려 차기로
얼굴 공격을 성공시키며 대회의 첫 KO승을 얻어 스
포트라이트를 받았으나 8강에서 브라질 선수를 맞아
1:5의 어이없이 판정패 당해 탈락했다.

남자 밴텀급의 정대영(한체대)선수는 이탈리아선
수를 맞아 8:0으로 가볍게 이기고 1차전 통과했다.
준결승에서는 10cm이상 키 큰 스페인 선수를 맞아 1
회전에 선취점을 빼앗겼으나 특유의 투지와 자신감으
로 점프뒷차기로 다운을 뺏고 2회전에서는 난이도 높
은 발차기로 상대를 위협하면서 돌려차기로 2득점을
올리며 2~3회전 7득점을 뺏아 8:5로 결승전에 올랐
다.

결승에서는 대만 선수를 맞아 신들린 사람처럼 공
격을 퍼부어 8:3으로 가볍게 물리치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남자 라이트급의 곽택용 선수도 준결승에서



머리하나만큼 키가 큰 미국선수를 맞아 뛰어 앞발 돌려차기로 얼굴공격을 하여 카운트를 끌어내는 등 난이도 높은 공격을 위협적으로 선보이며 안정되게 결승에 안착했다. 결승전에서도 신장이 10여센치가 큰 이집트선수를 맞아 내려찍기 등으로 기선을 잡으며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판정승, 두번째 금메달을 따냈다.

여자부 페더급의 윤명숙 선수와 라이트급의 강혜은 선수는 코치의 가슴을 조이며 결승까지 올랐으나 투지나 기량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은메달에 그쳤다.

5월26일 경기3일째

플라이·미들·헤비급의 3체급 경기가 진행되었다. 타도 한국의 분위기가 눈에 띌 정도로 심판의 판정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흘러갔다.

박희철 대 멕시코의 경기는 1회전에서 박선수의 득점은 인색하고 멕시코선수에게는 후한 점수가 나와 3회전까지 2:3으로 불리하게 진행됐고 3회 종료 전 만화를 하기 위해 맹공을 퍼 부었으나 점수를 주지 않았다. 판정이후 멕시코 선수가 정신을 잃어 들것에 들려 나가도록 맞았는데도 득점을 안쳐 석패하는 불이익을 당해 종합우승에 쐈기가 박히는 듯 했다.

남자 헤비급 박형래 선수도 홈팀 브라질을 만나 응원기세에 눌린듯 세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예선탈락했다. 미들급의 김민우 선수는 차분한 경기운영으로 세번째 대표팀에게 우승을 선사했고 여자부 플라이급의 윤송이 선수가 강팀 스페인 선수를 맞아 어렵게 예선을 통과했고 이어 대만선수를 맞아 석패해 8강에 머물렀다. 박선미는 부상으로 코트에 서는 것에 의미를 두었으며 헤비급 김윤경(상명대) 선수는 신장면에서도 우

수했고 예선을 부전승으로 올라 3번의 대전으로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으나 결승에서 강팀 대만선수를 맞아 체력의 열세인지 단발공격하고 멈추는 사이에만 5회의 공격을 당해 6:1로 완패했다.

남자부는 금 3·은 1개였는데, 동수의 메달을 확보한 멕시코가 헤비급 우승으로 중량우승 우선 규정에 의거 종합우승을 했고 우리는 준우승에 머물러야 했다. 여자부는 금 4 동 2개의 대만이 우승, 우리나라는 3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됨으로써 국제대회상 처음으로 남자부가 종합우승을 내놓는 진기록을 남기는 월드컵 대회가 되었다.

대회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점

첫째, 월드컵 대회는 WTF(세계연맹)에서 세계 150여개국의 가맹국 중에서 95년도 국제대회 경기실적 상위에 입상한 국가만을 초청하는 우수선수대회로 세계대회보다 규모만 작을뿐 실력은 대등하다는 것이 참가국들의 중론이었으므로 아시아선수권 대회보다 비중을 높이 두어야 하겠다.

둘째, '중주국인 한국을 이겨라'는 각국의 의지가 투합되어 실력외에 불공정한 판정으로라도 한국을 제치려는 의도들이 노골화 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경기를 주관한 각국 협회나 세계연맹에서는 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겠다.

셋째, 중주국 태권도 선수로서의 패기·투지 등을 강화할 수 있게 대표선수관리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넷째, 임원구성이 팀 출국 10여일 전후하여 결성되어 선수파악을 제대로 할 시간이 부족하였다.

다섯째, 선수파견 일정도 12시간의 시차극복이 선수컨디션에 중요변수이므로 25~6시간 비행기를 타야하는 브라질과 같은 먼거리의 파견경기는 5~6일의 여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기종료 후 2~3일간의 휴식시간을 가진후 귀국할 수 있도록 일정을 여유있게 잡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국가대표선수단은 어느 누가 책임자로 나가든 대표팀이므로 집행부의 독려와 관심이 선수단의 사기에 많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협회는 형평을 잃지 않는 행정을 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가능성도 무한했으나 문제도 많았던 태권도

이영만/경향신문 체육부 차장

종주국 태권도. 정부의 해외공관보다 더 많은 나라에 퍼져있는 국기. 해외 사범들이 힘들여 탑을 쌓아 올려 코리아의 위상을 드높임으로써 태권도의 기반은 요지부동.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으로써 태권도의 세계화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터. 이정도가 국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태권도에 대한 막연한 상식.

하지만 밖에서 직접 본 태권도는 생각보다 대단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탄탄하지 않았다. 반석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코리아」의 이름앞에 저절로 고개를 숙이는 각국의 태권도 선수들. 적어도 태권도라는 울타리안에서 만은 코리아는 신성불가침같은 존재였다. 20여년 공들여 쌓아온 모든 태권도인들의 노력덕분. 스승의 나라에 대한 존경심이 그들 파란눈의 이방인들을 머리숙이게 했다. 태권도의 위력이 이토록 대단한가. 그 모습이 처음인 사람으로선 그들과 어울릴 때마다 다시 한번 태권도의 위력을 새삼 절감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태권도」의 정체성은 향후의 태권도를 걱정하게 만들었다. 역사성이 결여된 태권도. 재미없는 태권도. 변화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태권도.

태권도는 한국의 국기. 하지만 코리아를 상징하는 것은 고작 태극표시 하나뿐. 반만년 한국의 역사를 안고 있지 않다. 우리가 한때 배웠던 「천지형」 「단군형」 「울곡형」 「화랑형」 등의 형이있더라면 태권도를 배우는 것은 곧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셈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태극 1, 2장 정도의 품새로는 기술만 배울 뿐이지 역사는 배울 수 없다. 태권도는 가르치지만 한국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 「비태권도인」으로서 몹시 안타까웠다. 세계화가 되면 뭘수록 안타까움은 더욱 심해질 것 같다. 왜 그것이 그리되었는지 굳이 알필요는 없다. 다만 지금이라도 한국의 역사, 문화를 안고 있는 극히 한국적이지만 세계적인 태권도가 되었으면 싶다.

경기로서의 태권도는 더욱 문제점이 많았다. 무도로서의 태권도도 아니고 스포츠로서의 태권도도 아니었다. 스포츠의 가장 큰 장점은 역전승부와 공격적인 요소. 하지만 태권도는 역전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가볍게 차도 1점이고 다운이 될 정도

로 강하게 차도 똑 같은 1점. 강자가 오히려 지고 힘이나 기술이 떨어져도 경기요령이 좋은 선수가 이길 수도 있는 비과학적인 스포츠. 복싱의 컴퓨터채점과 비슷한 것으로 태권도가 갈 길은 복싱이 아니라 레슬링처럼 기술의 종류를 구분, 크고 화려한 기술은 많은 점수를 주고 기본적인 기술은 적은 점수를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격자가 불리한 것도 문제였다.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실수를 노려 역공하는 선수가 유리하게끔 되어있다. 아직 초보자인 탓에 이런 지적이 옳은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문가조차 점수판을 보지 않으면 승패를 알 수 없을 정도이니 문제가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최소한 점수를 1~3점으로 분류, 화려한 기술의 소유자가 막판 궁지에 몰리다가도 한방에 역전시킬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닭싸움을 하듯 팔짝 팔짝 뛰다가 앞발 몇번 들면 이기는 태권도 보다는 돌려차기를 하고 먼저 공격하며 필멸 날아다니는 선수가 이기는 태권도라야 시드니 올림픽 그 이후도 살아남을 수 있다. 「돌면 지고 들면 진다」 태권도인들은 웃으며 그런말을 했지만 제 3자의 입장에서 볼때 그런말은 웃으며 할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하고 고치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이었다.

태권도는 또 누구를 위한 스포츠인지 알 수 없었다. 세계의 모든 스포츠가 갈수록 관중위주로 변모하고 있다. 하다못해 기록경기인 양궁도 보는 즐거움을 위해 토너먼트제로 바꾸었다. 그러나 태권도는 거의 관중을 무시하고 있었다. 주심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기껏 주의나 경고를 위해서만 모션을 취할 뿐이다. 최소한 레슬링의 경우처럼 어느 선수가 정타를 기록했으면 손으로 표시를 해주어야 할 것 같다. 그래야만 먼곳에서 보더라도 어떤 선수가 이기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점수판마저 14인치 모니터를 쓰고 있으니 동시에 3~4경기가 벌어지는 눈앞의 경기 결과를 알기위해선 관중들은 수없이 체육관을 배회해야만 한다. 주심은 가만있고 점수판은 보이지 않고 어떤것이 점수인지는 알 수 없고, 태권도가

관중동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인기 스포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발차기도 점수를 주고 정권공격에

“

주심은 가만있고 점수판은 보이지 않고

어떤것이 점수인지는 알 수 없고,

태권도가 관중동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인기 스포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

도 점수를 주는 태권도, 보는 격투기에선 가장 박력 있고 그러기에 발전성은 충분하다. 문제는 다른아닌 물. 판정잡음을 없애기 위한 심판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 흔히 사형집행을 할 경우 모든 사수에게 다 총알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어느 누가 실제로 「사람을 죽였는가」를 알 수 없도록 한것. 태권도는 1주심 4부심제. 주심은 경기운영만하고 부심은 채점을 했다. 모르긴 몰라도 4부심제를 채택, 2명이상이 점수를 주면 득점이 되도록 한것은 승부 조작을 줄이기 위한 것일터. 하지만 이것은 결국 아무도 모르게 점수조작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준 것에 불과했다. 그러니 차라리 주심에게 권한을 주고 부심의 숫자를 줄여 심판진에게 경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것으로 보였다.

직접 옆에서 본 태권도, 가능성도 무한했으나 문제도 많았다. 「태권도」가 「코리아」이기에 더욱 발전해야 하는 우리의 태권도. 그러기 위해선 세계연맹이 움직여야 하고 태권도협회도 뛰어야 한다. 아직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미 각국에서 꼬리를 밝힌 태권도. 올림픽때면 더욱 더할 것이다.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일부러 저주는 시기는 지났다. 더 이상 지지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고 범세계적인 스포츠화를 위해 모든 태권도인이 변해야 할 때라고 본다. 그 맨앞에 종주국 대한태권도협회와 세계연맹이 서야 하며 앞줄이 변해야 뒷줄도 변한다. 변하지 않으면 결국 추월당하고 자칫 「죽 썩어서 개주는 격」이 될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태권도가 도약을 해야 할 시점이고 그러자면 먼저 사람이 변해야 한다.

1996년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대회

한 규 인/기술심의회 기록본과 위원장

올해의 국가대표 최종선발대회가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KBS 88체육관에서 뜨거운 열전속 에 치루어졌다.

이번 대회에는 95년도 국가대표 체급별 1, 2위자, 95년도 우수선수선발대회 체급별 1, 2위자, 96년도 국가대표 예선 선발대회 체급별 1, 2, 3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남녀 8체급 토너먼트 개인전 3분3회전, 중간휴식 1분의 경기방식으로 대표선수 선발전이 펼쳐졌다.

이번 대회 체급별 1위자는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되는 제12회 아시아 태권도선수권대회 파견 남녀 체급별 2위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되는 96년도 월드컵태권도대회에 각각 출전한다.

한편 이번 선발전에서는 세계태권도계를 평정한 그랜드슬래머인 김재경(상무)이 부상으로 경기를 기권함으로써 탈락하는 이변을 낳았으며 11, 12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편급 금메달리스트인 진승태가 준결승전에서 풍생고 3년생인 김광호에게 판정패하며 탈락하는 등 남자부경기에서는 대폭적인 대표선수 교체가 있었다. 여자부에서는 95년도 국가대표로 여자세계선수권대회 메달리스트 5명이 국가대표 1위로 다시 선발되어 올해 아시아선수권 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되었다.

대표자회의

4월 12일 오후 2시 대한체육회 소강당에서 30여 명의 각팀 감독 및 코치가 참석한 가운데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1시

간 동안 진행되던 계체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하여 채택되었고 경기는 10시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또한 선수대기 중 호구 착용시 몸에 밀착하도록 경기부 임원들이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요구, 경기부에서 시행기로 했다.

한편 경기장내에 민원건의함을 비치, 태권도 발전을 위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경기장 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했다.

경기 내용

우리나라를 대표해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월드컵 태권도대회에 출전할 대표선수를 선발함에 따라 선수들의 태극마크를 향한 열기가 고조되었다.

경기장내에는 심판원과 경기부 요원들에게 경기복을 착용토록 함으로써 경기장내 질서를 유지토록 하였다.

이날 경기에서는 뛰어난 선수들이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기술이 발휘되어 어느 대회보다도 많은 득점이 나왔다.

남자부 경기 결과 한체대, 동아대, 용인대가 각 2체급씩 대표1위자를 배출하였고 춘천시청과 경희대가 각1체급씩의 대표1위자를 배출하였다.

남자부 편급 : 편급 1차전 경기에서 신에 김광호의 활약이 주목되었다. 풍생고 3년생인 김광호는 순발력과 날렵한 뒷차기 기술로 '95국가대표 2위자인 지진성을 9:5로 누르고 준결에 진출했다. 준결에서는 95년도 국가대표 1위자이자 11회와 12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연패, 94년도 히로시마 아시아게임

플라이급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노련한 플레이어 진승태를 누르고 진출해 신예 김광호에 대한 관심으로 핀급 결승전은 모든 사람들의 주목속에 숨가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용인대 김병태를 맞이한 김광호는 95년도 각종 대회에서 1위로 두각을 나타낸 김병태 선수에게 경기운영면에서 한수 아래였다. 김병태 선수는 1회에 몸통, 얼굴공격을 펼치며 카운트까지 갔고 2회전에서는 180도 회전 옆차기 등 다양한 공격을 구사하며 6:3 판정승을 거두고 김광호 돌동을 잠재웠다.

김광호는 비록 대표2위에 머물렀으나 핀급 최강의 진승태를 누름으로써 태권도 스타로 부각되었다.

남자부 플라이급 : 95년도 국가대표 1위로 일약 스타로 부각된 고고생 박희철(선인고) 선수는 강호 한체대 고동환 선수를 제치고 결승에 올랐으나 5:8로 판정패했다. 이로써 용인대는 핀급의 김병태에 이어 플라이급 국가대표 1위자를 배출하는 막강한 실력을 보여주었다.

남자부 밴텀급 : 95년도 국가대표 2위자인 김현용(영천시청)은 준결승전에서 95년도 1위자인 장대순(상무)을 4:1로 이기고 결승 진출해 한체대의 정대영을 누르고 1위로 선발되었다.

남자부 페더급 : 유용진(동아대)선수와 이두건(경희대) 선수의 경기는 두선수 모두 기량이 돋보이고 화이팅 넘친 경기를 펼친 가운데 9:7판정승으로 동아대의 유용진이 1위로 선발되었다.

남자부 라이트급 : 경희대의 심기선과 95년도 국가대표 1위자인 박택용(상무)이 결승에서 만났다. 183cm의 심기선 선수는 174cm의 박택용 선수를 맞아 신장면에서 우위에 섰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4:4 동점을 이루었다. 판정 결과 심기선 선수에게 우세승이 선언되었다.

남자부 웰터급 : 장신의 김경훈(196cm)이 유연한 동작으로 기량을 펼치며 상무의 장종오(185cm)를 맞아 6:3으로 판정승

남자부 미들급 : 95년도 국가대표 1위자인 한체대의 이동완은 동아대의 김민우와 결승에서 만나 받아차기, 뛰어 두번차기 등의 실력을 발휘하며 5:3판정승을 거두고 승리.

남자부 헤비급 : 헤비급은 8명의 출전선수 중 4명이 상무 소속. 이중 김계영이 부상으로 춘천시청의

김광수에게 기권하며 대표선수에서 탈락하는 이변을 낳았다. 문대성이 박형래(상무)와 겨루어 총 7:4판정승으로 대표1위에 올랐다.

여자부 핀급 : 여자부 핀급 결승전은 리라공고 1학년인 박경은과 한체대 3학년인 양소희의 대결로 좁혀졌다. 신장면에서 우위인 박경은은 긴발을 이용한 돌려차기 등으로 득점을 올리고 노련한 양소희는 주먹공격, 받아차기 공격으로 득점을 올렸다. 95년도 국가대표1위자로 제5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 핀급 은메달리스트인 양소희는 뒷차기, 빠른발 앞차기로 1회 1득점, 2회 2득점, 3회 3득점 등 총 6점 올리며 우승.

여자 플라이급 : 경희대의 김보인 선수와 한체대의 윤송희 선수가 결승에 진출. 95년도 국가대표2위였던 김보인은 1회 얼굴돌려차기 1득점으로 기선을 잡으며 2회에 뒷차기, 3회에 돌려차기 등으로 득점올리며 5:2 판정승, 1위를 차지했다.

여자 밴텀급 : 경희대의 원선진과 한체대의 이선영이 결승에 진출, 3:3 동점을 이루었으나 경고에 의해 원선진이 -1점 이선영이 -2점을 기록하며 총 2:1로 원선진이 대표1위로 선발되며 체면 유지.

여자 페더급 : 인천시청의 윤명숙 선수가 경희대의 이지은과 한체대의 진용순을 차례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 이승민(춘천시청)은 인천시청의 김성숙, 리라공고의 정미나를 차례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의 이승민은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1회 3:1로 앞선 가운데 2, 3회전에서 과감한 공격으로 6:3판정승을 거두고 올해 또다시 국가대표 1위의 자리를 지켰다.

여자 라이트급 : 고양중고 1학년인 이선희는 춘천시청의 박정희를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 95년도 국가대표 1위자로 세계선수권대회 1위를 차지한바 있는 박경숙을 제치는 이변을 낳으며 결승에 진출.

94년도 라이트급 1위자로 각종 국내대회를 석권하며 라이트급 강자로 떠오른 강해은(상명대)선수도 리라공고의 김유진, 용인대 양춘희 선수를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선희와 강해은 선수는 체격이 비슷한데다가 경기스타일도 비슷했는데 1회 이선희가 빠른 공격으로 돌려차기, 받아차기 공격을 성공시키고 2회 돌려차기, 발돋움찍기 등의 득점. 강해은도 2회 이단 돌려차기 등으로 공격으로 2득점 올리는 파이팅 넘친 경기

가 펼쳐지는 가운데 총 7:5로 이선희가 판정승 거둬으로써 고교생 국가대표1위자가 선발되었다.

여자 웰터급 : 95년도 국가대표1위자로 제5회 여자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조항미는 노련한 경기운영과 자신감 넘치는 공격으로 경기를 주도해 나가며 경희대의 김은이를 맞아 3:2 판정승을 거두었다.

여자 미들급 : 미들급 결승에는 경희대의 박은선과 춘천시청의 박선미가 결승에 진출해 막상막하의 경기를 치루었다.

1회 박선미가 돌려차기, 받아차기로 앞서갔으나 2회 박은선이 오른발 돌려차기로 1점 만회, 3회 받아차기, 돌려차기로 2득점 등을 올리며 3:3 동점에 이르렀으나 박은선이 우세판정 받으며 1위.

여자 헤비급 : 경희대 정명숙 선수와 상명대 김은경 선수의 결승전 경기. 정명숙은 1회와 2회전에 돌려차기로 득점을 올렸고 3회 뒷차기, 받아차기, 회전 돌려차기 등으로 3득점을 올리며 5:1로 압승.

대회를 마치며

한국을 대표할 국가대표선발전이 선수들의 뜨거운 각축전으로 좁혀져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다. 그러나 태권도 관계자나 선수들에게는 관심이 큰 대회인 반면에 경기장은 관중없는 쓸쓸한 분위기라 태권도가 비인기 종목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번 대회가 KBS-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방송되면서 태권도 홍보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좀더 내실있는 태권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태권도가 생방송으로 중계방송되었다고 하지만 당일 신문물을 통해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기 전에는 그날 태권도가 중계방송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도장이 대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태권도협회는 시도 지부 등을 통해 각 체육관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국가대표선발전은 최고의 기량이 선보이는 대회인 만큼 다음해 대회부터라도 주말을 이용해 경기를 치루어 대회장에서 가까운 도장의 수련생들이라도 참관해 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경기규칙의 문제는 누차 강조되는 이야기이다. 이

번 대회의 경우 공격의 강도가 70% 이상에서 50% 이상이면 득점으로 인정하여 다득점이 나왔고 또 주먹공격도 득점을 주어 많은 득점이 나왔다.

그러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기술발휘는 단순하기 짝이 없어서 태권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앞돌려차기가 태권도경기시 사용하는 발기술의 전부인양 인식할 수 밖에 없을 정도였다. 국가대표를 많이 배출하는 학교의 몇몇 지도자에게 왜 태권도 경기에서 돌려차기로 몸통을 공격하느냐고 물으면 대답 또한 한결같았다. 뒷차기, 뒤돌려차기, 얼굴공격 등을 하면 위험부담이 클 뿐더러 몸통을 차도 1득점, 얼굴을 차도 1득점인데 왜 위험하게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사용하느냐라는 것이었다.

즉, 경기 지도자들은 차등 점수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적어도 얼굴을 발로 공격하면 2득점, 앞돌려차기 외에 뒷차기, 뒤돌려차기(뒤후리기), 360도 회전 앞돌려차기 등의 공격에 의한 득점은 2득점으로 인정하여 역전드라마가 이루어져야 경기가 재미있고 태권도의 여러가지 발공격 기술이 발전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경기에서 특히 말썽의 소지가 많은 것은 심판 판정의 문제이다. 심판원의 자세와 공평정대한 판결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객관적으로 4~5개 임이 관중과 심판의 판정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평가이다. 총 112게임 중에서 몇게임이 판정에 이의가 있었다고 심판원을 모두 잘못 판정하였다고 몰아붙여서는 안될 일이지만 언제나 공평정대한 심판으로 잡음이 없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경기장에서는 선수 제일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제경기에서는 코치가 선수보호통을 들고 입장하고 퇴장을 하며 선수를 최대한 보호한다. 국내 경기장의 모습은 경기를 마치고 숨이 턱에 차도록 지친 선수가 양동리와 헤드기어를 들고 퇴장을 하는 모습이 대부분이다.

물론 경기 출전에 앞서 선수를 지도하고 훈련시킬 때는 엄격한 지도자로서 선수를 지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경기장에서 만큼은 선수가 최대한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1996년도 전국여자 개인 선수권 대회

신 충 현/기술심의회 기록분과 부위원장

녹음이 질어가는 화창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1996년 5월 9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동계훈련을 통하여 갈고닦은 실력을 뽐낼수 있는 태권 남자들의 기합소리와 함께 전국 여자개인선수권대회가 열렸다.

대학부에서는 성신여자대학교만이 참가한 반면 고등부에서는 리라공고가 15명의 선수를 참가시키는등 27개 고등학교선수들이 참가하였으며 아직 어리광을 피워야할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찬 모습의 중등부에서도 4개교가 참가하여 총 149명의 선수들이 2일간 열전에 들어갔다.

체급별 결승전 경기 내용을 보면

▲핀급 : 정하나 <인천북공고>선수는 공격은 많았으나 찬스를 잡지 못하고 9:2로 패하며 우승을 박정희<김제북고>에게 넘겨주었다.

▲플라이급 : 이진영<은광여고>선수는 뛰어난 순발력으로 한발주며 돌려받아차기와 좌우를 돌며 돌려차기 등 일방적인 공격으로 윤희호<문산중고>를 6:0으로 우승하였다.

▲밴텀급 : 윤송희<당곡중>선수가 빠른발 돌려차기로 뒤차기 공격등 중학생 답지않은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이금애<시온고>를 6:3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페더급 : 대학언니들을 물리치고 올라온 선수답게 김유진 선수의 뒷차기가 돋보인 경기로 3:2로 김시정<송곡여중>을 누르고 우승하였다.

▲라이트급 : 김시정 <송곡고>선수와 신동선<성신여대> 선수의 결승전. 1회전부터 득점을 주고 받으며 3회전까지 판정을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재미있는 게임을 연출하였으나 3회 들어 체력이 떨어진 신동선

선수가 감점을 받아 경기는 8:7로 김시정 선수의 승리로 끝이났다.

▲웰터급 : 김미영<문상중고>선수와 강혜진 <성신여대>선수의 결승전은 언니의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승부가 났다. 김미영 선수는 들어찍기 및 돌려차기, 많은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3회전 동안 득점은 1점에 그치고 강혜진 선수는 찬스가 있을 때마다 득점으로 연결하여 5:1로 승리하였다.

▲미들급 : 이옥미<송곡고>와 박은희<은광여고>선수는 관중의 손에 땀을 쥐게하는 빅게임을 연출하였다.

이옥미 선수가 최선을 다하였으나 박은희 선수가 7:6으로 승리를 하였다.

▲헤비급 : 신장과 체력이 우수한 권지희<리라공고>선수가 근소한 점수차인 8:7로 유승아<경성여실고>를 누르고 승리를 안았다.

2일간의 여자 개인 선수권대회는 여성시합 답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루어 졌다. 이번 대회를 통해 여자 선수들 대부분이 실력면에서는 향상된 면모를 보여주었으나 체력면에서는 많은 보강이 있어야겠다고 본다. 특히 우리선수들이 기초체력을 중심으로 경기력을 길러야만이 국제대회에 파견되었을때 우수한 신장을 갖고 있는 외국선수들을 상대해 기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여자개인선수권대회가 고등학교 선수들의 등용문으로서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대학 및 실업팀에서 불참함으로써 여자최강자를 뽑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경기력 향상을 꾀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몸 만들기(Muscle conditioning)란?

김상규/충북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

스포츠인들이 간혹 듣게되는 말 가운데 “몸 만들기”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이 몸 만들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이고 실제로 한 개인이 건강하게, 또한 스포츠와 운동을 즐기며 행복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매우 가까이 알고 익혀야 하는 단어이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몸 만들기라는 말은 흔히 영어인 “muscle conditioning”을 우리말로 쉽게 번역한 말이다. 다시 말하면 근육의 최적화 상태를 유지하여 최고의 운동능력을 가지도록 훈련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간혹 스포츠 기사나 잡지등에서 프로 선수들이 손상을 입은후 열심히 재활훈련을 받으며 몸을 만들고 있다. 선동열 선수가 지금 몸을 약 60% 만들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몸 만들기란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 모든 운동선수에게 공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와같은 몸 만들기란 그림과 같이 (1)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 (2) 근육의 근력, 지구력, 파워 (3) 심폐기능 강화 (4) 근육의 교육과 재교육, (5) 고유위치감각 훈련과 스포츠 기술을 훈련하는 과정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유연성

근육은 우리몸의 약 40%에 해당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에 속하고 그 관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우선 모든 스포츠의 기본이 유연성을 갖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관절은 상용을 하지 않거나 석고등으로 고정을 하면 빠른 속도로 굳어버리고 근육의 탄력적인 성격으로 점점 더 관절의 가동범위가 줄어들게되는데 이는 모든 큰 골격계의 문제들과 연결된다. 반면에 이처럼 유연성을 잘 유지하는 것은 근골격질환을 예방할 뿐 아니라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이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둘째로 근력, 근 지구력 및 근육의 파워

근육은 과부하를 주면서 훈련하면 근 섬유의 굵기가 커지고 숫자가 증가하여 생산하는 힘이 증가되고 또한 훈련 방법에 따라 지구력을 키울 수 있게된다. 고도의 힘을 필요로 하거나 지구력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가 많기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여러 가지 훈련 등을 통하여 근력을 키우는 것도 몸 만들기의 중요한 과정이다. 일반인들에게도 중요한 것으로 근육이 잘 발달되면 스테미너가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차와 비교하면 배기량이 큰 엔진을 가진 것과 같이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것과 같다. 모든 사람들이

셋째로

근력 강화와 지구력 강화를 통하여 배기량을 올리는 노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순간적인 폭발력을 키워 가공할 만한 점프력이나 경기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심폐기능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

근골격이 좋아도 심폐기능이 강화되어야 경쟁적인 스포츠를 할 수 있게 된다. 쉽게 숨이 차거나 혈압이 오르고 맥박의 상승이 급박하면 강한 운동을 오래동안 지속할 수 없는데 이는 심폐기능강화를 통하여 훈련 할 수 있다. 심폐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적당한 강도의 에어로빅성 운동을 한 번에 30분 이상씩 한 주에 3~4회정도의 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많은 운동량이다. 현대인들이 이런 정도의 운동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는 이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폐기능이 서서히 감소해가고 늙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기 축구나 베드민턴 등과 같은 동호회를 통하여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삶을 사는 것도 행복의 비결이 될 수 있다.

넷째로 근육의 교육 및 재교육이 있다.

이는 의학적인 전문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모든 운동은 훈련되어진 것을 활용하는 것이지 그때 그때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걷는 운동은 반사적이다.

그래서 군대가 행군을 하면서도 조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스포츠 활동의 모든 동작이 훈련되어진 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손상 등의 원인으로 오래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다시 재교육을 해야 하고 또한 잘못된 동작은 고쳐서 다시 교육을 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다섯째로 고유위치 감각훈련과 스포츠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기능적인 운동이 가능해지면 점차로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전문 스포츠 기술을 익혀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확한 반복이 필요하다. 원칙이 필요하다. 또한 실전에 가까운 동작을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태권도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기술이 요구되는데 또한 개인에 따라 장기가 있기 마련이다. 이처럼 특수성의 원리를 가지고 감각과, 관절의 감각, 위치, 운동 속도 감각, 청각 등의 복합적인 감각과 일치된 훈련을 통하여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몸만들기의 마지막 과정이다.

이처럼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훈련하여 몸을 만든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스포츠 의학의 중요한 수단이고 재활과정이나 선수들의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된다. 그러므로 교육자들은 물론 운동선수나 일반인들도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의학적 상식이다.



제6과

태권도의 극치 <겨루기 I>

겨루기의 기초이론 및 원리

김영선/대한태권도협회 국제분과 부위원장

겨루기에 관한 내용을 알아봅시다.

겨루기는 태권도 기술의 최종 단계이며 겨루기를 통해 태권도 기술은 비로소 완성된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겨루기의 뜻은 말 그대로 "실제 상대와 맞서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수련 체계"입니다. '겨루기'란 말은 상대 없이 혼자서 하는 '폼새' 또는 나무, 돌 등 사물을 대상으로 하여 수련하는 '격파'나 '단련'과 상대적인 뜻으로 사용됩니다. 즉 태권도의 공방 기술을 사용하여 실제 상대와 맞붙어 차고 치고 하면서 실력을 견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련(對練), 견주기, 맞붙기 등도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원래 무술에서는 겨루기란 생사를 걸고 상대와 싸우는 위험하고 치열한 격투입니다. 몇몇 다른 무술은 그 위험성 때문에 아예 겨루기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반면 태권도는 안전성을 보완한 겨루기를 통해 특기인 발차기를 충분히 숙달시킬 뿐더러 기술의 완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겨루기는 "태권도 기술의 극치"로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여 겨루기에 관한 근본적 문제를 종합적이고 깊이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겨루기가 격투기와 다른 점

태권도 겨루기는 무제한 싸움과는 그 양상이나 철학적 기반이 사뭇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태권도 겨루기는 상대와 실제 격투를 하지만 규칙이나 조

건이 제한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스포츠이자 경기입니다. 그와는 달리 실제 격투 상황은 그야말로 예측을 불허하는 무차별 싸움입니다. 상대가 두, 세 사람이 패를 지어 공격해 올 수도 있고 흉기를 들고 위협해 올 수도 있습니다. 버스가 전철간 같이 비좁은 공간이나 주변에 기물이 많은 장소에서도 예기치 않은 폭력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래사장 같이 바닥이 푹신하거나 미끄러운 곳에서도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태권도에서 하는 통상의 겨루기는 정해진 공방(攻防) 규칙과 장소 등의 조건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1대 1의 겨루기에 준하며 기술 사용도 규정된 사항만을 따라야 합니다. 발과 주먹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칠 수도 없습니다. 발로 허리 아래 부분을 찰 수도 없으며 상대를 잡아 넘어뜨리거나 넘어진 상대를 찰 수도 없습니다. 무릎으로 쳐서 상대를 다치게 하면 격투적 관점에서는 성공적이지만 태권도 겨루기에서는 사범님에게 꾸중을 들을 만한 반칙이 됩니다. 겨루기는 반드시 안전 보호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주변에 벽같은 장애물이 없는 넓은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바닥조차 미끄럽지 않고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갖춰져야 합니다. 넓적하고 적당한 장소에서 서로가 동일한 조건에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정당당한 대결을 벌이는 것이 겨루기입니다.

사실 태권도 겨루기 또한 상대와 치고 차는 공방을 하게 되므로 어느 정도의 폭력성이 내포되어 있긴 합니다만 격투와는 달리 상대방에 대한 이해(理解)와



국제 대회에서의 겨루기 경기 장면 : 태권도 겨루기는 제한된 실전 격투입니다. 동등한 시합 조건, 시합 복장, 사용 기술 내용, 공격 방법, 판정 방법 등이 경기 규정에 의해 상세히 지정되어 있습니다. 겨루기에는 규칙을 지키면서 최선을 대해 싸우는 스포츠맨십과 태권도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철학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상대에 대한 예의범절이나 감정의 조절, 인내심 등의 마음가짐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겨루기의 궁극적 목적은 태권도 정신이나 페어플레이(fair-play)의 스포츠맨십 철학을 바탕으로 건전한 인격을 닦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달리 격투는 부상은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는 위기 상황에서 오로지 상대를 물리쳐야만 하는 전투(戰鬪)와도 같은 것입니다. 싸움에도 '도(道, 道)'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매마르고 험악한 인간의 추한 감정만이 드러나게 될 뿐입니다.

격투 기술로서의 태권도 겨루기

기술적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실전 격투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와 견해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수련자의 대다수가 태권도를 하는 이유는 실로 다양합니다. 그저 재미가 있어서 태권도를 하는 가하면, 건강과 체력 단련 운동으로서, 또는 나아가 정신 수양과 인격 함양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위급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호신술로도 쓸모가 있기 때문이라는 등등 각 양각색의 목적에 따라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 순전히 실전 격투만을 위해서 하는 수련자는 아주 적은 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태권도 실력을 활용해서라도 넘어가야 할 위기 상황에 놓일 경우를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생명과 전

산을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을 맞게 된다면 태권도 유단자라면 최소한의 대응 방법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겠지요. 태권도를 비롯한 여러 무술들은 폭력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서 물리적 대응 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권도 겨루기는 무제한 실전 격투에 얼마만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 사실 태권도는 제한된 공방 기법의 겨루기를 통해 격투 상황을 체험하고 대처하도록 합니다. 수련자는 겨루기를 통해 상대를 직접 치고 차보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방부터 맞아 보는 등 격렬한 몸싸움 속에서 승부 근성과 투지(鬪志)와 심신의 강인함을 닦는 훈련을 쌓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록 제한된 기술에 국한되긴 하지만 상대와의 실전 격투의 상당 부분을 익히게 됩니다. 돌려차기, 뒤차기, 내려차기, 명치(몸통)지르기 등은 제한된 겨루기 기술에 속하긴 하지만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위력을 지닙니다. 하지만 사람 수가 많거나 강한 상대를 만나면 태권도 룰에 국한된 공방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태권도의 실전적 활용성을 보다 넓히기 위해 기본동작과 품세에서 나오는 주먹, 손날, 팔굽, 무릎 등의 공격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겨루기 기술의 틀 속에서 벗어나 호신겨루기(護身-)와 같은 격투 상황을 염두에 둔 별도의 훈련이 행해져야 합니다. 공격 목표도 상대에게 손상을 입히기 쉬운 급소에 큰 힘을 집중시키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겨루기에서 뒤차기 공격이 성공되는 순간 : 겨루기에서 발치기로는 몸통과 얼굴 부위에 어떠한 공격이든 가능합니다. 그 중 뒤차기는 실전 격투에서도 상당히 위협적인 공격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이러한 태권도적 격투 능력은 오랜 단련과 경험, 정신력(판단력, 대담성, 승부근성) 등 세 요소가 합치되어야 지닐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이어질 <태권도교실-호신술편>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겨루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

태권도에서 겨루기를 강조하는 것은 수련 목표의 성취, 태권도의 저변 확대와 보급 등 여러 가지 실용적 이득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함께 어울려 힘 겨루기 경연을 즐기는 우리 민족의 무예적 정서와 활달한 민족 기상의 전통으로부터 유래된 것이기도 합니다. 겨루기를 통해 차기 등 공방 기술의 활용성을 익히고 실전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겨루기는 신체 전신을 골고루 발달시킬 뿐 아니라 유연성, 순발력, 민첩성, 지구력 등 전반적 체력 요소를 쌓는 합리적 체육 운동 종목으로서 인간의 활동적인 에너지를 맘껏 분출하는 기회를 가지게 합니다. 태권도 특유의 경쾌한 몸동작과 발놀림을 살린 겨루기 경기는 국제 무술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고 마침내 세계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뽑혀 유사 이래 한 민족 최대의 경사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겨루기 위주의 수련 체제로 인한 부작용도

생겨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나 실력에 대한 의존성, 겨루기로 인한 부상, 지나친 승부욕, 겨루기 경기 과열 현상 등이 크게 부각되면서 인간의 내면성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쨌든 겨루기 또한 수련자의 침착성과 마음의 조절, 정신력 등을 닦는 훌륭한 소재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련자가 올바르게 군센 인간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태권도의 역할이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호신겨루기, 품새, 격파 등 태권도의 전체 종목이 조화롭게 합치됨으로써 호신적 역량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겨루기 경기 규칙의 개선과 기술 개발도 꾸준히 연구되어 태권도가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박진감있는 무예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태권도 겨루기의 특징

태권도 겨루기의 규칙이나 시합 방식은 카라테나 중국 무예 등 다른 무술의 겨루기와는 현저히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태권도 겨루기의 근본 취지는 발기술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되 공격 부위에 안전보호대를 차고 완전한 타격을 가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공격력의 핵심은 둔탁한 힘 위주보다는 빠르고 날카롭고 섬세한 공격 기법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에 대해 막는 동작을 취하지 않고 바로 반격, 역습을 가하는 기법과 몸 방향을 바



고구려 고분벽화 무용총에 나타난 겨루기 장면 : 겨루기 경기 문화는 한반도에 오래 전부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2,000 여년 전 이 땅의 고구려 무사(武士) 들은 주먹과 발길질로 기력을 겨루며 무예를 연마하였습니다. 오늘날 태권도 겨루기의 세계적 도약은 우리 민족의 활달한 민족 기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겨루기 경기의 한 장면 : 겨루기 경기에서 선수들이 구사하는 발차기의 속도는 차는 순간을 알아 보지 못할 정도로 빠릅니다. 점점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누가 공격을 성공시켰는지조차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꾸면서 연속적인 공격을 펼치는 연결차기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차기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번갯불과 같아서 눈을 크게 떠야 볼 수 있을 정도로 빠른 흐름의 속도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다치게 하는 거친 공격 행위를 못하게 함으로써 양반이나 신사(紳士)풍의 격투 무예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경쾌한 발딛기(발놀림, 스텝)는 상대의 공격을 피하는 데 필수적이며 차기의 성공률을 높여줍니다. 태권도 겨루기는 수련자의 부상의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면서 다이내믹한 독특한 격투기로서 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겨루기의 종류

태권도에서 겨루기라고 하면 겨루기 경기 규칙에 준해서 격투하는 방법을 말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수련 목적과 연습 방식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겨루기가 경기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호신을 위한 것인가에 하는 구체적인 목표에 따라 그 수련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 겨루기(경기겨루기)처럼 규칙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겨루는 방식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서로가 미리 동작을 짜서 맞춰 연습하는 맞춰겨루기 형식이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련 목표에 따라

① 호신겨루기 : 실제로 생길 수 있는 호신 격투 상황에 대비한 겨루기 기술 체계이며, 태권도 시범에서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호신겨루기는 다양한 호신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하는 기법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한번겨루기, 세번겨루기, 앉아겨루기, 대흥기(칼 등) 겨루기, 다수 상대 겨루기 등의 세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신 격투를 위한 무제한 자유 겨루기는 실전과 같은 연습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격과 방어 방법을 실제 격투 상황에 짜맞추어 구성한 맞춰(약속) 겨루기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② 경기겨루기 : 현행 겨루기 경기 규칙에 따라 각종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시합을 하는 겨루기. 통상 겨루기라고 하면 경기겨루기를 말합니다.

2. 수련 방식에 따라

① 자유겨루기 : 서로 자신의 기량대로 자유롭게 공방하는 겨루기. 일정한 겨루기 규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경기겨루기가 바로 자유겨루기 형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② 맞춰겨루기 : 공격과 반격을 미리 정해서 연습하는 겨루기. 호신겨루기에서 주로 행해지지만 경기겨루기의 연습 과정에서도 흔히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정해놓고 받아차기로 응수하는 방법을



호신겨루기 연습 장면 : 호신겨루기는 실전에 대비한 기술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번겨루기, 세번겨루기, 다수 상대겨루기, 대흥기겨루기 등 여러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호신겨루기는 수련의 위험성 때문에 수련자 서로가 사전에 공방 기술 내용을 미리 짜놓고 하는 맞춰겨루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려차기 공격에 대해 돌려차기로 되받아 차는 겨루기 기술 : 겨루기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긴 하지만 사전에 아무런 약속없이 상대와 공방하면서 자신의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자유겨루기입니다. 맞춰겨루기 형식의 호신겨루기와 자유겨루기 형식의 경기겨루기 중 어떤 것이 실전에 더 유용한 훈련 방법 인가에 대해 논란이 분분합니다.

익히는 훈련 단계에서 유용합니다.

3. 시범겨루기

시범의 목적에서 행해지는 겨루기를 말합니다. 호신이나 경기 겨루기 등 모두다 시범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주로 맞춰겨루기로 이루어집니다.

겨루기의 기술

태권도 겨루기는 갖가지 발차기와 주먹치르기를 이용해서 목표 부위를 공격하는 기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겨루기에서는 다음 세부적인 기술들이 활용됩니다.

① 발차기 : 태권도의 특징이며 주된 공격 수단입니다. 돌려차기류, 뒤틀차기, 내려차기 (찍어차기), (앞, 뒤) 후려차기 등이 쓰입니다. 앞차기나 옆차기, 뛰어차기 등은 겨루기적 효용성이 낮아 잘 쓰이지 않습니다. 차기는 공격 순간의 선택에 따라 선제공격 (기습공격)과 받아차기로 나뉘어집니다.

② 주먹치르기 : 손가락을 말아쥔 주먹의 앞부분으로 반드시 몸통만을 쳐야 합니다. 주먹 자체의 공격력에 의존하기 보다는 상대 공격을 차단하고 이어서 차기의 기회를 포착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상대의 공격에 대해 맞받아 치는 <받아치르기>가 자주 쓰입니다.

③ 발딛기(스텝, 퓌트, 보법) : 앞, 뒤 방향으로 몸의 이동을 신속히 하는 발의 움직임입니다. 차기 기술을 뒷받침하고 공격과 수비 양면에 두루 쓰이는 필수적이고 유용한 기술입니다.

④ 거짓공격동작(헤인트모션) : 상대의 의도와 전술을 파악하기 위해 공격 동작을 취하는 척하는 행위. 상대방쪽으로 재빠른 짧은 발딛기로 공격 동작을 취해 보는 것입니다. 거짓공격동작은 상대의 반응을 파악하고 허점을 만들어 공격 찬스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합니다.

⑤ 피하기 : 태권도의 주된 방어 기술. 상대의 공격에 대해 팔을 뻗어서 막을 필요 없이 공중에서 흘려버리는 특별한 기술. 상대의 차기 공격을 몸에 스칠 정도로 교묘히 피하면서 반격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피하기는 재빠른 발딛기 기술에 그 성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⑥ 지키기(가드) : 막기와는 약간 구별되는 기능을 가진 보조 방어 기술로서 자신의 급소 부위를 팔로 지키는 기술. 겨루기에서는 상대의 공격에 대해 품새에서의 아래막기나 몸통막기처럼 막지 않습니다. 주먹을 내뻗어 막는 동작을 취하는 것은 역습 찬스를 허비하는 단점이 생깁니다. 반면 지키기는 자신의 신체 부위에 미리 팔로 가리고 있음으로써 상대의 공격이 그 팔에 의해 자연히 저지되도록 만드는 기법입니다.

겨루기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은 경기 규칙에 의해 공격 방법과 수단과 공격 목표 부위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허용된 공격 수단

타격형 무술에 속하는 태권도는 신체의 강한 부분, 즉 주먹, 손날, 팔굽, 발, 무릎 등 팔다리 [사지(四肢)]에 있는 뼈나 관절을 공격 수단으로 합니다. 그러나 태권도 겨루기에서는 발 공격기를 보다 살리기 위해 차기 위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먹치르기는 몸통 공격에 한해서만 허용되며 손날, 팔굽, 무릎 등의 다른 공격 수단은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태권도 겨루기는 발을 이용한 차기와 몸통 주먹치르기를 수단으로 하여 상대 신체에 대한 공격과 이에 대한 반격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겨루기에서는 승패를 판가름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허용된 공격 기술로 충분한 위력을 상대에게 미쳤을 때는 유효한 공격 기술로 인정됩니다. 즉 정해진 공격 목표부위를 정확하고 강하게 타격했을 때 그 공격은 제대로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격 목표 부위

겨루기에서 공격 목표 부위(득점부위)는 크게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로 나뉘어 집니다. 태권도 겨루기 규칙상 아래 부위에는 어떠한 공격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격투적 관점에서는 낭심이나 무릎 안쪽, 발목 등이 훌륭한 공격 목표가 되지만 겨루기에서는 그 같은 아래 부위를 공격하면 오히려 경고나 감점을 받는 반칙 행위가 됩니다. 태권도 겨루기 규칙상 허용된 공격 부위와 공격 수단을 취해야만 정당당한



태권도 겨루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① 얼굴 부위 : 귀를 기준으로 한 정면 부분이며 세
부 급소로는 눈, 코, 부빈, 턱 부위이며 목부분을 포함
합니다. 사실 목은 얼굴과 몸통을 연결해 주는 부분
이지만 얼굴 부위로 포함시킨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목은 예민한 신경계와 연약한 근육질로 이
루어져 있어 인체 내의 주요한 급소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약간의 타격에도 큰 손상을 입기 쉬운 부분입
니다. 목 부위도 중요한 급소인 이상 겨루기 규칙상
얼굴 부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무술적 공방(攻防)의 의
미를 증가시킨다는 취지입니다. 목 부위가 얼굴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므로 발로 목을 찰 수가 있게 됩니
다. 그렇지만 실제 겨루기에서 여간해서 목 부위를
발로 차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목 대신 성공률이
높은 코 주변이나 턱을 주로 노리게 됩니다.

② 몸통 부위 : 위로는 어깨 부분(견봉)에서부터
아래로는 엉덩이뼈(골반, 장골능)까지로 되어 있습니
다. 도복피를 맨 상태에서 윗부분이 몸통 부위가 되
며 그 아래 부분인 아래배(방광 부위)와 팔, 등 부위
는 공격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몸통 부위에 있
는 공격 목표는 명치 급소를 정점으로 한 복부 중앙
과 양 옆구리(갈비뼈의 양옆 부분)입니다. 겨루기
에서 착용하는 몸통보호대는 수련자의 안전 유지에 필
수적이며 공격 목표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차

기의 정확성을 기를 수 있는 등 많은 잇점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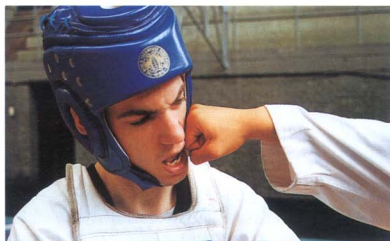
〈요 약〉

※ 성공적인 공격은 상당한 기술로 신체 목표 부위
를 강하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입니다.

1. 얼굴(안면, 턱 부위 등)과 몸통(복부, 양옆구리
등) 부위를 발로 찼을 때
2. 주먹지르기로 상대 명치(복부)를 쳐서 상대가
주춤할 정도로 충분한 손상을 입혔을 때

겨루기에서 삼가야 할 반칙 행위

태권도 겨루기의 규칙은 생각보다 상당히 엄격합
니다. 그 이유는 인정된 공격 기술로 겨루기를 해야
만 태권도 특유의 겨루기 기술을 익힐 수 있을 뿐 아
니라 수련자의 안전 유지를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
다. 따라서 겨루기를 하는 수련자라면 누구나 규칙을
알고 잘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나 기
술, 즉 반칙을 삼가야 하며 정정당한 대결이 되어
야 합니다. 경기에서는 보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 상
세하고 복잡한 규칙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경기 규
칙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반칙 행위는 <경고> 사항이
되며 심한 정도는 <감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
기서는 주요 금지 사항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반
칙 사항은 크게 다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겨루기에서 반칙 행위의 예. 주먹으로 얼굴 지르기 : 태권도 겨
루기는 길거리에서나 하는 막싸움과는 달리 규칙에 따라 정해
진 기술로 정정당한 실력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주먹을 사용
한 얼굴 공격은 무제한 격투에서는 유용한 공격 수단이 되지만
태권도 겨루기에서는 절대 금하고 있는 반칙 행위가 됩니다.

1. 정해진 공격 부위가 아닌 곳을 공격하는 행위 : 사타구니(낭심), 허벅지 등 아래 부위, 머리 뒤 통수, 등 뒤를 찌는 행위
2. 정해진 공격 수단을 벗어나는 행위 : 무릎이나 박치기로 공격하는 행위, 얼굴을 주먹으로 치는 행위 등
3. 상대 공격 방해 행위 : 상대를 잡거나, 넘기거나, 밀거나, 손발로 끼는 행위
4. 기타 : 넘어진 상대를 찌는 행위

닫기(스텝)의 활용과 종류

겨루기를 잘 하려면 발차기 뿐만 아니라 닫기(스텝)에도 능해야 합니다. 차기와 마찬가지로 닫기는 발을 사용하며 전후 좌우 원하는 방향으로 몸을 신속히 이동시키며 공방을 펼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흔히 외래어 그대로 스텝(step)이라고 하며 ‘(발)닫기’, ‘발돌림’ ‘훅워크’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닫기는 공수(攻守) 양면에 기여하며 겨루기를 능숙하게 하는데 필히 익혀야 할 기술로 평가됩니다. 닫기를 할 때에는 뒤꿈치를 살짝 들어서 소리가 나지 않게 지면을 스치듯 사뿐히 신체 중심이 옮겨져야 합니다. 또한 발바닥 (특히 앞축 : 앞발꿈치)의 마찰과 무릎의 탄력을 이용하되 상체와 팔을 흔들어 움직임을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닫기의 명칭과 내용에 대해서는 지도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닫는 방향에 따라

1. 앞쪽 :
 - ① 나가닫기 : 두발을 동시에 앞으로 이동
 - ② 한걸음닫기 : 뒤에 놓인 발을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딤. 닫기 후 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됨.
 - ③ 두걸음닫기 : 두걸음 전진. 뒤에 놓인 발을 먼저 디디고 앞 발이 따라 움직임.
 - ④ 뒤돌아닫기 : 몸이 등쪽 방향으로 돌아서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딤.
2. 뒤쪽 :
 - ① 물러닫기 : 두 발을 동시에 뒤로 이동
 - ② 한걸음빠지기 : 앞에 놓인 발을 한걸음 뒤로 물

러서 빠지기. 닫기 후 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됨.

- ③ 두걸음빠지기 : 두걸음 뒤로 물러남. 앞닫기와 반대로 앞에 놓인 발을 먼저 디디고 뒤 발이 따라 움직임.
3. 옆으로 비켜닫기 : 뒤에 놓인 발을 옆으로 빠지면서 90도로 몸의 방향을 바꾸는 닫기
4. 기타 : 제자리닫기, 발바꾸기, 자세바꾸기 등

※ 닫는 방법에 따라

1. 빠른발 : 빠르게 발을 디딤
2. 발붙여 : 뒤에 놓인 발을 앞 발 위치에 붙이는 닫기 동작
3. 뒤돌아(몸돌려) : 몸이 등쪽 방향으로 돌아서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딤. 돌려차기에 활용되는 닫기
4. 뛰어닫기 : 나래차기(두발이어차기)등 뛰어차기에 사용되는 닫기

닫기와 거짓차기동작은 차기 보조 기술에 불과하지만 차기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수단입니다. 적시타를 성공시키기 위해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 재빠른 닫기로 응수해야 합니다.

겨루기 준비자세-거름세

품세의 준비 자세와는 달리 겨루기는 순간적인 상황에 재빨리 몸놀림이 응해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전신 관절과 근육의 탄력을 최고도로 유지하며 금방이라도 뛰어나갈 듯한 용수철처럼 팽팽한 상태로 상대 공격을 피하고 반격해야 됩니다. 각 신체 부위의 기능이 최고도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자세가 곧 겨루기의 기본 자세입니다.

- ① 다리 서기 : 돌려차기와 뒤차기 등 갖가지 차기의 실행과 앞, 뒤 발의 원활한 사용을 고려함.
- ② 다리 넓이 : 어깨넓이의 1.5배 정도. 쌍방의 격렬한 접전에서도 신체 균형을 유지하고 원활한 앞 뒤 이동과 차기의 속도와 위력을 극대화시키는 정도의 넓이.
- ③ 몸의 각도 : 상대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급소를

보호함은 물론 순간적인 방향 전환에 유리한 각도. 보통 60도 정도 옆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 ④ 양손과 주먹: 팔에 지나친 긴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먹을 가볍게 쥐어서 급소 지키기를 취함. 찬스가 생기면 언제라도 주먹을 뺀어 지르기도 시도함.
- ⑤ 팔의 위치: 옆구리와 배 부위의 몸통과 얼굴을

지키도록 함. 팔굽으로도 양 옆구리를 지킴. 공격시 팔을 벌리거나 하여 자기 급소 부위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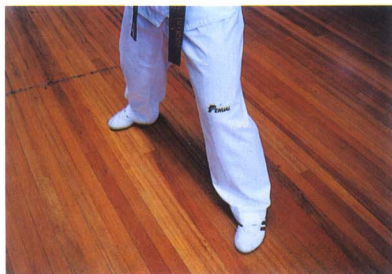
- ⑥ 시선: 늘 목표물을 주시함. 상대의 눈을 보거나 어깨선을 주시합니다. 시야를 아래까지 넓혀 발의 움직임까지 읽어야 합니다.



앞과 옆에서 본 겨루기 자세: 겨루기 자세는 몸의 신속한 앞 뒤 이동, 두 발과 주먹의 원활한 사용, 효과적인 지키기, 시선 등 겨루기 공방에서 최대한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상대와의 격렬한 공방 중에서도 이러한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어야 상대의 역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겨루기 자세에서 주먹의 위치는 왼쪽 주먹 어깨 높이가 적당하며 왼쪽 팔굽은 몸통(옆구리부위)을 지키기 합니다. 오른쪽 팔과 주먹 역시 명치 근처의 몸통을 지키되 필요시 언제라도 주먹지르기를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왼 겨룸새에서 다리 서기 두발은 어깨 넓이의 1.5배 정도. 몸과 발의 각도에 유의해 주십시오.

태권도에 대한 사랑으로 말기 암을 이겨나가는 사람

—인천 구월 로마체육관 가용순 관장—

지난 4월 모일간지를 통해 소개된 암투병중인 태권도 관장의 사연에 온정이 담지하고 있다.

가용순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알기 시작하여 현재 인천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 3단의 사범이다. 지난 해 11월 황문근육 종양 말기라는 암선고를 받기 전까지 그는 태권도 특기생으로 기술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선수생활을 하여 도장을 차릴 정도로 태권도와 각별한 인연을 가졌던 사람이다.

무릎수술로 선수생활을 포기해야 했지만 태권도에 대한 열정만으로 도장을 내서 후진을 양성해 왔던 26세의 젊은 그에게 암말기 선고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운명을 탓하며 세월을 보냈겠지만 그는 달랐다. 태권도에 대한 사랑이 그를 주저앉을 수 없게 했던 것이다. 병상에 있는 그를 찾아온 어린 제자들은 [인천시장기대회]에서 우승하겠다고 눈물로 다짐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 함암치료로 머리 카락이 모두 빠져버린 수척한 모습으로 불편한 몸을

지팡이에 의지하며 제자들을 지도한 가용순 관장의 정성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한 결과다.

3월 31일 결혼식을 올린 그의 신부 심은주(26)씨도 어려움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삶의 의지를 가지고 그를 돌보고 있다.

한편 이들의 소식이 언론을 통해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각계에서 온정이 줄을 이었다. 본 협회(회장 이필곤)는 가관장의 치료비로 1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중고연맹대회 심판, 용인대 총장기대회 상임심판원, 대한태권도 협회 등반대회 참석자, 용인대 태권도학과 학생회 등지에서 1,064,250원을 성금으로 보냈고 각 시도지부 태권도 협회등에서도 성금모금을 통해 가관장의 투병을 격려했다.

이에 가용순 관장은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성원을 기억하며 병마와 싸워서 꼭 승자가 되겠다는 감사의 서신을 태권도 협회로 보내오기도 했다.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그가 건강한 몸으로 후진을 양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래본다.



가용순 관장이 부인 심은주씨의 부축을 받으면서 제자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

고려대학교 태권도부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김범명 의원—

지난 5월 27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태권도인들이 주목할만한 행사가 열렸다. 고려대학교 태권도부 졸업생 모임인 '무우회' 회원중 지난 15대 총선때 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축하연이 열렸던 것이다.

무우회를 창단한 한승조 박사, 고대 홍일식 총장, 최영상 부총장과 대한태권도협회의 이승완 부회장, 김철오 전무이사, 세계태권도연맹 최만식, 김영태씨 등이 자리를 함께한 이자리에서 김범명, 구

천서, 이국현, 박명환, 설훈 당선자는 무우회와 고려대 태권도부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태권도인들간의 끈끈한 정을 보여주었다.

현재 무우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범명 의원(자민련)을 만나 무우회와 태권도에 관한 이리저리한 이야기들을 들어 보았다.

무우회는 현재 5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국내최고, 최대의 대학 태권도부 출신 졸업생들의 모임인데 한진그룹 이동성 부회장, 세방여행사 이상필 사장, 고려대 김진수 교수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주도로 활동하고 있는 저명인사들이 많다고 한다.

무우회의 모체가 된 고대 태권도부는 동아리 중의 하나지만 타 동아리와는 달리 그 위상이 격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우회의 계속적인 지원으로 올들어 지도사범을 선임하고 전문 태권도 선수를 스카웃하는



등 선수배출에 의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동하는 지성, 사고하는 야성"이라는 기치 아래 50여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고대 태권도부는 1945년 한승조(고대 전 정경대학장)와 이세영, 이종성 등을 주축으로 창설되었다. 그리고 1975년에는 전국대학태권도연맹에 가입하였고 1977년에는 고대 무술연구회를 발족시키는 등 꾸준한 발전을 계속해왔다. 또 1983년부터 시작된 대학 친선 태권도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해

마다 친선대회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등 태권도부의 입지를 다지며 오늘에 이르렀다.

고대 태권도부는 현재 김진수(농대 산림자원학과) 지도 교수와 장 혁(한체대 졸업) 지도 사범 아래 40여명의 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원중엔 외국인도 한 두 명 끼어 있으며 15명 정도는 2단 이상자라고 한다. 그리고 올해 처음 스카웃한 곽영진(충남체고, 95 문화체육부장관기대회 1위와 최우수선수상 수상, 라이트), 안정일(서울체고, 95 중جو연맹회장기대회 1위와 최우수선수상, 밴텀)군도 고대 태권도인으로서는 타부원들과 함께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고대 태권도부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무우회의 회장인 김범명 의원은 61학번으로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는데, 중학교때부터 시작한 태권도를 계속하고 싶어 태권도부에 가입했다고 한다. 남자로써

태권도 그리고 사람들



이러한 고대 태권도부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무우회의 회장인 김범명 의원은
61학번으로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는데,
중학교때부터 시작한 태권도를 계속하고 싶어
태권도부에 가입했다고 한다.
남자로서 해볼만 한 운동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태권도 실력이 3단.
태권도는 단체운동이 아닌 개인활동이어서
정신수양에 큰 도움이 된다면
젊은 사람들이 배우기에 더할나위 없이 좋은
운동이라고 소개한다.



해볼만 한 운동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태권도 실력이 3단. 태권도는 단체운동이 아닌 개인활동이어서 정신수양에 큰 도움이 된다면 젊은 사람들이 배우기에 더할나위 없이 좋은 운동이라고 소개한다.

대학 단체시합에서 전승을 올리던 대학시절을 회상하면서, 반구를 쓰고 시합을 하다가 상대를 내려칠 때 엄지발가락이 탈골한 것을 모를 정도로 집중하기도 했었다는 에피소드를 들려주기도 한 김의원은 어릴적에 청도관에서 한차교 사범에게서 태권도를 배웠다고 한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국정을 하다보면 특히 건강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틈날때마다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다지고 있다는 김의원은 선거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말했다. 정치에 입문하기 이전엔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38세에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기도 한 앞날이 촉망받는 사업가로 살았다. 그는 봉사과 인내의 마음만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면서 국회의원이란 직업이 개인생활이 거의 없는 힘든 일이라고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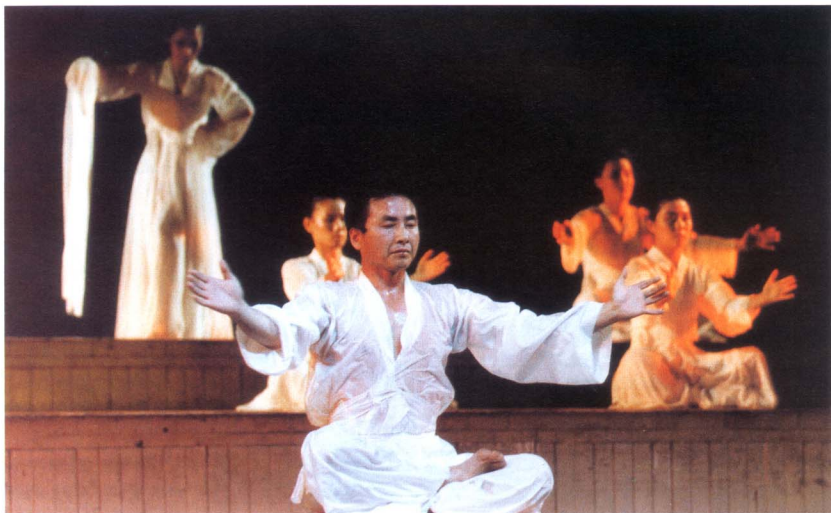
그렇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작년부터 무우회 회장직을 맡아 분기별 이사회, 연말총회를 주재하고, 고대 태권도부의 심사때마다 참석하는등 활발한 활동

을 펴고 있다. 주장장학금 지급, 하계수련회 지원, 미국 파견단 지원등 물심양면으로 태권도부를 지원하는 무우회는, 그야말로 '행동하는 지성, 사고하는 야성'을 기치로 내걸고 50년 전통을 지켜온 고대 태권도부와 함께 태권도계의 끈끈한 선후배간의 우정을 지켜갈 것이다.

김범명 의원 이력

1943년 충남 논산 출생
1961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
1984년 연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1988년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수료
1984년 ~ 현재 대신장학회 이사장
1992년 14대 국회의원(통일국민당)
1994년~현재 고대 무우회 회장
1996년~15대 국회의원
1996년~자유민주연합 충남도지부위원장
자민련 통일외무분과 위원장

태권도 문화를 생각한다 —태권무 보급자 범기철씨—



지난 5월 국립극장에서 가졌던 태권무 공연 모습

1996년 5월 26일 국립중앙극장 소극장에서 흥미로운 공연이 있었다. 한국전통무에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영원한 빛 태권무' 공연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 무대에는 15년간 태권무의 외길을 걸어온 범기철씨가 있었다.

그가 처음 1981년 세종문화회관측에 태권무라는 낯선 이름을 내걸고 이를 공연으로 올리겠다고 대관 신청을 했을 때, 대관 담당자는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몇가지 동작을 보여주면서 태권도의 예술화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이야기 했을 때 담당자는 그의 눈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그를 믿어보기로 했고, 태권무는 공연선정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세종문화회관에 서 대중에게 그 모습을 선보일 수 있었다.

이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수십회의 공연을 가지

면서 태권무의 보급을 위해 힘써 온 범기철씨.

중학교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한 그는 군복무중에 태권도 교본을 만들기도 했고 제대후 부산 범어사에서 1년간 입산수도하며 태권도로 심신을 단련했다. 서울 길동에서 도장을 차리고 후학들을 지도하면서 매년 태권무 공연을 가져오다가 85년 도일, 10년간 일본에서 태권무를 보급하기 위해 힘써온 그는 96년 초 귀국해서 5월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가졌다. 현재 안양에서 태권무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기를 이용하여 심신을 정화시킬 수 있는 '기운동'을 펴고 있는 범기철씨.

그는 태권무를 이렇게 말한다.

"태권무는 우리의 전통무용과 현대무용 및 서구발레가 자신의 고유한 양식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예술적 기법을 표현합니다. 태권도의 분명한 동작들이 갖

태권도 그리고 사람들

고있는 힘과 긴장감은 다른 예술을 통해서도 전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태권도의 본질이 격과순간의 긴장감에 존재한다고 볼 때, 태권무는 이러한 긴장감에 의해서 고조된 감정들을 선과 각도를 갖춘 다이내믹한 움직임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생활환경이 급속하게 바뀌고 다양한 시도들이 용인되고 있는 이즈음에 그가 태권무를 들고 나왔다면 그는 대중의 환영을 받으며 부와 명예가 보장된 생활을 할 수 있었을런지도 모른다. 요즘 활발한 운동이 전개되는 태권체조와 태권 에어로빅 등이 태권도와 태권무를 잇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볼 때 그는 상황이 성숙되기 전에 너무 일찍 태권무를 사람들 앞에 들고 나온 것이 다.

무엇인가를 선도하는 사람의 인생이 그렇듯 그도 태권무를 믿는 순수한 마음과 열정만으로 신산하고 고단한 길을 걸어왔다. 물론 그의 길에 동참한 사람도 많았다. 뜻을 같이 한 도장 사범들과 후배들은 사회적 인식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태권무의 보급을 위해 어려움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다. 지금은 누님 동생하고 지내는 공옥진씨는 병상으로 그녀를 찾아간 범기철씨의 두 손을 꼭 잡고 “내가 당신을 정말로 만나고 싶었소. 당신은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요.”라는 말로 그를 격려했다고 한다. 태권무를 알리야 한다는 생각에 무조건 MBC를 찾아가 PD를 만나기도 했다.

그는 시범을 보고 이야기를 들은 PD가 이런 일은 알려야 한다며 인터뷰를 했고 이후로 신문, 라디오, TV에 범기철이라는 이름과 태권무가 소개되기 시작했다. 85년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도장을 운영하며 태권무를 보급할 당시에도 많은 무술인들이 그의 생각에 공감했고 서로의 예술적 교감을 나누었다. 그러나 그의 길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은 소수였다.

그의 아버지는 세사적인 출세의 길을 저버린 장남인 그를 나무랐다.

비록 주변의 상황은 그러했지만 무예로서의 태권도와 예술로서의 태권무를 사랑하고 태권도 문화의 미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다.

95년 8월 태권도 한마당 잔치에서 태권무 시범을 보이기도 한 그는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보급되어 외국인들이 대부분이 대한민국 하면 태권도를 떠올릴 정도로 태권도가 한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로 각인되고 있는 만큼, 태권도 문화를 제대로



그의 춤에는 절제된 힘의 역동성이 보인다.

정착시키고 이를 분류로 한 특정의 분야들을 제대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본인을 비롯한 태권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책무라고 강조한다.

태권도와 태권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던져진 이 시대의 화두 - 태권도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인복지연구에 앞장 선 유명인 관장(광주한일체육관장)

—제24회 어버이날에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송연중 광주시장으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있는 유명인 관장.

새벽 4시!

마음을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준비하는 유명인씨(50세, 한일체육관장, 광주태권도협회 감사).

그는 96년 5월8일 제24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특별한 상을 수상하였다. 그동안 노인복지연구소를 운영해 오면서 지역사회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들을 위해 알게 모르게 봉사해 온 결과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다.

유명인씨는 3세때 부친을 여의었고, 홀로 되신 어머니 밑에서 엄격한 가훈과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을 배우면서 성장해 왔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정직하게 사는 길이 당당한 것이다.”라고 어머니의 말씀을 한시라도 잊어본 적이 없다. 한때 목회자가 될 결심으로 신학공부를 했었지만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일단 접어두고 제약회사에 근무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서부터 배운 태권도의 강한 정신을 후배들에게 심어주고 싶어 16년전 방림동에 한일체육관을 설립하여 국기태권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공사간의 일들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유관장은 광

주태권도협회 감사직분을 8년동안에 4차례나 연임하면서 수지결산 및 예산편성에 추호의 오차가 없는 정확한 사무처리능력을 보여주었다.

사회활동을 해오면서 항상 노인복지문제를 염두에 두었던 그는 주변의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들을 위해 체육관 사무실 옆에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노인문제 상담도 하고, 노인 사회참여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구하면서 봉사를 해 왔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문제가 너무 낙후되어 있음을 절실히 느낀 그는 선진국의 사회복지에 관한 서적을 참고하고 연구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구청과 마을동사무소 등을 왕래하면서 행사협조를 요청했다.

유관장의 취지를 알게 된 관공서에서도 예산지원은 못했지만, 여러가지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었다.

노인들에게 사회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거리대청소 및 교통질서제도, 자원봉사활동 등을 담당하게 하여 노인들 스스로 보람과 자긍심을 갖게하고, 특히 고령의 나이로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들에

태권도 그리고 사람들

게는 외로움과 고통을 같이 나누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르도록 하계끔 몇몇 지역 유지들과 뜻을 함께하여 독거노인들과 1:1로 사랑의 자매결연을 맺어 그분들의 임종때까지 사랑과 책임감을 갖고 부모처럼 모시기로 다짐하였다.

이러한 일을 하기까지 넉넉치 못한 가정살림 때문에 부인 고명숙씨(45세)의 반대도 있었지만, 노인들의 주름진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고 의욕을 갖게 되는 것을 보고 지금은 유관장보다 더 적극적으로 봉사하면서 협조해 주기 때문에 항상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유관장은 딸 정아(서울여대 2년)와 아들 정훈(광주송원고 3년)을 두고 항상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정신을 가르쳐 왔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주변의 협조를 통하여 더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지역방송국의 노인문제에 관한 대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신문지상에 노인복지에 관한 글을 기고하면서 이 문제

가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우리나라도 선진국가처럼 모든 사람이 복지혜택을 누리면서 생활하게 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유관장은 주위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제24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제가 받은 상은 특별한 상이지만 저는 특별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노인문제는 곧 우리의 장래 일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도 오늘날 세상이 윤리와 도덕성이 결여되고 있는 현실이 되다보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남의 눈에 특별하게 비춰진 모양입니다.”

평소 사랑의 실천을 가르쳐 오신 어머니가 2년전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장 마음이 아팠다는 유영인씨.

현재 사랑의 결연으로 맺어진 독거노인 양차레(87세)씨를 어머니처럼 모시고 소외된 외로운 이들의 친근한 벗이 되기위해 오늘도 유관장은 사회 구석구석을 이리저리 뛰어 다닌다.

〈광주 이병도 편집위원〉



70세 이상 고령의 독거노인들과 사랑의 자매결연을 맺고 인사말을 하고 있는 유영인 관장.

태권도에 한평생 몸 바쳐온 외길인생

—부산 지현도장 조증덕 관장(9단)—

태권도 사범 40년의 외길인생을 걷고 있는 태권도계의 산증인 조증덕 관장(지현도장). 그는 1946년 당시 15세의 어린 나이에 도장에 입문, 1961년 공인 5단에 승단 했고, 경찰관 생활을 하면서 부산·경남 경찰국에 태권도부를 창설하여 지도해온 무도경찰



제13회 전국서예대전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조증덕 관장

17년 경력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태권도 지도자로서 술선 수범하여 폭넓은 국제친선 교류와 지역 새마을운동 자연보호운동 활발한 사회활동을 해 온 그는 지난 90년부터 태권도를 배우기 원하는 러시아인과 사할린 거주 교포 2세 청소년 15명을 한달간 지도해 러시아에 태권도를 보급하는등 전통무술 보급에 이바지한 공으로 93년 이곳 부산 영도구청으로부터 제1회 자랑스런 영도구민에게 주는 대상을 받기도 하였다. 95년 10월에는 미국·일본·러시아를 비롯한 6개국과 국제 태권도 친선교류를 맺고 2만여명의 제자를 배출하여 국민체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으로 400만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제38회 부산문화상(체육부문)을 수상, 전체육인의 축하를 받기도 하였다. 지난

4월 서예예술인 협회가 주최한 제13회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전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았고, 또 93년 제11회 일본 신동아 현대미술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는 조관장은 태권도수련과 오랫동안 붙들려, 불도 생활로 “삼도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했다.

그는 딱딱부터 잘 키워야 큰 나무가 된다는 믿음 아래 지금도 매일같이 7~8시간을 어린이에서 일반에 이르기까지 직접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든까지는 충분히 후배와 제자를 위해 희생하겠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곳 영도구 영선동 1가에 위치한 지현도장에는 오늘도 태권도 수련생들의 기합 소리가 영도해변가를 돌아 태평양으로 울려 퍼져 나가고 있다. 그의 사무실에 있는 2백여종의 각종 상패와 감사장, 그리고 2만여명의 무력부 36권은 조관장의 지난날을 말해주고 있다.

(부산 윤성호 편집위원)

제12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

—고양종고 2학년 이선희—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중 가장 야무진(?)선수.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참가해 여자부 우승을 거머쥔 이선희 선수는 해단식에 참가하기 위해 21일 협회를 방문했다. 작고 가

름한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대회 경력을 가진 태권도 유망주 이선희 선수를 만났다.

고양종고 2학년 1반 이선희. 국가대표선수 중 최연소. 초등학교 2학년때 처음 태권도에 입문하여 고양중학교 재학시절 현재의 오재용 코치에게 발탁되어 태권도 선수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 어릴적 별명은 '하니'. 달리기를 잘하는 순정만화 주인공의 이름을 딴 별명이다. 골목을 휩쓸고 다니며 골목대장 노릇을 했던 이선희 선수는 위로 태권도와 합기도로 단련된 네명의 오빠를 둔 집안의 귀염둥이다. 하도 이러저리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아버지가 잡아둔다고 어릴적부터 도장을 데리고 다니며 태권도를 가르쳐주셨다는 태권도 입문기가 재미있다.

아침운동 한시간 반, 4시간의 오전수업, 3시간동안 연습이라는 반복되는 일과.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아 연습이 안되거나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속이 많이 상하지만 시합에 우승할때,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며 이야기 저얘기 할 때는 재미있고

신난다는, 아직은 어린 학생이다. 그러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라이트급 1인자로 떠올랐을 때 이선희 선수는 어린 고등학교 여학생이 아니라 당당한 태권도 선수로서 굳게 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세계 주니어 선수권대회 파견 국가대표 최종선발대회에서 웰터급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세계주니어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 이 선수를 지도한 오재용 코치는 86년도부터 고양종고에서 여자 태권도 선수를 육성하기 시작했는데, 고양종고는 88년도 국가대표 웰터급 2위자인 박경희, 92년도 국가대표 권급 1위 이순영에 이어 4년만에 이선희를 국가대표



라이트급 1위로 배출하면서 태권도 명문고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하게 되었다.

키가 170cm여서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 친구는 작고 귀여운 이미지였으면 좋겠다고 활짝 웃는 이선희 선수의 이상형은 서태지?(경쟁상대가 많겠지만 태권도로 모두 물리칠 자신이 있다고 함)

검은 선수단복에 노오란 배낭을 달랑거리며 '저, 밥먹으로 가요' 하면서 뛰어가던 이선희 선수의 어깨 위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너울거릴 태극기가 떠오른다.

책을 읽고 푸른 그늘 아래서 이야기를 나누자

송재찬 / 동화작가

올해는 더위가 일찍 오고 예년에 비해 더울거라는 예보처럼 벌써 찌는 더위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책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은 더위같은 걸 걱정하지 않는다. 독서는 더위와 맞설 수 있는 좋은 무기이기 때문이다. 책을 읽고 친구에게 책을 소개하는 그림 엽서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친구들끼리 독서 모임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함께 읽은 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푸른 그늘에 모여 수박을 깨며.

하루살이 이틀살이

(장문식 창작동화집, 도서출판 산하)



〈누나와 징검다리〉·〈도둑 마을〉을 통해 우리 것의 아름다움과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 주었던 장문식 선생님이 다섯번째 단편 동화집을 냈다.

이번 동화집에서 작가는 사라져가는 우리 정서의 아름다움을 여러가지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고 있다. 사람다운 마음을 잃어버리고 기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과 파괴되어지는 환경…… 이러한 주제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뀌면서 계속해서 나타난다. 처음 들려주는 이야기는 제 분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한 작은 물방울을 통해서 보여준다. 머구산 오목골 샘에서 살고 있는 작은 물방울은 샘을 떠나 시내로 나가면서 넓은 세상의 무서움들을 차례로 보게 된다.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로 이루어진 이 세상, 넓고 화려한 길에 숨어 있는 함정.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며 마침내는 들판의 벼를 키우는 물이 되고 끝내는 낱알 속의 새생명으로 태어나는 작은 물방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생존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작가는 이렇게 무서운 세상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꾼다. 그리고 그 무서운 세상을 거뜬히 이겨낸 〈크는 물방울〉처럼 그렇게 해야 새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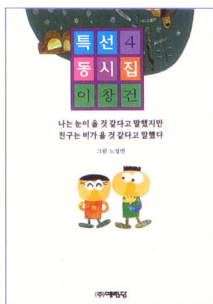
〈크는 물방울〉이 물방울을 통한 세상 읽기라면 〈왕바위와 소나무〉는 바위와 소나무를 등장시켜 세상 사는 법을 보여주고 있다. 수정계곡의 바위와 멋진 소나무. 바위와 소나무는 수정 계곡의 명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위와 소나무를 보기 위해 몰려든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소나무는 사람들의 칭찬을 혼자 받고 싶어한다. 멋없는 바위가 없어야 자신이 더 멋진 거라고 생각하며 바위를 미워한다. 그러나 소나무는 아주 오랜 옛날 바위가 품어 키운 소나무였다. 바위가 품어 주지 않았다면 얼어죽고 말았을 줄

씨였다. 그 은혜를 모르고 소나무는 끝까지 바위를 미워한다. 자기처럼 멋진 소나무 때문에, 못생긴 바위도 그동안 사람들의 칭찬을 받은거라며 키워준 은혜는 그것으로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 소나무다. 마침내 소나무는 먹구름에게 부탁하여 큰 비를 불러들임으로써 큰 바위를 떠내려 가도록 한다. 바위는 없어졌다. 소나무는 이제 모든 칭찬을 혼자 받으리라 생각하며 좋아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고 만다. 소나무가 아름답게 보였던 것은 바위가 그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린 독자들도 이 글을 읽으면 여러 가지들이 떠오를 것이다. 사람은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오늘 의 내가 있는 것이다.

장문식 선생은 이번 동화집에서 우리 정신을 지키며 함께 살아가기와 환경문제들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한 편 한 편이 큰 나무처럼 느껴지는 동화들이다. 화려하지 않지만 눈길을 끄는 오래된 나무처럼 꾸밈없는 문장도 이야기의 내용과 잘 어울린다.

나는 눈이 올 것 같다고 말했지만 친구는 비가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건 동시집, 예림당)



어린이 책을 전문적으로 출판해온 예림당에서 아름다운 동시집 4권을 동시에 펴냈다. 노원호·박두순·정두리·이창건 내분의 동시집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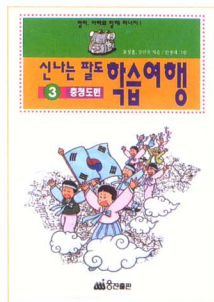
어린이들에게 좋은 동시를 읽혀야겠다는 예림당의 어린이 사랑이 탄생시킨 이번 특선 동시집은 선정위원 50명이 여러차례의 모임을 통해 작가를 선정

하고 다시 그 분들의 모든 동시집을 읽은 후에 정말 좋다고 생각되는 동시들을 뽑아내어 아름다운 칼라 동시집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 난을 통해서 노원호·박두순·정두리 시인의 시는 소개한 바 있다. 그래서 이 번 호에는 이창건 선생의 시를 소개하려고 한다. 이창건 선생의 시는 맑고 깊이가 있다.

홀러가면서/많은 것에 가로 막힌다.///돌부리에 부딪힌다./나무 뿌리 풀뿌리에 걸린다./바위에도 갇힌다./그렇구나./우리들도 자라면서/얼마나 많은 것에/부딪쳐야 할까.///비잉 돌아보기도 하는/강 속 땅 바닥을 기어 보기도 하는//뛰어넘기도 해 보는/곧게 나아가 보기도 하는 /강/강물.(강 3 전문)

이 창건 선생의 동시는 잘 빚어낸 자기 갖고 봄 여름 가을을 잘 건너 익은 향기로운 과일과도 같다. 이 한 편의 동시를 읽는 것 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도 강물이다. 흘러 가다 막히는 강물처럼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것들에게 방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가. 그러면서도 묵묵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 여름에는 이 동시집을 읽으며 마음의 키를 높여보자.

신나는 팔도 학습 여행 (표성흠·강민숙 지음, 웅진출판)



소설가인 남편과 동화 작가인 아내가 힘을 합쳐 여행 안내서를 펴냈다. 지금까지 어른들을 위한 여행 안내서는 많았지만 이렇게 어린이를 위한 여행 안내서는 처음이다. 여행 안내서도 그냥 보통 여행 안내서가 아니고 초등 학교에 나오는 역사의 고장을

꼼꼼하게 조사하여 그 고장의 역사와 지리, 인물, 관
광지 등을 어린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재미있
는 글과 사진 그림으로 엮은 책이다. 부부 작가가 직
접 여행을 하면서 자료를 조사하고 사진을 찍어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읽기만 해도 사회 공부가 되
는 그런 책이다. 게다가 직접 여행하는 가족을 위한
교통편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사회과의 조사 학습을 위한 참고 도서로도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책이다. 백과 사전의 조사량은 너무
많고 전과에는 너무 간단해서 또 다른 책이 없을까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책이다.

현재 나온 것은 1-강원도 편, 2-경기도·서울편,
3-충청도 편, 4-경상도 편, 5-전라도, 제주도 편.

흙

이창건

흙은 우리처럼
차고 뜨거움을 금방 느껴
햇살이 조금만 따사로워도
손가락을 놀려
잠자는 풀씨들을 깨우고
나무 뿌리들의 겨드랑이를 간지르지.
그러다가 우리들이 땀을 흘리는 여름이 오면
시원히 구름 그늘 빌려 받고
비도 받아서
풀과 나무들의 피를 삭혀주기도 하지.
그리고 우리들의 얼굴에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불면
흙은 자기가 엄마라면서
포근한 가슴으로 풀들을 감싸 안아 주기도 하지.
흙은 우리처럼
피도 있고 살도 있어
생명들을 키우지

- 이창건 동시집 「나는 눈이 올 것 같다고 말했지만
친구는 비가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중에서 -

회 초 리



글/권 민 수
그림/이 희 탁

“T 가 이랬어? 애들아 -”
엄마의 뽕족한 목소리가
아침부터 집안을 쿵 울립
니다. 우리들은 엄마가 버티고 서
있는 작은 방을 들여다 보았습니

다. 며칠 전에 도배한 작은 방 새
벽지가 여기저기 찢겨진채 엉망
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냐, 난 아냐, 절대로 아냐!”
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엄

마 손에는 벌써 가느다란 회초리가 들려져 있었거든요.

“나… 나도 안 그랬어.”

준이가 회초리를 쳐다보면서 한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손톱!”

엄마가 준이 손을 확 잡아챈다.

“보나마나 준이, 네가 그랬지? 바지 무릎을 가위로 잘라서 구멍을 내 놓질 않나, 손톱까지 죄 물어뜯는 녀석이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새 벽지를 이 꼴로 만든단 말야? 오늘은 절대로 용서 못해. 손 내밀어, 어서!”

엄마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회초리로 방바닥을 탁탁 두들겨댑니다. 그때였어요. 메루이가 꼬리를 살랑거리면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메루이는 우리 집 강아지예요.

“어딜 들어와? 어서 나가!”

엄마는 털이 날린다고 메루이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무척 싫어했어요. 엄마가 메루이를 야단치는 사이에 우리들은 재빨리 집을 빠져 나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는 준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준이는 나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손바닥을 펴 보입니다.

“형아! 나 매 맞았다!”

나는 준이가 매를 맞았다는 말에 괜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부러 그런거 아닌데… 종태

랑 찬수가 싸우는 걸 말리다가 찬수바지가 벗겨졌거든. 그런데 찬수는 내가 자기 고추보려고 그랬다면서 선생님한테 이르잖아.”

“그렇다고 선생님이 때려?”

나는 준이 손바닥을 다시 펴 보았습니다. 보기에는 말쑥했어요.

“사랑의 매랬어.”

“바보! 사실대로 말하면 되잖아?”

“피! 내 팔 뜯나 뭐? 엄마도 형 말만 믿잖아. 아침에도 그랬으면서 뭐!”

준이는 입을 삐죽 내밀면서 조그만 돌맹이를 차 버립니다.

대문이 열려있어서 우리들은 벨을 누르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쩔일 인지 메루이가 나무에 묶여서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메루이가 집안으로 들어와서 엄마에게 야단을 맞긴해도 이렇게 끈으로 묶어 둔 적은 없었는데 말입니다.

“엄마! 왜 메루이를 묶었어? 빨리 풀어줘. 얼른!”

준이가 메루이를 끌어안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뭐 잘했다고 큰 소리야?”

엄마는 커다란 통을 들고 나오면서 준이를 흘려둡니다.

“준이, 너! 오늘 별로 메루이 집 청소하거다. 페인트 칠도 할 거야. 그래서 메루이를 묶어둔 거지.”

페인트 칠이라는 말에 준이 얼굴이 활짝 퍼집니다. 나도 덩달아

신이 났어요.

“우와! 그런 벌이라면 매일 주세요! 네?”

준이의 호들갑에 엄마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피식 웃어버립니다.

“참! 이 통은 아직 손대면 안 돼! 알았지?”

엄마는 페인트 통을 나무 밑에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메루이가 콧구멍을 발름거리면서 냄새를 맡습니다.

“준아! 담요부터 꺼내서 털어. 그러면 내가 걸레질 할 테니까.”

준이는 메루이의 나무 집 안으로 손을 쭉 밀어 넣었습니다. 잘 꺼내지지 않는지, 나무 집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던 준이가 갑자기 괴상한 소리를 지릅니다.

“으으윽! 너 메루이 … 메루아!”

준이가 꺼내다 만 담요에는 작은 방 새 벽지가 잘게잘게 찢어진 채 쌓여있었습니다.

“형아! 봤지? 벽지는 메루이가 찢었다고. 엄마는 그것도 모르면서…”

메루이는 나무밑에 앉아서 팔팔 뛰는 준이를 빤히 쳐다봅니다. 준이는 양 손을 고양이 발톱처럼 바짝 치켜세우더니 순식간에 메루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메루이는 장난인 줄 아는 지 나무 밑을 돌아뛸니다. 메루이 목에 묶인 끈이 돌돌돌돌 맴돕니다.

“맴구르르… 광”

페인트 통이 메뎀이 끈에 걸려 쓰러졌어요. 빨강색 페인트가 왈각왈각, 노란색 페인트가 쭈루루룩... 준이는 메뎀이를 끌어 앉은 채 쏟아지는 페인트 위로 나뒹구러집니다. 나는 두 눈을 꼭 감아버렸습니다.

준이가 목욕탕에서 나왔습니다. 아직도 준이 머리카락에는 페인트 물감이 군데군데 얼룩져 있습니다. 엄마는 준이 옷을 갈아입혀 주면서 허를 참니다.

"쫄쫄... 이 꼴이 다 뭐람! 설마 메뎀이가 벽지를 찢을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지. 너도 참 바보다. 아니면 아니라고 엄마한테 말을 해야 알지"

"괴이! 엄마는 맨날 회초리부터 탕탕거리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말 해?"

"그... 그야, 다 너를 사랑하니까 야단도 치는거지. 잘 하는데도 회초리 꺼내니?"

엄마가 준이 눈을 슬쩍 피하는 눈치입니다.

"그래도 난 세상에서 회초리가 제일 무서워!"

"좋아! 그렇게 회초리가 싫다면

아예 회초리를 없애버리지 뭐."

엄마는 할아버지께서 오리나무를 깎아 만들어주신 회초리를, 무슨 훈장이나 되는 것 처럼 벽에 걸어놓고 있었답니다. 그런 엄마가 정말 회초리를 꺼냈어요. 그러더니 양 손으로 회초리 끝을 휘어 잡고 준이 눈 앞에 바짝 디밀었습니다. 마악 회초리가 격이려는 순간, 엄마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고개를 가웃거립니다.

"그런데... 준아,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기억 안나니? 매년 함부로 때려서도 안되고, 또 맞으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부모님의 회초리는 하늘같은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하셨잖아. 어때? 기억 나지?"

엄마는 이제 당당하게 준이를 바라봅니다. 준이 입이 쑥 튀어나옵니다.

"씨이! 사랑의 매도 아프기만 하더라!"

엄마가 쑥 나온 준이 입에 뽀뽀를 찍 합니다. 준이도 엄마 품에 얼굴을 비비면서 파고듭니다. 오리나무 회초리는 다시 우리 집 거실 벽 한가운데에 높이 걸렸답니다!



권민수 / 동화작가

- 1962년 서울 출생
- 1995년 제 4회 눈높이 아동문학상 장편동화 당선
- 작품 : 캄피



장기은/서울탑산초등학교 4학년



박재우/
서울공진초등학교 2학년

태권도와의 인연

강 미 숙/전 대한태권도협회 직원

84년 1월 나는 대한 태권도 협회에 입사하여 '89년 12월 결혼과 함께 퇴사했다.

그렇게 태권도 협회를 다니며 알게된 태권도에 대한 정신, 나라에 대한 애국심 또 여러가지 예절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여러 스포츠 보다 배울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결혼 후 내 아이에게 꼭 태권도를 가르치고 싶어 6살이된 아들 승윤이를 태권도장에 보내게 되었다.

승윤이는 태권도를 배우며, 조금은 위축돼 보이던 성격이 생기 있어지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태권도가 승윤이게 너무나 큰 즐거움이 되어서 그것이 더 기뻐다.

도장을 다니며 하루하루 태권도 기술이 늘어나고 큰 기합소리와 함께 엄마 아빠에게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는 활기찬 승윤이를 보면서 나는 태권도를 배우게 한 것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항상 어리광만 부리며 엄마에게 의존하려고만 하던 승윤이가 어느 날 부터 의젓해지고, 자기일은 스스로 해야한다고 말씀하신 사범님과의 약속을 잘 지켰다. 가끔 도장에 가서 태권도 수련하는 모습을 보면 국기에 대한 경례, 사범님께



승윤이의 태권도 수련 모습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집에서 하는 가정교육에는 애국심이나 타인에 대한 정중함을 가르치기 힘들었는데 도장에서 예의 바름을 가르쳐 주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태권도 협회를 다니며 알게된 태권도에 대한 믿음이 인연이 되어서 지금 승윤이는 7살 유치원생이 되어 빨간띠를 메고 1품 심사를 위해서 열심히 태권도 수련을 하고 있다.

이제 승윤이는 더욱 건강해 지

고 씩씩해져서 밖에서 놀면서도 다른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있는 아이가 되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나는 가슴이 환해짐을 느낀다. 앞으로도 꾸준히 승윤이가 태권도 수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이제 3개월된 승윤이 동생 승현이에게도 꼭 태권도를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언제나 씩씩하고 예의바른 아이들이 키우겠다고 다짐하며 태권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자랑스러운 태권도

유 순 현/하계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부터 태권도를 시작했던 나. 처음 태권도를 다니게 된 동기는 너무나도 소극적인 성격 때문이었다. 학교에서도 자발적으로 발표를 한 적은 아마 한번도 없을 것이다. 늘 통지표에는 소극적이라는 말들이 뒤따랐고 그런 내 성격을 변화 시키기위해 다니게 된 것 같다.

난생 처음 태권도 도장이라는 곳에 가서 "과연 내가 잘 다닐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앞섰다. 난 태권도에서도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우리 옆집에 사는 지민이라는 친구와 늘 붙어 다닐뿐이었다. 그런 성격을 고쳐 주기 위하여 관장님께서 서로 떼어 놓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과도 어울리라고 늘 말씀하셨지만 다른 친구들과 어울린다는 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생각보다 흥미 있었던 태권도. 1년이 지난 나는 1품 검사를 봐야 했다. 떨리는 마음. 난 무거운 발을 끌고 국기원에 갔다. 우글우글 사람들은 많고 아이들은 심사를 보고 있었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실수는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에 꼭 차 있었다. 드디어 내차례. 내 마음을 진정 시키고 최선을 다해 품새와 겨루기를 했다. 그리고 며칠후 합격을 했다



설레고 설레였던 2품 심사때 국기원에서의 나의 모습

는걸 알게되었다. 유급자를 벗어나 유단자가 되어보지 않고는 그 마음을 알 수 없을 것이다. 2품 심사때에도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1품보다 더 높은 2품 심사라서 그런 것 같았다. 하지만 2품 심사도 잘 마칠 수 있었다. 2품 심사가 얼마나 기억에 남는지 내 차례 번호까지 잊어 버리지 않고 있다. "1476" 번. 난 잊어버리지 못할 것이다. 3년이 다 된 지금은 내 삶에 일부분인 것처럼 태권도를 하루라도 하

지 않으면 허전하고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다.

관장님과 사범님께 밝게 인사도 못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했던 내가 지금은 그리 활발하지는 못하지만 소극적이라는 말들이 조금씩 사라진 것 같다. 태권도장에 다니던 초기에는 여자가 태권도를 배운다는 것이 좀 창피한 기분이 들어 고개도 못들고 이는 사람이라도 보면 도망가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태권도를 배운다는 것이 자랑스럽게만 여겨

진다. 길을 걸을 때에도 당당하게
아는 친구를 만나면 밝게 인사하
고 태권도를 배운다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한참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
에 오르나 마느냐로 시끄러웠을
때에는 난 제발 올랐으면 좋겠다
고 마음 속으로 빌었고 드디어 태
권도가 올림픽 종목에 올랐을 때
에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난 학교에
가자마자 크게 소리 쳤다. “야! 태
권도가 올림픽 종목에 올랐대!!”

하고 말이다. 교실에 앉아 있던 몇
몇 아이들은 날 이상하게 쳐다보
며 웃기도 했지만 난 기쁘기만 하
였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태권도. 우
리나라 어린이들을 비롯해 청소년
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운동이다.
태권도 덕에 소극적인 성격을 벗
어날 수 있었고 조금은 자신있게
사는 내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변
할 수 있게 된것은 평화체육관에
이춘우 관장님의 염려와 가르침,

신성훈 사범님의 자상함과 잘못된
점을 고쳐 주시려 했던 그 말씀들
덕분이다.

난 지금 태권도를 아주 잘 하지
는 못하지만 더욱 발전한 나를 보
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말하고 싶
다.

태권도가 숨쉬고 있는 한 우리
조국은 아름다울 것이라고……

태권도 가족이 함께 만드는 태권도 잡지

태권도 가족 마당에서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태권도와 관련된 글이나 사진, 그림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되신 분에게는 1년간 태권도지를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88-2번지 편익시설 A-3동
대한태권도협회 홍보담당(우 138-151)
- TEL : (02) 420-4271~3
- FAX : (02) 420-4274
- 기타 : 보내시는 분의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수련기

태권도, 태권도인들이 좋다.



Alana E. Conley/1961년 미국 버팔로시 출생

주한미군시절 태권도에 입문하여 그 매력에 빠지게된 그녀는 훌륭한 시설을 갖춘 체육관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97년 봄 3단 승단심사를 볼 예정이라는 그녀의 태권도 이야기를 들어보자.

〈편집자주〉

나는 1988~1990년까지 미육군 소위로 한국에 머물렀다.

1994년 내가 대위였을때 휴가기간 동안 태권도 수련을 할 목적으로 한국에 왔을 때 기분은 마치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었다. 1995년 가을에는 장래의 진로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꿈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얼마전에 군에서 전역해서 현재 동삼체육관에서 훈련하고 있으며 연세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 Level I을 공부하고 있다.

9월에는 아시아학과에 등록해서 공부할 예정이다.

나는 95년과 96년 전미 태권도 대회와 주한미대사직 대회에 참가했다. 나는 이 두 대회를 통해 배운 것이 많다.

매 경기마다 나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 내가 지금 정확하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더 배워야 하는가? 내 정신무장의 상태는 완전한 것인가? 태권도나 평

상 훈련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가? 나는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곤 생각한다.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경기력 향상의 기회로 삼자."

나는 미군 태권도팀 코치 Bobby Clayton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서 태권도에 입문했다. 이제 겨루기도 한다.

1993년 11월에 한달간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 Clayton코치와 한국에 왔을 때, 한달간의 고통스런 훈련이 끝나고 태권도의 맛을 조금 본 후 나는 태권도에 전념하기로 마음먹었다. 동삼체육관 임신자 관장님 같은 내게 태권도를 지도해주시실 분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임신자 사범의 지도방법은 강한 훈련 그 자체였다. 언젠가 1주간의 휴가기간 동안 하루에 2~3차례의 훈련을 하고 있었을 때였다. 그 주말 경에 나는 무척 지쳐있었다.

아침 훈련 마치고 인근대학교에 가서 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겨루기를 했다. 우리가 동삼체육관에 돌아왔을때 나는 그날 훈련이 끝날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임사범님은 "도복을 입으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훈련을 체육관에서 끝마쳐야만 했다. 그 훈련을 마치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내 두발은 경련을 일으켰다.

그녀와의 훈련은 아주 힘들며, 다양하고 움직임이 많다. 그녀는 아주 적극적이고 분명한 성격인데 이러한 점은 그녀의 학생같이 깔끔한 외모와 예절에 잘 나타나있다.

Clayton코치 역시 강한 훈련을 시킨다. 그는 인내심이 있고 태권도에 대한 철학적 깊이까지 겸비했다.

금년에 시행된 미군 태권도 수련단 훈련에서 그는 나에게 지독하게 강한 훈련을 시켰고 훈련이 끝난 후에는 지쳐 쓰러질 지경이

었다.

그러나 나는 내자신이 아주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한 분들은 모두 나의 친한 친구이자 스승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분들과 태권도 선배들을 인간적으로 존경한다. 각자가 자신들의 독특한 태권도 지도방법을 가졌으며 이런 것들은 태권도의 앞날을 밝게 해줄 것이다.

처음 호구(기슴보호대)를 입었을 때 나는 웃지 못할 경험을 하나 했다. 그 당시 나는 한 친구와 함께 훈련하고 있었는데 그는 나에게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였다. 그는 찰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나는 팔을 내린 채로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 그는 내게 물었다.

“준비되었니” 나는 대답했다. “그래 준비 됐어” 그러자 그는 똑같은 질문을 했고 나는 질문의 진의도 모르는채 똑같은 대답을 했다.

그러자 그는 나를 세게 찔고, 나는 고통으로 몸을 구부린채 숨도 쉴 수 없었다. 나는 그 일 이후

로 팔은 절대로 내려서는 안되며 가슴을 무방비 상태로 열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운 좋게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황은숙과 이선희와 함께 훈련할 기회가 있었다. 이들은 내가 만났던 사람가운데 가장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훈련이 끝나자마자 체육관을 청소하곤 했다.

그들의 겸손한 모습을 본 후에 나는 그들을 존경하게 되었다.

내가 태권도에서 배운 최고의 경험은 우정이다.

태권도 수련생들이 나를 만나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 그 말은 우리를 아주 친숙하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많은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들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대부분의 한국 여자들은 나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나의 잘못된 생각이었다. 경험으로 나는 그들이 결코 나약하지 않으며 태권도를 하는

몇몇 여자 친구들은 아주 강인한 심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또 하나의 재미있는 일은 내가 35세의 나이에도 열심히 훈련한다고 놀라워하는 젊은 선수들의 반응이다. 나는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으며 지금도 그렇다. 군복무시절에 나는 늘 나보다 어린 사람들과 함께 달렸고, 대개의 경우 그들 보다도 훨씬 더 강인했다. 그래서 난 나이가 태권도 수련에 장애 요소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보통 나이든 사람들도 퇴근 후어나 또는 주말마다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태권도는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나는 육체가 건강한 한 열심히 훈련하고 시합할 계획이다.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다는 사실은 매우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2천년 호주 올림픽에서 어린 동료들이 태권도 경기를 하는 모습을 하루 빨리 보고 싶다.



왼쪽부터 Alana, 임신자 사범, 이성미

아직도 몰라주다니

정 순 금/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내가 태권도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것은 4학년이던 1994년 여름이었다. 대전의 신도시인 둔산지구로 이사 와서 갑자기 집과 학교 등 모든 환경이 바뀌었을 때, '운동을 배우면 자신감이 생기고, 여자로서 호신술에도 좋을 것'이라는 엄마의 권유로 우리 3남매가 함께 시작한 것이다.

우리 3남매가 등록을 할 때, 마침 수업 중이어서 곁에는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허리띠를 묶은 수련생들이 가장자리에 앉아서 운동을 배우는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94년 136번이라고 등록을 한 뒤, 하얀도복에 흰띠를 묶고 여러 수련생들에게 소개되었다. 기합을 넣는 것, 발차기 등이 모든 것들이 그때는 왜 그렇게 어렵고, 부끄럽기만 했던지, 또 실수를 하면 어쩔 줄 몰라했던 일들이 이제는 우습기까지 하다.

날마다 도장에 다니면서 또래들도 사귀고, 또 도장 생활에도 점점 익숙해졌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날에는 심사위원님 앞에서 한달 동안 배운 것을 뽐내며, 심사를 받고, 점점 급이 높아지면서 띠도 갈아 차게 되어 이제 1품이 되었다.

태권도의 '태'란 태풍처럼 거세고 힘있게 뛰어치는 발을 뜻하며,



태권도의 '권'은 주먹을 의미하고, 태권도의 '도'는 인간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의미한다고 배운 뒤부터 나는 언제나 운동을 할 때면 이 말을 되새겨 본다. 물론 나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아니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처음으로 대전 충무체육관으로 '품 심사'를 보러 간 것이다.

'지금 실력으로는 어렵겠다'며, 사범님께 매도 맞고, 토요일에도 도복이 물수건이 되도록 연습을 하였다. 그렇게 연습을 한 뒤, 대전 시내의 모든 도장의 수련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실력을 겨루고, 마침내 1품심사에 합격해서 자랑스런 품증을 받았을 때는 떨

듯이 기뻐다. 내 동생 두명도 모두 1품이 되고.

태권도를 시작한지 한 1년쯤 지났을 때에는 운동이 조금씩 실증 나기도 했지만, 품증을 받은 뒤부터는 그렇지 않았다. 처음에는 위험한 경우를 만났을 때를 대비할 목적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몸을 유연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체육시간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준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태권도를 배운 뒤 내가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말과 행동이다. 태권도장에서 귀가 따갑도록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은 덕을 우선으로 삼고, 참된 행동과 말씨를 쓴다'는 것인데, 나는 어느새 담임 선생님은 물론 다른 반 선생님과 아파트 경비실 아저씨들로부터도 칭찬을 듣게 된 것이다.

운동을 하면서 언제나 예의 바르고 고운 말씨와 마음씨를 갖게 되는 것이 태권도 말고 또 있을까?

아직 태권도를 배운지 2년이 채 안된 어리석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나는 태권도가 운동중에서 제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내 생각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도 크다. 태권도 만세!

“졸업할 때에는 모두 유단자”

제주공업고등학교

이 학교는 '학원 강석범 선생의 교육 입국의 윤리를 받들어 자주성과 도덕성 및 창조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건학이념으로 1995년도에 개교 했다.

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꿈이 있는 어린 학생들과 항상 학교와 학생을 생각하는 선생님들의 힘으로 학교는 차츰 터를 잡아 뿌리를 내리고 있다. 특색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장주열 교장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이 학교는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전 학생이 졸업 전까지 태권도 유단자

가 되는 것이라 하겠다.

전교생 750여명 중에서 강명덕, 한용식 선생의 지도 결과 현재까지 유단자 수가 180명 정도이다. 이와 같은 학교의 특색으로 5월에 있었던 도민체전의 개막식에서 태권도 매스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루게 되었고, 매스게임으로 인하여 이 학교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태권도 활성화의 방안으로 여자 태권도부가 한용식 교사의 건의에 따라 창설되었고 그 동안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부모들의 열성적인 후원으로 이번 도민체전에서 1위를 하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다.

이 학교의 또 하나의 특색은 선

생님들과 학생들 간의 친분이 타 학교에 비해 두터운 점이다.

처음 교문을 들어섰을 때, 학교를 둘러싼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어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의 모습을 모두 볼 수 있는 이곳은 자연을 늘 가까이 하고 있어 학생들 마음이 운운하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학교주변 자연환경이 어느 학교보다도 깨끗하고 삼무정신에 뜻을 두어 교문이 없는 것도 자랑거리이다.

이런 좋은 전통을 뿌리 내려 날로 발전하여 태권도 명문고교로 부상하는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

(제주 공철국 편집위원)



전교생이 도민체전 개막식에서 태권도 매스게임을 보여주었다.

전국무대 돌풍 예고 경기도 구운중학교

조 과 효의 도시 수원에 태권도부의 우렁찬 함성이 끊임 없이 메아리치고 있는 학교가 있다.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위치한 구운중학교는 1990년 개교 이래 2,785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1994년에 부임한 정재화 교장은 태권도가 학생들의 정신수양과 예의를 갖추게 하는데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으로 태권도부를 육성하고 있다.

태권도부가 정식으로 팀의 구성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불과 1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전국대회를 노크할 수 있었던 것은 심덕진 전 감독교사와 현 조연범

감독교사의 태권도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코치와 선수가 일심동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태권도부를 지도하고 있는 정윤기 코치(구운체육관 관장)는 오랜 선수 활동과 지도력을 바탕으로 지금의 구운중학교를 태권도 명문으로 성장시켰다.

구운중학교 태권도 유망주는 3학년 정근호, 손준섭, 황희영, 백재현, 2학년 손준길 1학년 장성철, 강영호, 김진복, 김도형, 오선택, 윤석훈, 이용훈, 박상화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 선수는 각종 대회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내일의 주역이다.

그동안 구운중학교는 1995년

제7회 경기도 협회 장기 손준섭(핀), 정근호(플라이) 준우승, 경기도 20회 학생체육대회 정근호(플라이) 3위, 95년 경기도 소년체전 선발전 정근호(밴텀) 우승을 차지하고 수원시 협회장기 및 수원시 교육감기는 종합준우승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96년도 전국 중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장성철(핀) 3위 정근호(페더)가 2위를 하여 많은 이들로부터 격려와 관심 어린 사랑을 받았다.

구운중학교 태권도부 꿈나무들은 머지않아 전국에 구운중학교 선풍을 예고하며 지금도 한방울의 땀이 승리의 길이라며 땀방울을 쏟고 있다. (경기 서명기 편집위원)



제7회 수원시 협회장기 정말 태권도 대회에서 중등부 종합 2위를 차지한 구운중학교 태권도부

“태권도가 있는 한 그곳에 항상 있겠다”

’96우수도장상 수상한 전주 덕진 체육관

’97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는 전주 공설운동장 부근에 자리한 덕진 체육관.

이 도장의 관장인 최동열(공인 7단)씨는 해병대 복무시절부터 선수생활을 시작함으로써 태권도에의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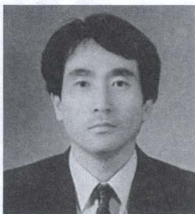
제대후 1975년부터 덕진체육관을 개관, 운영하기 시작했고 82년부터는 덕진초등학교 태권도부를 지도하고 있는 그는 85년 덕진초등부 선수들이 제1회 전북도지사배, 제22회 회장기 우승을 따냈고, 85년부터 89년까지 지도했던 전주공고 선수들이 89년도 제 26회 회장기 우승의 영예를 안게 하는데 건인자 역할을 했다.

80년대 초부터 전북협회 심판이사, 심사이사를 거쳐 현재 전무이사를 맡고 있으며 협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협회장 표창장을 수상하는 등 각종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 이런 경력을 인정받아 전북을 대표하여 대한태권도협회가 선정하는 '96 우수도장상을 받기도 했다.

최관장은 수련생들에게 태권도는 수련을 통해 심신을 수양하며 참다운 인간이 되도록 하는 무도라는 점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 제자들이 사회에서 열심히 생활하면



제1회 도지사배 우승기념



관장 최동열

서 태권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내는 것을 볼 때면 가슴이 뻐뚱하다고.

지금까지 2000여명의 유단자들

배출해 냈고 현재 120여명의 수련생들이 수련에 열중하고 있다고 한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전에 스파르타식의 훈련을 받은 세대여서인지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도를 위해서 스스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태권도가 있는 한 그곳에 항상 있겠다는 최관장의 뜻깊은 이야기가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한 마음이기를...

〈전북 이윤영 편집위원〉

전국대회 휩쓸며 명문 부상

대구 신암중 태권도팀

신 암중(교장 정윤권) 태권도팀이 명문팀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금까지 대구 중등부 태권도는 경일을 비롯 칠곡, 오성중을 중심으로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해 왔으나 지난 제25회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한 대구대표 11명 중 신암중이 6체급을 휩쓸며 판도가 바뀌었다. 신암중은 제25회 전국소년체전 본선에서 라이트헤비급 김민석(1년)이 동메달을 따냈는데 이는 대구시가 태권도

종목에서 획득한 유일한 메달로 기록됐다. 신암중은 전국무대를 휩쓸던 아양초등 출신 6명을 스카우트해 지난해 3월 박시현 감독과 장두원 코치(충효도장 관장)를 코칭 스태프로 선수 20명으로 구성됐다. 데뷔 첫 무대인 96 전국중고연맹전 편급에서 이영목(2년)이 2위, 96전국종별선수권에서 노형상(3년)이 편급 3위에 오르며 전국무대에 우뚝 섰다. 선수들의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수업전 1시간,

수업 후 3시간을 체력, 기술훈련과 정신교육을 병행하며 얻은 결실이라 더욱 값진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선수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있는 장두원 코치는 "현재 전국 중등부 랭킹1위 조바로(아양초 6년)가 입학하는 내년에는 이영목, 김민석과 함께 중고연맹전 및 문화체육부장관기 중에서 한 대회를 석권하겠다"고 다짐했다.



▲소년체전 대구대표 11명 중 6명이 신암중 태권도팀 소속이었다. 대구의 명문팀으로서 뿐만 아니라 전국무대의 태권도 최강팀을 노리는 신암중 태권도팀의 패기에 찬 모습.

「조던」의 혀

글·하창수
그림·이향원



조 과장스럽게 얘기해서, 운동
이라면 이 세상에 태권도
밖에 없는 줄 아는 김달중 씨. 대
(大) 세통전자, 그것도 알짜 부서

인 기획실 실장직을 삼년씩이나
튼튼하게 수행해내고 있는 그 달
중 씨가 어제 저녁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는데, 알고보니 그의 유일

한 약점인 바로 <운동> 때문이었던
다. 아니다. 어쩌면 운동 때문이
아니라 이제 겨우 서른 일곱 나이
에 저만치 물러나버린 그 쉬어터

진 〈구세대〉 탓인지 모른다. 지난 봄, 신입사원 환영파티 때도 그랬지 않은가. 〈김건모〉의 그 까무잡잡한 피부를 이제 겨우 눈치챘는데, 〈패닉〉을 어찌 알았겠는가.

어제도 그런 식이었다. 호랑이를 피하니 여우가 나타났다고, 김건모를 겨우겨우, 어찌어찌 알아냈는데, 난데없이 패닉이라는 고약한 이름의 가수가 나타나서 달중 씨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듯, 어제 저녁 모처럼 일찍 집으로 들어간 그에게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는 그의 아들 민국이가 슬슬 다가오더니,

『아빠, 아빠 조던이야 로드맨이야?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애?』

하고 묻는 거였다. 순간 달중 씨는 오금이 저렸고, 살갗에 소름이 뻘뻘히 차올랐다.

〈이크, 이젠 김건모도 갔구나, 패닉이란 녀석들도 갔구나, 현대 왜 이름들을 이 따위로 짓지? 외국 말로 짓는 것까지야 좋다 이거야. 패티 김, 바니걸스라면 적어도 알 아들을 순 있잖아. 조던? 갈매기 조나단의 사촌인가? 로드맨은 또 뭐야. 레인맨을 민국이 녀석이 잘못 안 건 아닌가? 허… 참.〉

속으로 중얼거리는데 민국이 녀석의 눈빛이 반짝반짝, 달중 씨에게 매달려서 빛나고 있었다. 달중 씨는 난감했다. 조던이니 로드맨이니 하는 작가들이 저 물건너 사는 미국인이라는 사실, 더구나 그들이 농구스타라는 사실을 알 리 없는 달중 씨는 진땀을 흘리며 이 난국(?)을 어떻게 피해갈까 궁리 에 궁리를 거듭했다. 집안에 힌트를 줄 사람이라곤 아내 밖에 없는데, 그녀마저 조리대 앞에 꼼짝없

이 불박혀 오랫동안 일찍 귀가한 그를 위해 열심히 오징어 덮밥을 준비하고 있었다.

『큘큘… 그 말이지…』

달중 씨가 뻔히 쳐다보는 아들의 눈을 슬쩍 피하는데, 나뻘쳐든 민국이 고개를 숙 내밀며 또 캐물었다.

『수퍼소닉스도 불스한텐 꼼짝못해, 그치?』

〈아니, 이젠 또 뭐냐… 수퍼소닉스? 불스? 젠장할…〉

달중 씨는 괜히 애꿎은 손매듭을 툭툭 붙질렀다.

〈소닉(SONIC)이라면 음속(音速), 그렇다면 수퍼소닉은 초음속이라는 말인데… 그리고 불스는 황소? 오후, 초음속이 황소한테 꼼작을 못한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괴상망측한 암호풀이냐!〉

달중 씨는 미로를 헤매다가 지쳐버린 가없는 실험생쥐의 꼴이 되어갔다. 아니면 자꾸만 가라앉는 늪에 빠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일찍 귀가한 아빠를 불리고 제간엔 대화란 걸 시도해보려는 아들의 가상함을 꺾을 마음은 추호에도 없었다. 달중 씨는 두 개의 갈림길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솔직히 자신의 무지를 시인하고 민국이에게 구원을 요청하느냐, 아니면 어떻게든 버티면서 창피를 면할 방도를 구할 것이냐. 그때 달중 씨는 후자를 택했다. 지난 봄의 그 〈패닉사건〉이 작용한 탓이리라.

『으응, 그게 말이야… 아무래도 황소, 그러니까 불스가 성질이 고약하니까 말이야, 그렇지.』

민국이는 어개를 서양사람처럼 으쓱했다.

『그런데 아빠, 우리반 애들, 조던 꺼 다 갖고 있거든? 나도 한 장 사주면 안돼요?』

『조던 꺼…?』

민국이 고개를 주억거렸다. 달중 씨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거… 얼마나 하는데?』

달중 씨는 그렇게 물었지만 민국이 녀석이 원하는 게 마이클 조던의 수집용 사진이라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다.

『만원짜리면 돼요. 더 비싼 것도 있지만.』

여전히 뒤가 찔찔한 달중 씨가 제법 머리를 굴렸다.

『그거 말이야, 조던 꺼, 그거… 아빠가 직접 사줄까?』

『아빠가?』

민국이 고개를 가웃거리다가 씩 웃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달중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거, 어디가면 살… 수 있어?』

『학교 앞 문방구점.』

『으응… 문구사?』

『그런데 아빠, 꼭 허 내밀고 있는 걸로 사야 돼요?』

『뭐? 허?』

『그럼, 조던의 무기는 바로 그 허한 말이에요.』

그때 달중 씨는 한 가지 힌트를 얻은 것 같았다. 조던의 무기가 허라는 민국이의 말을 미루어, 조던이라는 건 틀림없이 요즘 한창 아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신종 로봇트일 것이었다. 그 조던이라는 로봇트는 보통의 장난감 로봇트가 팔뚝이나 가슴에 무기를 달고 있는 데 반해 입속에다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입을 벌리면 헛바닥이 쑥 튀어나와서 로켓트를 발사하는 로봇트 조던! 그렇

다면 로드맨이니 수퍼소닉스, 그리고 볼스라는 것도 모두 장난감 로봇인 게 틀림이 없었다. 그렇게 상상을 시작한 김달중 씨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철철 넘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알았어, 아빠가 저녁 먹고 당장 나가서 사가지고 올게! 요 앞 아파트 상가 문구사에도 있을 거야, 그렇지?』

『우와, 우리 아빠 멋지다.』

민국이 녀석은 입꼬리가 귀밀까지 쭉 찢어지도록 활짝 웃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프라이팬에 오징어를 들들 볶고 있던 달중 씨의 아내가 슬며시 고개를 돌리며 잔잔히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어제 저녁, 달중 씨는 오징어 덮밥을 두 그릇이나 비웠다. 『기가막하다!』라는 소리를 연발하며 밥그릇을 비우는 남편을 좀 의아하게 바라보기는 했지만 달중 씨의 아내의 기분이 썩 좋았다. 물론 그녀는 달중 씨가 그때까지도 조던이 신종 장난감 로봇인줄만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달중 씨는 지갑에서 만원짜리 두 장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섰다. 조던이 만원이 라고 했으니, 그는 내심 로드맨인가 하는 로봇까지도 민국이 녀석에게 사다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싶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담배 한 개피를 맛나게 피우면서 이윽히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초등학교 4학년이나 된 녀석이 아직도 로봇 따위를 좋아한다는 게 좀 뭇했지만, 어쩔라 싶었다.

달중 씨는 아파트 상가 문구사

의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며 주인인 듯한 남자에게 썩 웃으며 말했다.

『조던 로봇트 있죠? 그거 하나 주슈.』

『예? 무슨 로봇트요?』

『조던! 그 헛바닥에 무기를 달고 있는 로봇트 말이요.』

문구사 주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달중 씨의 얼굴을 뻔히 쳐다보았다. 순간 달중 씨는 뭔가 일이 잘못되어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풀 꺾여 있었다.

『그… 있잖아요… 로드맨인가 하는 로봇트보다 센 놈… 그제 조던 아닌가…? 우리 아들 녀석이 분명히 그랬는데…?』

그제서야 문구사 주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아, 마이클 조던 말이죠? 허에 무기를 달고 있다는 거, 그 멋진 농담이군요.』

〈이런 제기랄, 농담이라니…〉

달중 씨는 문구사 주인의 웃는 낯을 딱딱하게 굳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두 손을 주머니에 쿡 찔렀다. 문구사 주인은 로봇트가 잔뜩 진열된 곳과는 반대편에 있는 유리장 쪽으로 걸어가더니 겨우 손바닥 반 크기만한 사진 하나를 꺼내 달중 씨 앞으로 쏙 내미는 거였다. 비닐에 싸인 그 사진에는 머리를 뽀뽀 민 흑인하나가 오른손을 번쩍 치켜들고 있는 하늘로 꺾충 뛰어올라가 있는 모습이 찍혀져 있었다. 그건 로봇트가 아닌 분명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비닐 껍데기에는 일금 만원짜리 가격표가 선명하게 붙여져 있었다.

『여기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

『아…!』

달중 씨는 입을 딱 벌린 채 다물 줄을 몰랐다. 이거였던 말인가… 이 조막만한 사진이… 달중 씨는 기가막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달중 씨는 유리 장식창 위에 놓인 마이클 조던의 사진을 증오에 찬 눈길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조던이란 작자의 입밖으로 길고 뾰족한 헛바닥이 쑥 튀어어나와 있는 것을, 그는 똑똑히 보았다. 마이클 조던의 그 헛바닥은 마치 〈엣 먹어라!〉하고 조롱하는 것 같았다. 달중 씨는 한참 뒤에야 주머니에서 만원짜리 지폐 한장을 꺼내 문구사 주인에게 건네주고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다.

하창수(河昌秀)/작가

- 1960년 포항 출생
- 1987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으로 등단
- 1991년 『한국일보 문학상』 수상
- 중편편집 <지금부터 시작인 이야기> <수선화를 꺾다>
- 장편소설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 <허무충> 등

태권가족

*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이향원













다음날 새벽



문 상



태권도는 수련을 통해 인격을 수양하고 인간다운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무도이다.

우리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우리말을 바르고 아름답
게 씀으로써 예의바른 태권도 가족이 되어야겠다.

게재된 원고는 조선일보사 출판국에서 발행한 『우리말
의 예절』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일간지에서 가장 독자가 많은 지면 가운데 하나가
부음란이다. 경조사야말로 한국인의 일상 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가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가 상을 입었을 때는 다른 일을
제쳐 놓고라도 조의를 표해야 사람의 도리를 했다는
생각이 한국인의 표준 감각이다. 그러나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상갓집에서 상제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몰라 우물쭈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요즘의 젊은 상제들은 문상객에게 화투판을 마련
해 주거나 가까운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 끼여서 술을
한두 잔 나누면서 담소를 나누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
하지 않는다. 따라서 격식을 갖춘 전통 예절의 어법
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문상의 자리에서 해야 할 말과 필요한 말들
은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문상에서의

인사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가에서는 가능한 한 말을 삼가야 한다는 풍속과 문상의 예법을 어색하게만 느끼는 젊은 층의 태도에 있다.

상가에 가서 죽은 이에게 예를 올리고 유족을 위로하는 것을 보통 '문상(問喪)'이라 하고 '조문(弔問)', '조상(弔喪)'이라고도 한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말들을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다.

그러나 원래는 이들이 서로 다르게 쓰이던 말이었다. '조상(弔喪)'은 '죽은 이에게 예를 표하는 것'이고, '조문(弔問)'은 상주에게 인사하는 것을 일컫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조상(弔喪)'이나 '조문(弔問)'은 부모 상 또는 승중 상(承重喪)(손자가 상주가 된 경우), 남편 상에만 쓸 수 있는 말이다. 아내 상, 형제 상, 자녀 상, 그리고 승중 상(承重喪)이 아닌 조부모 상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하는 것은 '조위(弔慰)' 또는 '위문(慰問)'으로 달리 지칭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들을 특별히 구분하여 말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리고 모든 경우를 '문상(問喪)'이라는 말로 대신해 쓸 수 있다.

문상(問喪)인사말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가서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 망설인다. 실제 문상의 말은 문상객과 상주의 나이, 평소의 친소 관계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문상을 가서 고인에게 재배하고, 상주에게 절한 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러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예의에 맞다고 하였다. 상을 당한 사람을 가장 극진히 위로해야 할 자리이지만, 그 어떤 말도 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아무 말도 안하는 것이 더욱 더 깊은 조의를 표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굳이 말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또는 '뒤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가 좋다.

물론 문상 인사말은 상황이나 문상객과 상주의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러한 특수한 상황까지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상을

가서 '호상(好喪)입니다.'라는 말은 혹 문상객끼리라면 몰라도, 상주에게는 써서는 안 될 말이다. 아무리 돌아가신 분이 천수(天壽)를 다했더라도 잘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상주에 대한 예가 아니다.

문상을 하는 사람이 말로써 문상하지 않는 것이 가장 모범이듯이, 문상을 받는 상주 역시 문상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주는 죄인이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굳이 말을 한다면 '고맙습니다.' 또는 '드릴(올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 문상을 와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면 된다. '망극 하옵니다.'라든지 '시탕(侍湯) 한 번 제대로 못하여 드린 것이 그저 죄스럽습니다.'하는 등 요즘 잘 쓰지도 않는 말로 장황하게 말을 늘어 놓는 것은 상주로서의 예가 아니라는 것이다.

'망극(罔極)'은 부모 상(父母喪)에만

상주에 대한 문상객의 말을 보면 "무어라 위로의 말씀에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등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반형 어법이다. 그 외에 "상사 말씀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상사 말씀이 웬 말씀입니까?" "상사란 웬 말이요?"와 "얼마나 망극하오?" 등의 위로의 말이 있다. 여기서 망극(罔極)이란 말은 부모 상에만 쓰인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정중하고 딱딱한 어투의 위로 말이 상주의 쓰라린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를 비롯 "참으로 훌륭한 분이셨는데", "참으로 뜻 밖의 일이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말고 뒷일을 잘 보살피십시오." 등을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문할 때 덧붙일 수 있는 말도 많다. 우선 "장지는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발인은 언제입니까?", "춘추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등이 적합한 말이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이 장수를 누리시다가 별 탈 없이 운명하셨다 해서 흔히들 "호상입니다."라는 것은 결례라는 지적이 많다.

상처(喪妻)하면 '고분지통(叩盆之痛)'

부모 상 외에 배우자를 잃거나 형제를 잃은 상주에게는 별도의 위로인사가 필요하다.

남편 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천붕지통(天崩之痛)이 오죽하시겠습니까?” 라거나 “천봉을 무엇이라 여쭙리까?” 등이 전통적인 어법이다. 상처한 사람에게는 “고분지통(叩盆之痛)이 오죽하오리까?” 등이 있는데, 배우자를 잃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라는 의미의 말을 건네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제 상을 당한 경우에는 “할반지통(割半之痛)이 오죽 하오리까?”, “복제 말씀 여쭙 말씀이 없습니다.”, “중씨(仲氏) 혹은 계씨(季氏), 백씨(伯氏)상을 당하여 얼마나 애통(혹은 비감)하시겠습니까?” 등이 예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다.

자녀 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얼마나 상심이 되시겠습니까?”, “참척(慘戚)을 보시니 오죽이나 비감하십니까?”, 참척(慘戚)을 보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참경(慘景)을 당하시어 얼마나 비통하십니까?” 등의 위로를 건넬 수 있다.

조장(弔狀)

부친(또는 모친)께서 별세하셨다니
얼마나 슬프십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곧 가서 조문치
못하고 서면으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년 ○월 ○일

○○○ 재배

○○○ 귀하

조장(弔狀)과 조전(弔電)

불가피한 사정으로 문상을 갈 수 없을 때에는 편지나 전보를 보낸다. 이전에는 부고(訃告)를 냈는데도 문상을 오지 않았거나 적어도 편지나 전보조차 보내 오지 않은 사람은 후에 만나도 대면을 하지 않았다 한다. 요즘은 조장보다는 전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 엄서로 조장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 조장은 굳이 어려운 한문으로 쓸 것이 아니라 쉬운 우리말로 쓰는 것이 좋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 다음에 ‘근조(근조)’라고 쓰기도 하나 ‘근조(謹弔)’라는 말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를 뜻하는데 앞에 이 말이 있으므로 굳이 다시 쓰지 않고 ‘재배(再拜)’라고 쓴다.

조위금 봉투 · 단자

조위금 봉투에는 초상의 경우 ‘부의(賻儀)’가 가장 일반적이며 ‘근조(謹弔)’라고 쓰기도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처럼 한글로 쓰자는 주장도 있으나 단자에는 모르되 봉투에 문장으로 쓰는 것이 어색하므로 쓰지 않는다.

소상(小祥)이나 대상(大祥)의 경우에도 부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봉투에 ‘전의(奠儀)’ 또는 ‘향촉대(香燭代)’라고 쓰면 된다. 단자는 부조하는 물품을 적은 것을 가리킨다. 요즘은 이 단자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단자를 쓰지 않고 봉투만 쓰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단자는 흰 종이에 쓰는데 단자를 접을 때 가능하면 조의 문구나 이름이 접히지 않도록 한다. 부조하는 물품이 돈일 경우에는 단자에 ‘금 ○○원’이라 쓴다. 영수증을 뜻하여 ‘일금 ○○원 정’으로 쓰지 않도록 한다. 부조를 돈이 아니라 광목으로 할 때는 ‘금 ○○원 대신에 ‘광목 ○펠’, 종이라면 ‘백지 ○○권’ 하는 식으로 쓴다. 부조하는 사람의 이름 뒤에는 아무 것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쓴다면 ‘근정(謹呈)’이라고 쓴다. ○○택(宅) 호상소 입납(護喪所 入納)이나 ○○선생 대 호상소 귀중과 같은 것을 쓰기도 하는데 요즘은 호상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말을 쓰지 않아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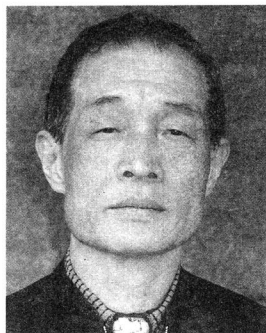


태권도 해외보급 30년 미국 권재화씨

“경기위주 한계… 정신 가장 중요”

30년간 오직 태권도의 해외전파를 위해 애쓴 한 무도인이 고국을 찾았다.

권재화(60·미국 뉴욕시 맨해튼 거주)씨. 태권도의 육체는 ‘정신’이란 지론을 편 권씨는 27일 출국에 앞서 태권도에 대한 지식의 철학과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권씨가 30년간 보급해온 무도는 일명 ‘전통 태권도’. 그는 격파·대련·예의가 삼위일체를 이룰 때 태권도의 정신이 살아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격파는 인내심을 기르며 대련은 순간적인 판단력을 요구한다. 예의는 경건과 겸손으로 이어진다. 권씨는 국내태권도가 더욱 ‘한국적’인 것으로 되기를 요구한다. 경기위주에 국한된 태권도는 분명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권씨는 경기외에 형과 품새, 격파 등에 대한 지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태권도의 각 동작마다 ‘공격과 방어’의 팽팽한 긴장감이 숨어있고 이



권재화 씨

를 통해 정신과 육체가 일치되는 심오한 경지에 들어선다는 것이 권씨의 설명이다.

아직도 수련생들에게 ‘역수도’(엄지쪽 손날을 이용한 격파)로 차돌깨기 시범을 보일 정도의 강인함을 지닌 권씨는 공중에 뜬 채 한바퀴 반을 회전하며 목표물을 두차례 가격하는 ‘540도 공중돌기’를 개발하기도 했다.

지난 65년 국기태권도 친선사절단(5명)에 선발돼 한달간 가진 중동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순회 공연을 계기로 66년 초 독일 뮌헨 경찰학교 사범(칼비드마이어)의 초청을 받아 독일에 건너간 권씨는 73년 2월 미국으로 옮기기까지 독일에 44개의 도장을 차려 보급에 앞장섰다. 미국엔 뉴욕·플로리다에 각각 4개를 포함해 모두 9개의 도장을 갖고 있다. 수련생들로 부터 그랜드 마스터로 칭송되는 권씨는 현재 ‘블랙벨트 센터’ 대표이며 지난해 10월 14일엔 뮌헨에서 ‘태권도 해외보급 3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부산 대신초등학교 시절인 11살때 태권도를 시작해 동래고·동아대를 졸업한뒤 한창때인 25살엔 부산·대전·창령 등에서 당수 소롤 뽑는 시범을 직접 선보이기도 했다.

〈한겨레신문 1996년 3월 29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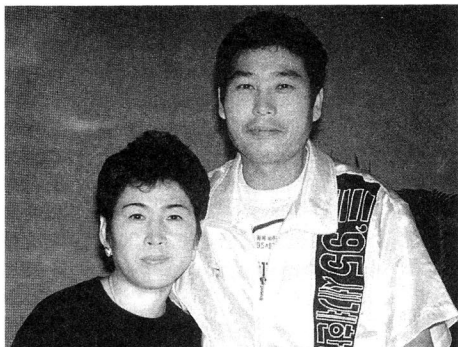


브라질 상파울루 이신화 · 송병순 태권도 사범 부부

브라질 상파울루의 이신화(41세 7단)과 송병순(41세 6단) 부부사범이 96월드컵태권도대회가 열린 브라질에서 열심히 경기 뒷바라지를 해 인상적이었다. 송사범은 1978년 23세때 협회 파견 사범으로 브라질 리오에 와 태권도 보급에 열정을 바쳤고 이사범은 1980년 3월에 파견되어 태권도 보급에 심혈을 기울였다.

현 부회장인 김순배 관장 슬하에서 운동을 한 두 사람이 25시간의 비행시간을 요하는 브라질에서 만났으니 자연스럽게 사랑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송사범이 브라질에 오게된 동기는 웃음을 터뜨리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었다. 보기도 싫은 남자가 결혼을 하자고 끈질기게 쫓아다녔고, 또 더 이상 여자 말괄량이가



이신화 · 송병순 부부

되기 전에 시집을 보내겠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한국에 있으면서 거역할 수 없어 브라질로 도피겸 사범으로 왔었다.

그때 평생 시집이란걸 안가기로 했는데 이사범을 만나 32살에 결혼하여 지금은 아들 정주(13세), 딸 나리(11세), 린다(6세)를 둔 1남2녀의 엄마가 됐다. 송사범은 브라질 여자 비밀경찰 지도사범으로 근무하며 체육관을 운영했고

이사범은 경찰 특수강력반 태권도 지도를 해 부부사범이 나서면 경찰관계는 후리패스(free pass)란다.

이 부부는 교포사회에서 경찰관계 일은 모두 맡아 처리 할만큼 유명인사라고 한다. 송사범에게 하고 싶은 일이 무어나고 했더니 남편 이사범이 7단인데 부인이 남편과 똑같이 7단이면 안

된다고 승단을 못하게 해 저주기로 했으며 노란 옷 입고 국제대회에 심판 보는 일이고 다음엔 7단에 승단하는 일이라며 웃는다.

수억만리 타향에서 다정하게 또 열심히 태권도 행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우리 태권도계의 앞날을 밝게 해주는 것 같았다.

〈한규인/1996년도 월드컵대회
한국대표팀 감독〉



이집트, 태권도인구 10만명 정치이념 달라도 한국에 우호적

정기영/이집트 카이로 태권도협회 사범

여름이 유난히 길고 겨울철에도 꽃이 피는 이집트에서 태권도 구령을 외치며 지낸지 어느새 12년. 선수훈련 등 빈틈없이 짜여진 연간 계획에 따라 바쁘게 지내다 보니 정말 세월의 흐름이 실감나지 않는다. 이집트에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1만명이 채 안되던 태권도 인구가 10만여명으로 늘어났다. 웬만한 도시마다 태극마크가 선명한 태권도 도장이 들어선 것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낀다.

이집트에서는 5백명 정도의 한국사람들이 상주한다. 대부분 3년 임기로 와 있는 상사주재원과 가족들이다. 최근에는 대한항공이 취항하면서 여행업을 하는 사람들도 늘었으며 카이로에만 한국식당이 15개나 된다.

이집트에는 북한대사관이 먼저 개설됐고 정치적으로 북한에 가깝지만 이집트사람들은 한국에 우호적이다. 얼마전 북한이 태권도 사



**이집트에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1만명이 채 안되던
태권도 인구가 10만여명으로
늘어났다. 웬만한 도시마다
태극마크가 선명한 태권도 도장이
들어선 것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낀다.**



범을 무더기로 보내 주겠다고 이집트 정부에 제의했지만 이집트 태권도연맹은 거절했다. 이집트 태권도연맹이 한국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 카이로에서 「이집트 태권도 한마당행사」를 가졌는데 전국 각지에서 선수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몰려와 열띤 응원을 펼쳤다. 그 열기가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 못지 않았다. 열광의 도가니가 된 장

내를 지켜보고 있노라니 그동안 힘들었던 기억들이 눈녹듯 사라졌다.

그러나 아직은 절대빈공층이 많은 탓에 여가활동인 태권도를 보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집트는 사회주의 체제에 가까워 정부가 실업자들에게도 식량배급을 한다. 날씨가 더운데다 정부 정책의 영향도 있어 국민 대다수가 게으르다. 또 아직 귀족 평민을 가르는 신분차별 의식이 남아 있어 대학까지 공짜로 다닐 수 있는데도 문맹자가 많다. 어차피 평민으로 태어났는데 이대로 살다 죽으면 되지 힘들게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는 사고방식이다. 그렇지만 외국인에게는 비싼 등록금을 받는다. 외국인은 부자니까 자기 나라에서 많이 쓰라는 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신의 뜻대로란 의미의 「인살라」한마디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이집트에 정이 든 탓이라.

〈동아일보 1996년 3월 28일자〉



아프리카 2개국 순회시범기

임미화/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

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 취약지역인 아프리카에 5월 4일부터 18일까지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였다.

시범단은 모리셔스, 케메룬 2개국을 순회하며 태권도 시범을 통해 보급 열기를 확산시키고 FIFA집행위원 보유국인 두 나라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고양시켜 2002년 월드컵축구 유치의 위업을 달성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였다.

다음은 국가대표시범단의 일원으로 아프리카 순회시범을 다녀온 임미화씨의 활동 보고서이다.

〈편집자주〉

그 어느때 보다도 온 국민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푸른하늘이 무색해질 만큼이나 높았던 5월.

독도문제로 인한 반일감정의 격화와 6월에 있을 2002년 월드컵축구의 일본과의 유치경쟁으로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 진행되었던 한달이 아니었다 생각된다.

나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일원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생각하던 중 내가 소속해 있는 국가대표 태권도시범단에서 FIFA집행위원이 있는 아프리카2개국에 해외시범을 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들었다.

아직은 낯설기만한 검은대륙 아프리카. 지금까지 여러나라를 다니면서 순회시범을 보여왔지만 아프리카라는 말에 먼저 두렵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일본과의 치열한 월드컵 유치경쟁을 생각하니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가 한국의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적격이라 생각되었고 또한 국가대표 태권도시범단의 일원으로 미개한 아프리카지역에 태권도의 저변확대와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니 어느 시범때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강한 의욕이 생기게 되었다.

1996년 5월 4일. 진영 태권도 협회 이사님, 고우방 제주도태권도 협회 회장님, 문화체육부 함순식 사무관님과 지도사범님이신 이규형사범님을 위시한 19명으로 구성된 대표시범단은 2주간의 태권도시범일정을 위해 아프리카로 향했다.

이번 순회시범을 보일 첫번째 나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자료조차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도에서조차 나라 이름만 나와 있는 아프리카대륙의 남동쪽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인 모리셔스이며, 두 번째 나라는 축구강국으로 이름뿐이 아니라 기억에 남아있는 카메룬이라는 나라였다.

드디어 우리일행은 어두운 새벽 아프리카 모리셔스에 첫 발을 디뎠다. 호텔에 도착하여 서서히 어둠이 걷히니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아프리카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초원과 석양아래 폐허어가는 동물무리들. 또한 검은 원주민의 모습만을 생각했었던 나의 아프리카에 대한 상상은 끝이 보이지 않는 사탕수수밭과 너무나 깨끗한 초록바다로 인해 깨질 수밖에 없었다.

여독이 풀릴새도 없이 5월 6일에 있을 시범을 위해 우리는 연습에 임해야만 했다. 시차적응은 적어도 일주일이지 나야 된다면 우리시범단은 항상 바쁜일정에 '시차적응 하루만에 완성하기'라는 명제에 잘 적응되어 있었다. 처음나온 단원들도 있었지만 모두들 힘든 표정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호텔에서의 시범준비는 어느나

라를 가던지 항상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태권도시범준비를 마음놓고 할 만한 장소를 호텔사정상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곳 모리셔스 역시 두 세 차례 장소를 옮겨가며 어렵게 연습을 마쳤다.

5월 6일, 오후 6시 모리셔스의 VACOAS체육관에서 첫시범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김영수 문화체육부장관과 오지철 국제체육국장, 그리고 권순대 케냐대사 등 국내주요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모리셔스의 체육부장관, 차관, 문화부장관, 차관 등 현지주요인사들도 대거 참석하였다. 또한 태권도 시범을 보기위해 모인 현지인들도 약 2000여명에 달했으며 이날 시범을 취재하기 위한 취재열기 또한 대단했다. 그동안 힘들게 준비한 시범 한종목 한종목이 이루어질 때마다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으며, 그때마다 단원들은 시범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였다. 시범중 약간의 실수가 있어 상심한 단원에게는 서로서로가 위로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해주었다. 이렇게 어렵게 우리는 첫 시범을 마칠수 있었다. 시범을 마친후 김영수 장관께서 뜨거운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대단히 훌륭해 하시는 모습에 우리는 첫 시범을 성공리에 마쳤다는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 다음날에는 모리셔스 현지 태권도 수련생을 대상으로 품새와 심판법에 관한 세미

나를 열었다. 태권도를 배우려는 그들의 눈빛은 대단히 빛이 났으며 우리나라 수련생 못지않은 진지함과 열의를 볼 수 있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모리셔스라는 잘 알려지지도 않은 작은 나라도 W.T.F에 가입을 했으며, 현지 태권도장수가 20개나 되며, 약50개의 초등학교에서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적인 SPORTS 태권도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으며, 이런 오지에는 태권도를 전파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태권도를 이곳 모리셔스에 처음 보급한 사람은 선박계통에 종사한 엔지니어인 김진용씨로 태권도 보급을 목적으로 온 사람이 아닌데도 태권도보급에 힘썼

다는 점에서 우리태권도의 가족정신을 느꼈으며 앞으로 태권도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될 우리의 막중한 사명감을 다시금 인식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성공적으로 모리셔스 시범을 마친 우리 일행은 다음 시범국인 카메룬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로 향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시범이 없는 관계로 현지에서 태권도를 지도하고 계시는 선배사범님의 체육관에서 몸을 풀기로 했다. 아프리카의 관문인 남아프리카에서 시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서운해 하시는 태권도 관계자 및 교민분들께서는 연습하는 모습이라도 봐야겠다면서 연습장에까지 직접오셨으며 우리는 그분들의 호의로 한국을 떠나온지 일주일만에 한국음식을 처음으로 접



카메룬 국립대학에서 장애틀을 딛고 3단계 앞차기 시범을 보이는 모습.



할 수 있었다.

남아프리카의 경우는 가라데 수련생이 30만명을 넘으며 도장수도 3000개 가량이나 된다고 했다. 그러나 태권도의 경우는 수련생이 겨우 1500명이며, 도장수도 30개에 불과했다. 가라데와 우슈의 보급이 전제적으로 확산되어 보급활동이 극히 미약했던 태권도에 대한 인지도는 거의 미약하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일행은 우리를 통한 태권도의 보급 효과가 대단히 크을 느끼고 앞으로 산재해있는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일행은 남은 마지막 시범을 위해 남아프리카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카메룬의 두알라로 향했다. 두알라에는 약 3시간가량 연착되어 도착하였다. 다른 나라에 비해 숨이 턱턱 막힐것만 같은 무더운 날씨였다. 수하물 역시 1시간 이상 기다린 다음에야 찾을 수 있었다. 카메룬에 계신 현지분들의 말씀을 들으니 3시간 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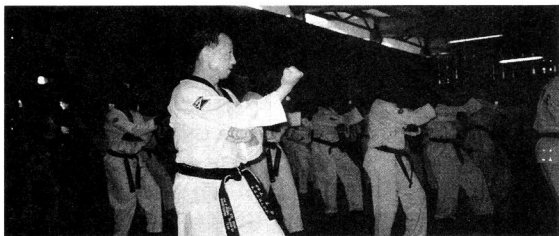
양호한 편이라 하셨다. 두알라에서 1박을 한 뒤 시범도시인 야운데로 출발하였다. 버스를 타고 시골길을 4시간 가량 달린 후 우리는 야운데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도 역시 간단하게 몸을 풀 뒤 다음날 있을 시범을 준비했다.

5월 12일, 야운데의 MADECO 실의체육관에서 오후3시30분에 시범을 보였다. 야ونده는 시범장소가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었다. 날씨가 더운 탓에 더웠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시범을 잘보이겠다는 열의로 가득차 있었다. 현지 태권도 수련생들의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태권도 시범이 있은 뒤 우리의 태권도 시범이 이어졌다. 계속되는 직사광선과 바닥이 고르지 못한 관계로 실수가 있었지만 시범을 보기위해 모인 현지인들과 교민들은 뜨거운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정말로 약조전에서 시범을 무사히 끝낸 우리단원들은 마지막 시범을 실수없이 보이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모

두들 아쉬워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시범을 보기위해 참석한 현지 청소년 체육부국장, 카메룬대사님과 서기관님 모두들 시범결과에 흠족해하시며 태권도의 발전에 놀라워하시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아프리카에서의 모든시범을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고 카메룬에서도 역시 태권도의 정신자세와 예의범절에 대한 세미나를 했으며, 현지 수련생의 승품심사의 심사위원으로 유단자보급에도 노력하였다. 이렇게 우리시범단은 아프리카라는 낯설은 나라에서 시범을 통한 태권도의 보급뿐만이 아닌 월드컵유치경쟁에 한몫을 해냈다는 것에 대한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프랑스를 경유하여 다시 우리나라로 2주일만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5월 31일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월드컵을 공동유치하게 되었다는 약간은 서운하지만 기쁜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고 더더욱 대표시범단의 해외시범에 대한 커다란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인 월드컵을 유치하게 되었으니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얻어낸 결실인 만큼 결코 일본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길러 그 어느때의 대회보다도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온 국민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우리 태권도시범단도 태권도 신기술개발을 통한 태권도의 보급에 힘써야할 것이다.



모리서스에서 가진 태권도 세미나 모습

'96년 4~6월



행사 기록

입 상

1996년도 국가대표 선발 대회(예선)

1996.4.1~4(4일간)

올림픽 제2체육관(펜싱경기장)

(남자부)

▲ 핀급

- 1: 박희강(한국체육대학1)
- 2: 김병태(용인대학교3)
- 3: 김광호(풍생고등학교3)
- 3: 조성일(조선대학교3)

▲ 플라이급

- 1: 이기철(경희대학교2)
- 2: 박희철(선인고등학교3)
- 3: 최만용(한국체육대학3)
- 3: 김홍일(충남대학교3)

▲ 밴텀급

- 1: 정대영(한국체육대학2)
- 2: 장원모(개금고등학교)
- 3: 이순태(관동대학교)
- 3: 김향수(청주대학교1)

▲ 페더급

- 1: 이두련(경희대학교2)
- 2: 김종순(영천시청)
- 3: 조진호(한국체육대학)
- 3: 정균(용인대학교1)

▲ 라이트급

- 1: 박택용(국군체육부대)

- 2: 최태호(한국체육대학2)

- 3: 민경환(청주대학교4)

- 3: 이동규(충남대학교4)

▲ 웰터급

- 1: 김부권(조선대학교2)

- 2: 박병조(선인고등학교3)

- 3: 김경훈(한국체육대학3)

- 3: 장우화(용인대학교4)

▲ 미들급

- 1: 김민우(동아대학교2)

- 2: 윤귀상(서울체육고등학교3)

- 3: 김동민(한국체육대학4)

- 3: 강동국(국군체육부대)

▲ 헤비급

- 1: 박형태(국군체육부대)

- 2: 김광수(춘천시청)

- 3: 최원집(통신대학교3)

- 3: 심재섭(단국대학교4)

(여자부)

▲ 핀급

- 1: 박정희(김제북고1)

- 2: 김수연(용인대학교3)

- 3: 박은경(광주협회)

- 3: 장정은(경희대학교1)

▲ 플라이급

- 1: 심혜영(리라공고1)

- 2: 최재숙(용인대학교3)

- 3: 김지연(은광여자고등학교3)

- 3: 황지현(문성여자2)

▲ 밴텀급

- 1: 윤성희(당곡중학교3)

- 2: 박현기(한국체육대학2)

- 3: 정재은(한림여자실업고등학교2)

- 3: 인순영(강원대학교1)

▲ 페더급

- 1: 김성숙(인천광역시청)

- 2: 윤명숙(인천광역시청)

- 3: 김지호(송곡고등학교3)

- 3: 최은희(한림여자실업고등학교2)

▲ 라이트급

- 1: 신동선(성신대학교4)

- 2: 양훈희(용인대학교3)

- 3: 이해경(한국체육대학2)

- 3: 강해은(상명대학교1)

▲ 웰터급

- 1: 강혜진(성신대학교1)

- 2: 조미례(한국체육대학2)

- 3: 김미영(문상중고)

- 3: 신은정(용인대학교)

▲ 미들급

- 1: 오정희(리라공고)

- 2: 이선희(인천광역시청)

- 3: 이옥미(송곡고등학교)

- 3: 우연정(새일고등학교)

▲ 헤비급

- 1: 김윤정(상명대학교2)

- 2: 윤현정(경복체고2)

- 3: 서정화(강원대학교1)

- 3: 신경현(인천광역시청)

제1회 세계주니어 태권도 선수권대회 최종평가전

1996.4.12~13(2일간)

국기원

(남자부)

▲ 편급

- 1: 김중성(충북체육고등학교)
- 2: 김진희(리라공업고등학교)
- 3: 임윤현(순천공업고등학교)
- 3: 김주철(리라공업고등학교)

▲ 플라이급

- 1: 민병석(단국사대부속고등학교)
- 2: 김현주(선인고등학교)
- 3: 김진모(광주체육고등학교)
- 3: 김현섭(남주고등학교)

▲ 밴텀급

- 1: 김의철(문성고등학교)
- 2: 박희철(선인고등학교)
- 3: 김용범(경남체육고등학교)
- 3: 신영태(충북체육고등학교)

▲ 페더급

- 1: 김정준(동성고등학교)
- 2: 신영준(문성고등학교)
- 3: 고재필(남주고등학교)
- 3: 이광수(서울체육고등학교)

▲ 라이트급

- 1: 김신규(남주고등학교)
- 2: 이춘기(서울체육고등학교)
- 3: 고덕민(광주체육고등학교)
- 3: 이종호(강원체육고등학교)

▲ 웰터급

- 1: 박동현(송곡고등학교)
- 2: 이승재(서울체육고등학교)
- 3: 김기석(인천북공업고등학교)
- 3: 박병규(리라공업고등학교)

▲ 미들급

- 1: 윤기상(서울체육고등학교)
- 2: 송용훈(단국사대부속고등학교)
- 3: 조석만(송곡고등학교)
- 3: 홍춘식(서울체육고등학교)

▲ 헤비급

- 1: 이경호(강원체육고등학교)
- 2: 한경수(리라공업고등학교)
- 3: 이석훈(금정고등학교)
- 3: 한전민(리라공업고등학교)

▲ 편급

- 1: 강지현(은광여자고등학교)
- 2: 박정희(김제북고등학교)
- 3: 안정아(대원여자중학교)
- 3: 최민아(대원여자중학교)

▲ 플라이급

- 1: 박경은(리라공업고등학교)
- 2: 전성아(충북체육고등학교)
- 3: 김희정(만수여자중학교)
- 3: 김경희(쌍문중학교)

▲ 밴텀급

- 1: 송민주(한림여자실업고등학교)
- 2: 이진영(은광여자고등학교)
- 3: 황지현(문성여자상업고등학교)
- 3: 김지연(우광여자고등학교)

▲ 페더급

- 1: 주혜원(효원고등학교)
- 2: 윤성희(당곡중학교)
- 3: 이금애(시온고등학교)
- 3: 정재은(한림여자실업고등학교)

▲ 라이트급

- 1: 이승의(경성여자실업고등학교)
- 2: 류미연(효원고등학교)
- 3: 홍영재(경성여자실업고등학교)
- 3: 홍미란(문성여자상업고등학교)

▲ 웰터급

- 1: 이선희(고양종합고등학교)
- 2: 이옥미(송곡고등학교)
- 3: 장지원(경성여자실업고등학교)
- 3: 이현희(리라공업고등학교)

▲ 미들급

- 1: 김미영(문산종합고등학교)
- 2: 오정희(리라공업고등학교)
- 3: 우연정(새일고등학교)
- 3: 김수현(리라공업고등학교)

▲ 헤비급

- 1: 유승아(경성여자실업고등학교)
- 2: 윤현정(경북체육고등학교)
- 3: 윤현숙(경수중학교)
- 3: 최미영(문성여자상업고등학교)

1996년도 국가대표 최종선발대회

1996.4.16~18(3일간)

KBS 88 체육관

(남자부)

▲ 편급

- 1: 김병태(용인대학3)
- 2: 김광호(풍생고등3)
- 3: 박희강(한국체육대학1)
- 3: 진승태(한국체육대학대학원1)

▲ 플라이급

- 1: 유영택(용인대학3)
- 2: 박희철(선인고등3)
- 3: 이기철(경희대학2)
- 3: 고동완(한국체육대학4)

▲ 밴텀급

- 1: 김현용(영천시청)
- 2: 정대영(한국체육대학2)
- 3: 장대순(상무 이병)
- 3: 김남우(한국체육대학4)

▲ 페더급

- 1: 유용진(동아대학)
- 2: 이두건(경희대학)
- 3: 김병국(상무)
- 3: 이일수(동아대학3)

▲ 라이트급

- 1: 심기선(경희대학3)
- 2: 박택용(상무)
- 3: 김동현(경희대학3)
- 3: 최태호(한국체육대학2)

▲ 웰터급

- 1: 김경훈(한국체육대학3)
- 2: 장종오(상무 상병)
- 3: 장우화(용인대학4)

3 : 류근무(경희대학2)

▲ 미들급

1 : 이동완(한국체육대학3)

2 : 김민우(동아대학교2)

3 : 윤귀상(서울체육고등3)

3 : 김동민(한국체육대학4)

▲ 헤비급

1 : 문대성(동아대학2)

2 : 박형래(상무)

3 : 김광수(춘천시청)

3 : 강승수(상무)

(여자부)

▲ 펀급

1 : 양소희(한국체육대학3)

2 : 박정은(리라공업고등1)

3 : 이정운(용인대학1)

3 : 장정은(경희대학1)

▲ 플라이급

1 : 김보인(경희대학2)

2 : 윤송희(한국체육대학2)

3 : 심혜영(리라공업고등1)

3 : 김지연(은광여자고등3)

▲ 밴텀급

1 : 원선진(경희대학4)

2 : 이선영(한국체육대학1)

3 : 정재은(한림여실고등2)

3 : 박현기(한국체육대학2)

▲ 페더급

1 : 이승민(춘천시청)

2 : 윤명숙(인천시청)

3 : 정미나(리라공업고등2)

3 : 진용순(한국체육대학4)

▲ 라이트급

1 : 이선희(고양종합고등2)

2 : 강해은(상명대학1)

3 : 박경숙(경희대학4)

3 : 양춘희(용인대학3)

▲ 웰터급

1 : 조향미(인천시청)

2 : 김은이(경희대학4)

3 : 조미례(한국체육대학2)

3 : 김소연(상명대학2)

▲ 미들급

1 : 박은선(경희대학3)

2 : 박선미(춘천시청)

3 : 우연정(대전새일고등3)

3 : 이희영(용인대학2)

▲ 헤비급

1 : 정명숙(경희대학3)

2 : 김윤경(상명대학2)

3 : 신경현(인천시청)

3 : 윤현정(경북체육고)

제6회 용인대학교 총장기
전국 남, 여 고등학교 대회

1996.4.24~27(4일간)

용인대학교 체육관

(단체전 명단)

▲ 최우수 선수상

이영우 : 부평기술고3

▲ 우수 선수상

장원모 : 개금고3

장순호 : 동성고3

▲ 장려상

태성고

▲ 감투상

광영고

▲ 지도상

이봉석 : 부평기술고

박장규 : 김제북고

▲ 최우수심판상

최돈오, 장명수

(남고 단체전 명단)

▲ 선인고등학교

1 : 박병조(통합 플라이)

1 : 오선택(통합 페더)

1 : 한대열(통합 웰터)

1 : 박희철(통합 헤비)

1 : 김현주(무제한급)

▲ 남주고등학교

2 : 이광석(통합 플라이)

2 : 김신규(통합 페더)

2 : 김현섭(통합 웰터)

2 : 고재필(통합 헤비)

2 : 강경범(무제한급)

▲ 송곡고등학교

3 : 김영민(통합플라이)

3 : 최원석(통합 페더)

3 : 양태영(통합 웰터)

3 : 김재관(통합 헤비)

3 : 장택상(무제한급)

▲ 강원체육고등학교

3 : 김윤식(통합 플라이)

3 : 김동현(통합 페더)

3 : 김성기(통합 웰터)

3 : 이종호(통합 헤비)

3 : 이경호(무제한급)

(여자 단체전 명단)

▲ 리라공고

1 : 이현희(통합 플라이)

1 : 정미나(통합 페더)

1 : 안선희(통합 웰터)

1 : 남보라(통합 헤비)

1 : 김수현(무제한급)

▲ 은광여고

2 : 김하나(통합 플라이)

2 : 이진영(통합 페더)

2 : 박은희(통합 웰터)

2 : 이만원(통합 헤비)

2 : 박주희(무제한급)

▲ 인천체육고

3 : 이차희(통합 플라이)

3 : 함진희(통합 페더)

3 : 박지혜(통합 웰터)

3 : 김지연(통합 헤비)

3 : 최선미(무제한급)

▲ 경성여실고

3 : 홍영재(통합 플라이)

3 : 이승의(통합 페더)

3 : 장지원(통합 웰터)

3 : 신세연(통합 헤비)

3 : 오미미(무제한급)

(남고부)

▲ 편급

- 1: 조성민(단국공업고등학교3)
- 2: 유인평(충북체육고등학교3)
- 3: 김종성(여수고등학교2)
- 3: 이완기(태성고등학교)

▲ 플라이급

- 1: 홍기상(송곡고등학교3)
- 2: 김정일(부산체육고등학교2)
- 3: 김동철(광양고등학교3)
- 3: 홍틀락(인천체육고등학교2)

▲ 밴텀급

- 1: 장원오(개금고등학교3)
- 2: 이동철(동성고등학교3)
- 3: 이상호(풍생고등학교3)
- 3: 김동현(부산체육고등학교3)

▲ 페더급

- 1: 강남원(인천체육고등학교3)
- 2: 최영두(경남체육고등학교3)
- 3: 김상길(성동고등학교3)
- 3: 최진규(광명고등학교3)

▲ 라이트급

- 1: 장순호(동성고등학교3)
- 2: 박병규(리라공업고등학교3)
- 3: 노구갑(경북체육고등학교3)
- 3: 황현일(포항수산고등학교)

▲ 웰터급

- 1: 황치우(부산체육고등학교3)
- 2: 박남석(부평기술평업고등학교2)
- 3: 황동기(리라공고3)
- 3: 조원철(서울체고2)

▲ 미들급

- 1: 이영근(부평기술평고3)
- 2: 김종원(부산체고3)
- 3: 구용훈(금정고3)
- 3: 박천덕(개금고2)

▲ 헤비급

- 1: 이영우(부평기술평고3)
- 2: 김종훈(부산체고3)
- 3: 이재모(개금고3)
- 3: 전명환(선인고3)

(여고부)

▲ 편급

- 1: 박정희(김제북고3)
- 2: 강지현(은광여고1)
- 3: 정선영(강원체고3)
- 3: 박정순(새일고2)

▲ 플라이급

- 1: 윤희순(문산중고3)
- 2: 박효진(충북체고2)
- 3: 전정화(고창여고3)
- 3: 심희영(함백여고3)

▲ 밴텀급

- 1: 채혜경(영북중고3)
- 2: 이금애(시온고2)
- 3: 서현옥(고양여중고2)
- 3: 강진희(목포상고2)

▲ 페더급

- 1: 주혜원(효원고3)
- 2: 정재은(한림고2)
- 3: 이현정(경성여실고5)
- 3: 김지호(송곡고3)

▲ 라이트급

- 1: 서은미(김제북고3)
- 2: 김시정(송곡고2)
- 3: 김은주(영북중고3)
- 3: 기미선(고창여고3)

▲ 웰터급

- 1: 이정숙(태원고3)
- 2: 권영아(충북체고3)
- 3: 정진영(시온고3)
- 3: 김미영(문산중고3)

▲ 미들급

- 1: 이옥미(송곡고3)
- 2: 김미란(고양중고1)
- 3: 서영하(효원고2)
- 3: 양혜정(한림여실고1)

▲ 헤비급

- 1: 윤혜정(경북체고2)
- 2: 김숙영(고창여고2)
- 3: 유승아(경성여실고3)
- 3: 권지희(리라공고2)

제23회 한국 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 회장기 대회

1996.4.28~5.3(6일간)

잠실학생체육관

(남고부)

▲ 편급

- 1: 문정훈(금정고3)
- 2: 정용조(분당고2)
- 3: 손우락(서울체고2)
- 3: 서지원(순천공고2)

▲ 플라이급

- 1: 진우승(부산체고1)
- 2: 한석봉(태성고3)
- 3: 김영성(동성고3)
- 3: 김지욱(단국공고3)

▲ 밴텀급

- 1: 장문식(전주공고3)
- 2: 안학송(의정부공고3)
- 3: 정구욱(부평기술평고3)
- 3: 장원오(개금고3)

▲ 페더급

- 1: 강남원(인천체고3)
- 2: 장세용(리라공고2)
- 3: 김정규(천안중앙고3)
- 3: 최진규(광명고3)

▲ 라이트급

- 1: 김선진(서울체고3)
- 2: 장순호(동성고3)
- 3: 한상준(남해중고3)
- 3: 김주연(풍생고3)

▲ 웰터급

- 1: 이승재(서울체고3)
- 2: 황동기(리라공고3)
- 3: 박수남(단국사대부고3)
- 3: 이상권(성동고3)

▲ 미들급

- 1: 박동현(송곡고)
- 2: 박병조(선인고3)
- 3: 서성복(광주체고3)
- 3: 윤귀상(서울체고3)

▲ 해비급

- 1: 김중훈(부산체고3)
- 2: 이영우(부평기술고3)
- 3: 박훈순(태성고2)
- 3: 오정현(단국사대부고3)
(여고부)

▲ 핀급

- 1: 박경은(리라공고1)
- 2: 박정희(김제북고3)
- 3: 연선주(인천체고3)
- 3: 전성아(충북체고2)

▲ 플라이급

- 1: 심혜영(리라공고1)
- 2: 박효진(충북체고2)
- 3: 윤희순(문산중고3)
- 3: 황지현(문성여상2)

▲ 밴텀급

- 1: 이진영(은광여고1)
- 2: 조지미(리라공고3)
- 3: 송민주(한림여실)
- 3: 박재연(천안여고)

▲ 페더급

- 1: 정재은(한림여실2)
- 2: 주혜원(효원고3)
- 3: 민보영(배성여상2)
- 3: 김지호(송곡고3)

▲ 라이트급

- 1: 이현희(리라공고3)
- 2: 정미향(경남체고3)
- 3: 이선희(고양중고2)
- 3: 나현주(시온고3)

▲ 웰터급

- 1: 김수현(리라공고3)
- 2: 김미영(문산중고3)
- 3: 박주희(은광여고2)
- 3: 김현주(경성여실3)

▲ 미들급

- 1: 서영하(효원고2)
- 2: 하민숙(경성여실3)
- 3: 오정희(리라공고1)
- 3: 박신(은광여고3)

▲ 해비급

- 1: 윤현정(경북체고2)
- 2: 김지원(고양중고3)
- 3: 조양희(고창여고2)
- 3: 권지희(리라공고2)
(남중부)

▲ 핀급

- 1: 홍승호(군산동중3)
- 2: 이영목(신암중2)
- 3: 이순재(은행중2)
- 3: 조중현(충북사대부중2)

▲ 플라이급

- 1: 최연호(상무중3)
- 2: 황광엽(자영중3)
- 3: 백봉현(고덕중1)
- 3: 이진우(경북체중2)

▲ 밴텀급

- 1: 김진덕(풍생중3)
- 2: 유지호(문성중3)
- 3: 유정욱(당곡중3)
- 3: 최광철(배명중3)

▲ 페더급

- 1: 박관욱(신성중3)
- 2: 정근호(구운중3)
- 3: 조인오(광주체중3)
- 3: 이덕봉(고령중3)

▲ 라이트급

- 1: 김길태(백양중3)
- 2: 윤상호(구월중3)
- 3: 천태봉(은행중2)
- 3: 김태현(문성중2)

▲ L. 웰터급

- 1: 최홍식(문성중2)
- 2: 금복수(구월중3)
- 3: 김재문(강원중3)
- 3: 최고봉(상무중3)

▲ 웰터급

- 1: 김일구(강원중2)
- 2: 박진호(경일중3)
- 3: 임대규(백양중2)
- 3: 박래학(덕정중3)

▲ L. 미들급

- 1: 임대호(청주중3)
- 2: 서세용(관교중3)
- 3: 서성혁(부천동중3)
- 3: 윤덕근(문성중3)

▲ 미들급

- 1: 윤원중(곡선중3)
- 2: 이상규(여수중3)
- 3: 문성일(대전체중2)
- 3: 이해민(구월중3)

▲ L. 해비급

- 1: 한동훈(한성중3)
- 2: 류지한(풍생중3)
- 3: 이부연(인천부흥중3)
- 3: 김일구(광주체중3)

▲ 해비

- 1: 이기수(성남서중3)
- 2: 임석준(한성중3)
- 3: 최종근(배명중3)
- 3: 조재영(전동중3)
(여중부)

▲ 핀급

- 1: 김이슬(성서중2)
- 2: 정지영(부흥중2)
- 3: 윤효진(덕정중2)
- 3: 이라희(계산여중1)

▲ 플라이급

- 1: 이인혜(용곡중2)
- 2: 송윤희(덕정중2)
- 3: 이해영(곡선중2)
- 3: 정선미(관동중2)

▲ 밴텀급

- 1: 이자미(덕진중2)
- 2: 최준정(선서중3)
- 3: 안정아(대원여중3)
- 3: 김경희(쌍문중3)

▲ 페더급

- 1: 이은주(부인중3)
- 2: 김희정(만수여중)
- 3: 임경남(양정여중3)
- 3: 최민아(대원여중3)

▲ 라이트급

- 1: 백재현(구운중3)
- 2: 방정희(부인중2)
- 3: 김연희(부홍중1)
- 3: 이선주(원일중2)

▲ L. 웰터급

- 1: 전남수(경수중3)
- 2: 윤성희(당곡중3)
- 3: 김희정(수유여중3)
- 3: 황희영(구운중3)

▲ 웰터급

- 1: 정민영(대원여중3)
- 2: 임경화(오금중3)
- 3: 이선미(사당중3)
- 3: 최민경(쌍문중3)

▲ L.미들급

- 1: 이정민(쌍문중3)
- 2: 주은주(무인중3)
- 3: 김혜미(당곡중1)
- 3: 육지은(대원여중3)

▲ 미들급

- 1: 한현아(성서중3)
- 1: 이은경(대원여중3)
- 3: 배은주(곡선중2)
- 3: 윤정미(만수여중2)

▲ L. 헤비

- 1: 장선연(연삼중3)
- 2: 홍자연(계산여중2)
- 3: 홍혜란(공선중2)
- 3: 박혜정(제주여중3)

▲ 헤비급

- 1: 박연정(철산여중3)
 - 2: 윤현숙(경수중3)
 - 3: 권혜영(고양중3)
- (단체상)

▲ 남고부

- 우승: 서울체고
준우승: 부산체고
3위: 송곡고
감투: 금정고
장려: 부평고

최우수: 김선진(라이트)서울체고

▲ 여고부

- 우 승: 리라공고
준우승: 은광여고
3 위: 경성여실
감 투: 충북체고
장 려: 목포상고
최우수: 김수현(웰터) 리라공고

▲ 남중부

- 우 승: 문성중
준우승: 풍생중
3 위: 한성중
감 투: 백양중
장 려: 소성중
최우수: 최홍식(L.웰) 문성중

▲ 여중부

- 우 승: 성서중
준우승: 부천부인중
3 위: 대원여중
감 투: 덕정중
장 려: 계산여중
최우수: 한현아(미들) 성서중

▲ 남고부

- 지도상: 정동현 서울체고(코치)
▲ 여고부
지도상: 박영수 리라공고(코치)

▲ 남중부

- 지도상: 박종선 문성중(교사)
▲ 여중부
지도상: 홍성대 성서중(교사)

'96 교보생명배 전국 어린이

태권왕 선발 대회
1996.5.5, 국기원

(남자부)

▲ 편급

- 1: 박진(경기 이매)
- 2: 이민호(충남 구성)
- 3: 이종원(성남 제2)
- 3: 이범석(약대)

▲ 플라이급

- 1: 이정재(경기 포곡)
- 2: 김복기(각기 금빛)
- 3: 지유민(치악)
- 3: 이현우(옥천)

▲ 밴텀급

- 1: 최현하(경기 구운)
- 2: 손범락(부산 반여)
- 3: 고정근(치악)
- 3: 최석일(삼산)

▲ 페더급

- 1: 이중광(충남 구성)
- 2: 차동주(경기 부림)
- 3: 김명진(여천서)
- 3: 민경홍(울진)

▲ 라이트급

- 1: 채명균(경기 포곡)
- 2: 송지훈(경기 약대)
- 3: 김성진(마장)
- 3: 이희수(서곶)

▲ L. 웰터급

- 1: 황진남(인천 구월서)
- 2: 장현식(부산 반여)
- 3: 권진한(다사)
- 3: 서영석(부림)

▲ 웰터급

- 1: 송명섭(경기신홍)
- 2: 이상준(경기 태창)
- 3: 박이연(화랑)
- 3: 최중락(홍광)

▲ L. 미들급

- 1: 조바로(대구 아양)
- 2: 김민수(경기 수진)
- 3: 김영훈(치악)
- 3: 이규진(대일)

▲ 미들급

- 1: 성승현(경기 마장)
- 2: 김세연(충북 달천)
- 3: 고준영(금빛)
- 3: 손형태(반여)

▲ L. 헤비급

- 1: 김두리(경기 금상)
- 2: 최효진(부산 반여)
- 3: 김병수(아양)
- 3: 백인옥(성남 제2)

▲ 해비급

- 1: 김상훈(대구 아양)
- 2: 윤주영(대구 화원)
- 3: 진광주(용마)
- 3: 유재훈(만석)

(여자부)

▲ 핀급

- 1: 김수양(경기 설봉)
- 2: 김지혜(안양 석수)
- 3: 이하나(성남)
- 3: 황은미(안양 석수)

▲ 플라이급

- 1: 정수진(안양 석수)
- 2: 전윤미(인천 삼산)
- 3: 김민정(성남 매송)
- 3: 황경선(양정)

▲ 밴텀급

- 1: 김새롬(경기 구운)
- 2: 정미선(경기 성남)
- 3: 김다혜(서곡)
- 3: 이혜실(덕소)

▲ 페더급

- 1: 임양은(경기 덕소)
- 2: 신선영(서울 문창)
- 3: 이인수(법원)
- 3: 이영진(수진)

▲ 라이트급

- 1: 이윤희(경남 위천)
- 2: 변진영(서울 난우)
- 3: 하경호(정목)
- 3: 임미혜(성남 제2)

▲ L. 웰터

- 1: 손준향(경기 울진)
- 2: 이성혜(대구 다사)
- 3: 지미경(도창)
- 3: 이민애(금빛)

▲ 웰터급

- 1: 최정애(경기 덕소)
- 2: 강선미(경기 금빛)
- 3: 김기혜(천현)
- 3: 안정아(문창)

▲ L. 미들급

- 1: 김보배(강원 소양)
- 2: 허혜림(인천 삼산)
- 3: 김하림(이천)
- 3: 이지연(신일)

▲ 미들급

- 1: 양지은(서울 미성)
- 2: 정경자(대구 다사)
- 3: 전은경(덕소)
- 3: 정윤주(중원)

▲ L. 헤비급

- 1: 김아름(강원 속초)
- 2: 배윤희(경기 신일)
- 3: 강혜림(안양 석수)
- 3: 이가영(수창)

▲ 헤비급

- 1: 나은경(강원 우산)
- 2: 노은경(경기 성남)
- 3: 박정현(신일)
- 3: 이미화(정목)

(종합순위)

▲ 남자부

- 1: 대구아양 금(2) 동(1)
- 2: 포곡 금(2)
- 3: 부산반여 은(3) 동(1)
- 장려: 충남구성 금(1) 은(1)
- 감투: 마장 금(1) 동(1)

▲ 여자부

- 1: 경기덕소 금(2) 동(1)
- 2: 안양석수 금(1) 은(1) 동(2)
- 3: 성남 은(2) 동(1)
- 장려: 인천삼산 은(2)
- 감투: 신일 은(1) 동(2)

▲ 남자부

- 지도자상: 장두원(대구아양코치)
최우수선수상: 조바로(대구아양)
미기상: 최명균(경기포곡)

▲ 여자부

- 지도자상: 서창연(경기덕소코치)
최우수선수상: 최정애(경기덕소)
미기상: 정수진(안양석수)

▲ 1학년

- 1: 정유진(경기문산)
- 2: 이빛나(경기신일)
- 2: 김성용(경기신일)
- 3: 이종천(경기신산)
- 3: 최원빈(경기천현)
- 3: 김태윤(경기신일)

▲ 2학년

- 1: 김주연(서울송전)
- 2: 김라성(경기신산)
- 2: 김하늘(경기천현)
- 3: 김진아(경기여천서)
- 3: 이세운(경기문산)
- 3: 이병준(경기도창)

▲ 3학년

- 1: 김희부(경기문산)
- 2: 김통일(인천만석)
- 2: 조형용(경기도창)
- 3: 박동환(경기신산)
- 3: 제승훈(경기금촌)
- 3: 김석원(서울봉천)

▲ 4학년

- 1: 이아름(서울봉천)
- 2: 장영철(경기문산)
- 2: 최현준(경기신일)
- 3: 정상진(경기문산)
- 3: 박슬기(경기문산)
- 3: 김승주(경기문산)

▲ 5A학년

- 1: 김관호(경기문산)
- 2: 임용성(서울선일)
- 2: 김경호(경기문산)
- 3: 김복기(경기금빛)
- 3: 김진주(전남여천서)
- 3: 강호인(경기천현)

▲ 5B학년

- 1: 이정행(경기천현)

- 2: 최원후(경기신산)
- 2: 위선미(경기천현)
- 3: 권훈(전남여천서)
- 3: 이재진(경기천현)
- 3: 유호열(경기성남중원)

▲ 6A학년

- 1: 백선희(경기신산)
- 2: 최혜영(경기천현)
- 2: 이원(경기도창)
- 3: 백진아(경기도창)
- 3: 김두원(경기도창)
- 3: 지미경(경기도창)

▲ 6B학년

- 1: 김제현(경기신일)
- 2: 김수환(경기신산)
- 2: 임미혜(성남제2)
- 3: 김수양(경기철봉)
- 3: 김명진(전남여천서)
- 3: 이인수(경기법원)
- 최우수선수: 김희부(경기문산)
- 2위: 김제현(경기신일)
- 3위: 이아름(서울봉천)

전국 여자 개인 선수권 대회

1996.5.9~10(2일간)

국기원

▲ 편급

- 1: 박정희(김제북고3)
- 2: 정하나(인천북공고1)
- 3: 문지현(경성여실고3)
- 3: 강지현(은광여고1)

▲ 플라이급

- 1: 이진영(은광여고1)
- 2: 윤희순(문산중고1)
- 3: 탁양미(경성여실고3)

▲ 밴텀급

- 1: 윤성희(당곡중학교3)
- 2: 이금애(시온고2)
- 3: 채혜경(영북고3)

▲ 페더급

- 1: 정미나(리라공고2)
- 2: 정재은(한림여실고2)
- 3: 이훈실(판악정산고1)
- 3: 이승의(경성여실고3)

▲ 라이트급

- 1: 김시정(송곡여고2)
- 2: 신동선(성신여대4)
- 3: 정미향(경남체육고등학교3)
- 3: 지은주(문산중고3)

▲ 웰터급

- 1: 강혜진(성신여대1)
- 2: 김미영(문산중고3)
- 3: 남보라(리라공고1)
- 3: 김수현(리라공고3)

▲ 미들급

- 1: 박은희(은광여고2)
- 2: 이옥미(송곡고3)
- 3: 오정희(리라공고1)

▲ 헤비급

- 1: 권지희(리라공고2)
- 2: 유승아(경성여실고3)
- 3: 장철(경남협회)
- 3: 김미애(배정여상3)

제2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태권도경기

1996.5.25~28(4일간)

경북 영천

▲ 편급

- 1: 김일삼(전라남도)
- 2: 고동영(제주도)
- 3: 이찬희(강원도)
- 3: 반재희(충청북도)

▲ 플라이급

- 1: 박성철(전라북도)
- 2: 고석화(강원도)
- 3: 박구인(광주광역시)
- 3: 전하성(경기도)

▲ 밴텀급

- 1: 허영일(충청북도)

- 2: 황원영(부산광역시)
- 3: 유정욱(서울특별시)
- 3: 양승도(충청남도)

▲ 페더급

- 1: 박태열(제주도)
- 2: 김천호(인천광역시)
- 3: 이준환(경상북도)
- 3: 권기범(부산광역시)

▲ 라이트급

- 1: 윤상호(인천광역시)
- 2: 김태현(광주광역시)
- 3: 김길태(부산광역시)
- 3: 박현우(경기도)

▲ L. 웰터급

- 1: 최홍식(광주광역시)
- 2: 금복수(인천광역시)
- 3: 국중현(경상북도)
- 3: 김준호(전라북도)

▲ 웰터급

- 1: 설승룡(경기도) 최우수선수상
- 2: 김일구(강원도)
- 3: 이태훈(인천광역시)
- 3: 조은영(대전광역시)

▲ L. 미들급

- 1: 임태수(전라북도)
- 2: 한지훈(부산광역시)
- 3: 조민철(경기도)
- 3: 김상호(서울특별시)

▲ 미들급

- 1: 김교식(서울특별시)
- 2: 윤원중(경기도)
- 3: 문성일(대전광역시)
- 3: 이상규(전라남도)

▲ L. 헤비급

- 1: 한동훈(서울특별시)
- 2: 정영한(부산광역시)
- 3: 김재승(광주광역시)
- 3: 김민석(대전광역시)

▲ 헤비급

- 1: 이기수(경기도)
- 2: 홍택수(서울특별시)

3 : 최지철(경상북도)
 3 : 윤승환(광주광역시)
 (시도별 메달 집계표)
 서울 : 금(2), 은(1), 동(2)
 부산 : 은(3), 동(2)
 대구 : 동(1)
 인천 : 금(1), 은(2), 동(1)
 광주 : 금(1), 은(1), 동(1)
 강원 : 은(2), 동(1)
 경기 : 금(2), 은(1), 동(3)
 충남 : 동(1)
 충북 : 금(1)
 경남 :
 경북 : 동(3)
 전남 : 금(1), 동(1)
 전북 : 금(2), 동(1)
 제주 : 금(1), 은(1)

제31회 대통령기전국단체대 항대회

1996.6.24~27(4일간)
 대구실내체육관

(고등부)

▲ 1위 : 서울체고(이춘기, 이광수, 이승재, 김선진, 안원섭)
 ▲ 2위 : 리라공고(황동기, 김병필, 장세용, 이석란, 한경수)
 ▲ 3위 : 경북체고(노우석, 신원일, 강상교, 정동혁, 노구갑)
 ▲ 감투상 : 풍생고(윤석용, 신준식, 노현구, 김주연, 김재우)
 ▲ 장려상 : 부평기술고
 ▲ 지도상 : 장 권
 ▲ 우수선수상 : 이춘기

(대학부)

▲ 1위 : 한국체대(김동민, 조진호, 이동완, 조화연, 김경훈)
 ▲ 2위 : 경희대(문광선, 이상훈, 김동현, 심기선, 류근무)
 ▲ 3위 : 충남대(김윤식, 이동규,

이재성, 서장원, 김태국)
 ▲ 감투상 : 계명대(박동철, 전현우, 김태훈, 최형민, 송재현)
 ▲ 장려상 : 대구영진전문대학
 ▲ 지도상 : 문원재
 ▲ 우수선수상 : 김동민
 (일반부)
 ▲ 1위 : 영천시청(임호진, 김종운, 임영호, 박세진, 김현용)
 ▲ 2위 : 보성주택(이현석, 김진일, 김인용, 이안호, 박종남)
 ▲ 3위 : 상무(장종오, 김정규, 강동국, 장대순, 김병욱)
 ▲ 감투상 : 서울지하철공사(김득영, 구기정, 김동성, 박종상, 이재영)
 ▲ 장려상 : 보령시청
 ▲ 지도상 : 이창건
 ▲ 우수선수상 : 임영호

국제대회

제12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1996.6.14~16(3일간)
 호주 멜버른

(남자부)

▲ 편급
 1 : 김병태(한국)
 2 : Roberto Cruz(필리핀)
 3 : Fizolah nafjam(이란)
 3 : John Carneli(호주)
 ▲ 플라이급
 1 : 유영택(한국)
 2 : Seyed mehrada Rokni(이란)
 3 : Mohammad a Sadir(사우디)
 3 : Takeshi Sannomiya(일본)
 ▲ 밴텀급
 1 : 김현용(한국)
 2 : Chih Hsiung Huang(대만)

3 : Hironobu Yamashita(일본)
 3 : M. Yusuf(인도네시아)
 ▲ 페더급
 1 : Bijan Moghaniloo(이란)
 2 : 유용진(한국)
 3 : Mohammad A.A1 Roe(요르단)
 3 : Ricardo Santiago(필리핀)
 ▲ 라이트급
 1 : 심기선(한국)
 2 : Fariborz Askari(이란)
 3 : Mohammad N.Shohifat(요르단)
 3 : Hiroshi Kanai(일본)
 ▲ 웰터급
 1 : 김경훈(한국)
 2 : Madjid Aflaki Khamsh(이란)
 3 : Mitsushige Arita(일본)
 3 : Saneh Jarittrum(태국)
 ▲ 미들급
 1 : 이동완(한국)
 2 : Majid Amin Torabi(이란)
 3 : Men Fengwei(중국)
 3 : Paul Dowie(호주)
 ▲ 헤비급
 1 : Farzad zarakhsh(이란)
 2 : Daniel Tenton(호주)
 3 : Andri Halim(인도네시아)
 3 : Khalid A Aldosari(사우디)
 (여자부)
 ▲ 편급
 1 : 양소희(한국)
 2 : Shu Ju Chi(대만)
 3 : Eva Marie Ditan(필리핀)
 3 : Ngyen Thi Zuan Mai(베트남)
 ▲ 플라이급
 1 : Sabita Rajbhandari(네팔)
 2 : 김보인(한국)
 3 : Tran Thi My Ling(베트남)
 3 : Vicki Cenere(호주)
 ▲ 밴텀급
 1 : Hui Wen Tang(대만)

- 2: 원선진(한국)
 3: Carmela Hartnett(호주)
 3: Huy Thi Bich Ngoc(베트남)
 ▲ 페더급
 1: 이승민(한국)
 2: Tran Hieu ngan(베트남)
 3: Anna Marissa Deleon(필리핀)
 3: Mei Chun Meng(대만)
 ▲ 라이트급
 1: 이선희(한국)
 2: Liu Wen Lee(대만)
 3: Ma Neliasy(필리핀)
 3: Nutcharin Sook(태국)
 ▲ 웰터급
 1: 조향미(한국)
 2: Yoriko Okamoto(일본)
 3: Chih Ling Hsu(대만)
 3: Janeth Tenorio(필리핀)
 ▲ 미들급
 1: 박은선(한국)
 2: Lydia Zakkas(호주)
 3: Verina Wihongi(뉴질랜드)
 3: Marites Javier(필리핀)
 ▲ 헤비급
 1: 정명숙(한국)
 2: Tanya White(호주)
 3: Lee Wan Yuen(말레이시아)
 3: Shinta(인도네시아)

1996년도 월드컵대회

1996.5.24~26(3일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남자부)

▲ 펀급

- 1: CARLOS PAUL AYALA
 LEE(MEX)
 2: JUAN A. RAMOS(ESP)
 3: MARCOS PEREIRA(BRA)
 3: CHROSTOPHE CIVILETTI

(FRA)

▲ 플라이급

- 1: TALAT MABROUK(EGY)
 2: BUBEN PALAPFOX(MEX)
 3: JOSE L. PRIE TO(ESP)
 3: CHIN HUNG TSAI(TPE)

▲ 밴텀급

- 1: 정대영(한국)
 2: CHIH HSIUNG HUANE
 (TPE)

3: GABRIEL ESPARA9ESP)

3: ALYSON YAMAGUTI(BRA)

▲ 페더급

- 1: RAFAEL EUNIGA(MEX)
 2: MARCIO EUGENIO(BRA)
 3: GUILHERMO MOSQUERA
 (USA)

3: FRANCISCO EAS(ESP)

▲ 라이트급

- 1: 광택용(한국)
 2: TAMER ABD MENEM(EGY)
 3: SHIN LUNG CHANG(TPE)
 3: GORDON WHITE(USA)

▲ 웰터급

- 1: CHING FUYAO(TPE)
 2: 장종오(한국)
 3: MARCO SCHEYTERBANUER
 (GER)

3: AHMED BARSIM(EGY)

▲ 미들급

- 1: 김민우(한국)
 2: MELOUL(FRA)
 3: AGNALDO VICENTE(USA)
 3: BILLY PETRONE(USA)

▲ 헤비급

- 1: VICTOR ESTRADA(MEX)
 2: YEHIA ALAM(SGY)
 3: MING HSIUNG HO(TPE)
 3: MARK SIMONS(CAN)
 (여자부)

▲ 펀급

- 1: 박경은(한국)
 2: AMELLA NEGRETE(ESP)
 3: YOON CHAING(USA)
 3: UAMILS DISZ(CUB)

▲ 플라이급

- 1: SHIN HSIH CHEN(EPE)
 2: YANET PUERTO(CUB)
 3: MANDY MELOON(USA)
 3: LILIBETH LINARES(VEN)

▲ 밴텀급

- 1: HUIWEN TANG(TPE)
 2: ELISABET DELGADO(ESP)
 3: URBIS MELENDEZ(CUB)
 3: LAUREN BURNS(AUS)

▲ 페더급

- 1: HSIU WEN LAI(TPE)
 2: 윤명숙(한국)
 3: LEONILDES SANTOS(BRA)
 3: KARPATIAKI MARIA(GRE)

▲ 라이트급

- 1: ELIZABETH EVANS(USA)
 2: 강해은(한국)
 3: CHING CHI HSIAO(TPE)
 3: MIET FILIPOVIC(CRO)

▲ 웰터급

- 1: ELENA BENITEZ(ESP)
 2: DROSIDOU MORFO(GRE)
 3: ANA PAULA FRANCA(BRA)
 3: LISA O'KEETE(AUS)

▲ 미들급

- 1: SONAYIS MAYAN*(CUB)
 2: IREANE RUIZ(ESP)
 3: HSIN YU HSU(TPE)
 3: NATALIA SHANIA(RUS)

▲ 헤비급

- 1: HSIAO YING HUANG(TPE)
 2: 김윤경(한국)
 3: NATALIA IVANDVA(RUS)
 3: ADRIANA CARMONA(VEN)

7월

이 준 관

소나기 그치고,

내가 아까는
말굽자석 같은
무지개가 났다야.

나무 그늘아, 푸른 나무 그늘아.
내 몸을 푸르게 물들어 줘.
나는 개구리가 될 테야.

저, 개구리 봐.
되게 개구쟁이처럼 생겼군.”
모두들 이렇게 혀를 끌끌 차도,

나는 개구리가 되어
물장구를 칠 테야.
가장 신나는 물방울을 만들 테야.

뭐,
7월이니까.

시/이준관

- 서울신문 신춘문예 동시 당선으로 문단에 나옴.
- 한국아동문학작가상, 대한민국 문학상 수상
- 동시집 『썸바귀꽃』, 『우리나라 아이들이 좋아서』

그림/이희탁(일러스트)



5명 무제한 단체전 경기 박진감 넘친 경기 펼쳐

한체대 대회 3연패 차지



▲개회식에서 대표선수 선서를 받고 있는 이필곤 회장

제31회 대통령기대회가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대구체육관에서 펼쳐졌다. 체급 구분없이 5명 단체전으로 흥미진진하게 경기가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 고등부는 서울체고, 대학부는 한체대, 일반부는 영천시청팀이 각각 우승기를 차지했다.



▲식후공개행사로 펼쳐진 계명대학교 무용과 여학생들의 부채춤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각 팀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 선수들의 모습

태권도, 아프리카 시범단 파견 등 월드컵축구유치에 한몫 담당

2002년 월드컵 축구 유치의 성공에는 세계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태권도 사범들의 역할이 컸다.

특히 지난 5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FIFA 집행위원 보유국인 카메룬과 모리셔스 등 아프리카 2개국에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여 월드컵 유치에 한 몫을 담당하였다.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월드컵 유치 유공자를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베풀고 유치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는데 태권도계에서는 이필곤 회장을 비롯해 진 영 아프리카 시범단 단장, 이규형 코치, 임미화 선수 등이 초대되었다.



▲카메룬 국립대학에서의 태권도 시범 모습.

▲이홍주 상임부회장이 아프리카 시범단 진 영 단장에게 단기를 수여하며 국위를 선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남자부 12연패, 여자부 5연패 성공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원국 2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 12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은 남자부가 금 6, 은 1, 여자부가 금 6, 은 2개를 따내며 남자 12연패, 여자 5연패를 차지했다.



◀ 한국대표선수단 결단식에서 이흥주 상임부회장은 이승완 대표선수단 단장에게 단기를 수여하며 선전을 당부했다.



▲ 개회식 모습

'98방콕 아시안게임 태권도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결의문 채택

6월 13일 22개국의 아시아연맹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아시아연맹 총회에서는 한국이 발의한 98방콕 아시안게임 태권도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아시아태권도인들의 충의를 모았다.



▲아시아태권도연맹 총회 모습



▲역대 대회중 최고의 성적을 올리며 종주국의 위업을 떨친 한국대표선수단의 기뻐하는 모습

남자 종합 2위, 여자 3위로 태권도계에 충격

한국대표선수단은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1996년도 월드컵태권도 대회에서 예상밖의 저조함을 보이며 남자팀이 금 3, 은 1개로 멕시코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여자팀은 금 1, 은 3개로 대만, 스페인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특히 남자팀이 종합우승을 빼앗긴 것은 국제대회 사상 처음이라 태권도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 결단식에서 김순배 부회장이 한국대표 선수단 황광철 회장에게 단기를 수여하고 있다.



▲ 멕시코는 한국을 누르고 종합우승을 차지한 반면, 남자 한국선수단은 국제대회사상 처음으로 종합우승자리를 내주며 2위, 충격을 안겨주었다.

1996년도 월드컵 태권도 대회



▲ 승자와 패자가 가려지는 순간



▲ 월드컵대회가 열린 리오데자네이로에는 재브라질 태권도사범들이 한국 선수단을 환영하며 성공적인 대회운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꿈나무들 큰 잔치

제25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5월 25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15개 시도지부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되었다.

태권도경기는 영천고교 체육관에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어 시도별 대표로 나선 태권도 꿈나무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했다.



▲태권도에 소질을 타고난 꿈나무가 태어났다. 중등부 웰터급에서 뛰어난 기량을 뽐내며 우승하고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설승룡 선수(경기 성남서중 3학년). 원발 돌려차기와 뒤차기가 주특기인 설선수는 오는 2천년 시드니 올림픽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다.



▲뛰어난 기량으로 체급별 우승을 차지한 2000년대 유망주들

국제대회 유공자 6명, 체육훈장 백마장 수상

95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12회 남자(여자5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지도력을 발휘하며 남녀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국위를 선양하는데 기여한 한국대표선수단 지도자들에게 체육훈장 백마장이 수여되었다.

훈장수여식은 5월 22일 문화체육부 5층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는데 수상자는 좌로부터 류황국, 전판선, 김경지, 윤판석, 장 권, 이경배 씨 등 6명이다.

